

연구개발적립금사업 2017-07

FTA 체결 이후 수입수산물의 유통 · 소비 현황과 과제

Analysis of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Imported Fisheries Products after FTA
Implementation

2017. 12.

김봉태·박혜진·배기환·권오민·강한애·기해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보고서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김 봉 태 : 제1장, 제4장, 제6장

<연구진>

박 혜 진 : 제2장, 제3장 2절, 제5장

배 기 환 : 제2장 2~3절, 제3장 2절

권 오 민 : 제2장 2~3절, 제3장 2절

강 한 애 : 제2장 2~3절, 제3장

기 해 경 : 제2장 2~3절, 제3장 2절

<외부 연구진>

김 인 숙(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 제3장 2절, 제5장 1절

김 경 미(숙명여대 아태여성정보통신원) : 제3장 2절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현재까지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이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FTA 국가로부터 수산물 수입은 약 2배로 증가했으며 전체 수입의 약 70%를 차지한다. 이러한 수입 증가는 FTA로 인한 개방 확대에 따른 것이지만, 국내 생산이 정체된 가운데 수산물 수요가 크게 증가한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FTA로 인한 수입 증가는 생산자에게 부정적인 반면 소비자에게는 긍정적이지만, 국내 수요 증가에 따라 부족한 공급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의 이익이 클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는 FTA 체결에 따른 국내 피해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생산자 영향을 주로 다뤘기 때문에 수산물 수입과 유통을 분석한 사례는 많지 않다. 이론적으로는 FTA가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도 그러한지는 사후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FTA로 인한 관세 인하의 효과가 현지 수출부터 국내 유통을 거치면서 마진으로 흡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산물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FTA 이후 크게 증가한 주요 수입수산물의 유통·소비 현황을 살펴보고, FTA가 수산물 수입과 국내 시장에 미친 경제적인 효과와 FTA 이후 소비자가 체감하는 수산물 시장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소비자 후생 증진의 관점에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상 정책도 소비자와 취약업종 중심의 포용적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필요한 논거를 제공하고 국내 수급 여건상 수산물 수입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미흡했던 수입수산물의 유통·소비 실태에 대한 다양한 학술적·정책적 연구를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책임자로서 이 연구를 총괄한 김봉태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으로 참여한 기해경 연구원, 박혜진 연구원, 배기환 연구원, 권오민 연구원, 강한애 연구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소비자 후생 연구의 전문가로서 이 연구에 함께 참여한 한국소비자원의 김인숙 박사, 숙명여대의 김경미 박사와,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 주신 조정희 본부장에도 깊은 감사를 표한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사에 충실하게 응하여 연구에 도움을 주신 수산물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2017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 장 양 창 호



요 약 · i



Executive Summary · v

제1장

서 론 · 1

| | |
|------------------------|---|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
| 제2절 연구 목적 | 4 |
|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4 |
| 1.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 4 |
| 2. 연구 방법 | 5 |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 5 |

제2장

FTA 체결 및 수산물 수입 현황 · 8

| | |
|-------------------------------|----|
| 제1절 개황 | 8 |
| 1. 우리나라의 FTA 체결 및 추진 동향 | 8 |
| 2. 수산물 수입 동향 | 13 |

| | |
|-----------------------------|----|
| 제2절 FTA 국가별 수산물 수입 현황 | 18 |
| 1. 아시아 지역 | 18 |
| 2. 유럽 지역 | 23 |
| 3. 미주·대양주 지역 | 25 |
| 제3절 주요 수산물 수입 현황 | 30 |
| 1. 새우 | 30 |
| 2. 명태 | 33 |
| 3. 연어 | 36 |
| 4. 오징어 | 40 |
| 5. 고등어 | 44 |

제3장

주요 수입수산물의 유통 현황 · 48

| | |
|---------------------------|----|
| 제1절 수입수산물 유통 개요 | 48 |
| 제2절 주요 수입수산물의 유통 현황 | 50 |
| 1. 새우 | 50 |
| 2. 명태 | 53 |
| 3. 연어 | 58 |
| 4. 오징어 | 61 |
| 5. 고등어 | 65 |

제4장

FTA 이후 수산물 수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67

| | |
|--------------------------------|----|
| 제1절 FTA의 수입물량 변화 효과 | 67 |
| 1. 개요 | 67 |
| 2. 분석 모형 및 자료 | 69 |
| 3. 분석 결과 | 70 |
| 제2절 FTA 수입물량과 가격의 인과성 분석 | 74 |
| 1. 개요 | 74 |
| 2. 분석 모형 및 자료 | 75 |
| 3. 분석 결과 | 76 |
| 제3절 FTA의 체결국 수출가격 변화 효과 | 78 |
| 1. 개요 | 78 |
| 2. 분석 모형 및 자료 | 79 |
| 3. 분석 결과 | 80 |
| 제4절 소결 | 82 |

제5장

수입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분석 · 83

| | |
|---------------------------------------|-----|
| 제1절 소비자 조사 개요 | 83 |
| 1. 조사 목적 및 설계 | 83 |
| 2. 응답자 특성 | 85 |
| 제2절 소비자 조사 결과 | 87 |
| 1. 수산물 구입 일반 | 87 |
| 2. FTA 이후 국내 수산물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 | 89 |
| 3. 주요 수입수산물의 품목별 구매 행태 및 소비자 인식 | 90 |
| 4.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96 |
| 제3절 소결 | 108 |

제6장

요약 및 결론 · 110

제1절 분석 결과 요약 110

제2절 정책 제언 112



참고문헌 · 118



부록 · 122

FTA 이후 수산물 소비 실태 및 소비자 인식 조사표 122

| | |
|---|----|
| 〈표 2-1〉 FTA 체결 및 추진 동향(2017년 9월 기준)..... | 8 |
| 〈표 2-2〉 FTA 체결국별 양허별 수산물 품목 비중..... | 10 |
| 〈표 2-3〉 FTA 체결국별 주요 수산물 양허 내용(자유화되지 않은 품목)..... | 12 |
| 〈표 2-4〉 수산물 수급 현황 추이..... | 14 |
| 〈표 2-5〉 FTA 체결국별 수산물 수입 동향(수입액)..... | 15 |
| 〈표 2-6〉 FTA 체결국별 수산물 수입 동향(수입량)..... | 16 |
| 〈표 2-7〉 주요 수산물 수입 동향..... | 17 |
| 〈표 2-8〉 對중국 주요 수산물 수입 동향 | 19 |
| 〈표 2-9〉 對ASEAN 주요 수산물 수입 동향 | 20 |
| 〈표 2-10〉 對베트남 주요 수산물 수입 동향 | 21 |
| 〈표 2-11〉 對인도 주요 수산물 수입 동향..... | 22 |
| 〈표 2-12〉 對터키 주요 수산물 수입 동향..... | 22 |
| 〈표 2-13〉 對EFTA 주요 수산물 수입 동향 | 23 |
| 〈표 2-14〉 對EU 주요 수산물 수입 동향..... | 24 |
| 〈표 2-15〉 對미국 주요 수산물 수입 동향..... | 25 |
| 〈표 2-16〉 對칠레 주요 수산물 수입 동향..... | 26 |
| 〈표 2-17〉 對페루 주요 수산물 수입 동향..... | 26 |
| 〈표 2-18〉 對캐나다 주요 수산물 수입 동향 | 27 |
| 〈표 2-19〉 對뉴질랜드 주요 수산물 수입 동향 | 28 |
| 〈표 2-20〉 對호주 주요 수산물 수입 동향 | 29 |
| 〈표 2-21〉 새우 수입 동향..... | 30 |
| 〈표 2-22〉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수입 새우 관세율..... | 31 |
| 〈표 2-23〉 새우의 주요 세번별 수입 동향..... | 32 |
| 〈표 2-24〉 새우 수급 동향..... | 33 |
| 〈표 2-25〉 명태 수입 동향..... | 34 |
| 〈표 2-26〉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수입 명태 관세율..... | 35 |
| 〈표 2-27〉 명태의 주요 세번별 수입 동향..... | 35 |
| 〈표 2-28〉 명태 수급 동향..... | 36 |
| 〈표 2-29〉 연어 수입 동향..... | 37 |
| 〈표 2-30〉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수입 연어 관세율..... | 38 |

| | |
|--|----|
| 〈표 2-31〉 연어의 주요 세번별 수입 동향..... | 39 |
| 〈표 2-32〉 연어 수급 동향..... | 40 |
| 〈표 2-33〉 오징어 수입 동향..... | 41 |
| 〈표 2-34〉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수입 오징어 관세율..... | 42 |
| 〈표 2-35〉 오징어의 주요 세번별 수입 동향..... | 43 |
| 〈표 2-36〉 오징어 수급 동향..... | 44 |
| 〈표 2-37〉 고등어 수입 동향..... | 45 |
| 〈표 2-38〉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수입 고등어 관세율..... | 46 |
| 〈표 2-39〉 고등어의 주요 세번별 수입 동향..... | 46 |
| 〈표 2-40〉 고등어 수급 동향..... | 47 |
| 〈표 3-1〉 새우의 세번별 주요 유통 상품 형태..... | 52 |
| 〈표 3-2〉 연어 상품 형태와 용도별 제품..... | 59 |
| 〈표 3-3〉 수입 오징어의 가공 형태와 용도..... | 62 |
| 〈표 4-1〉 무역창출효과 및 무역전환효과 분석 모형..... | 70 |
| 〈표 4-2〉 무역창출효과 및 무역전환효과 분석 대상..... | 70 |
| 〈표 4-3〉 새우의 무역효과 분석 결과..... | 71 |
| 〈표 4-4〉 명태의 무역효과 분석 결과..... | 72 |
| 〈표 4-5〉 연어의 무역효과 분석 결과..... | 72 |
| 〈표 4-6〉 오징어의 무역효과 분석 결과..... | 73 |
| 〈표 4-7〉 고등어의 무역효과 분석 결과..... | 73 |
| 〈표 4-8〉 수입물량-가격의 인과성 검정 모형..... | 75 |
| 〈표 4-9〉 품목별 수입물량-가격의 인과성 검정 결과..... | 76 |
| 〈표 4-10〉 수출가격 변화 효과 분석 모형..... | 79 |
| 〈표 4-11〉 노르웨이산 연어의 수출가격 변화 효과..... | 80 |
| 〈표 4-12〉 노르웨이산 고등어의 수출가격 변화 효과..... | 81 |
| 〈표 5-1〉 조사 내용..... | 84 |
| 〈표 5-2〉 품목별 구매 경험 응답자 수..... | 85 |

| | |
|--|-----|
| 〈표 5-3〉 응답자 특성..... | 86 |
| 〈표 5-4〉 주 구입 수산물 및 수입수산물 현황..... | 87 |
| 〈표 5-5〉 수산물 구입 시 원산지 확인 정도..... | 88 |
| 〈표 5-6〉 국산과 수입산의 품질 차이 인식..... | 88 |
| 〈표 5-7〉 국산과 수입산의 품질 평가(차이 인식의 경우)..... | 88 |
| 〈표 5-8〉 과거 대비 수산물 소비 증가..... | 89 |
| 〈표 5-9〉 FTA 이후 국내 수산물 시장에 대한 만족도..... | 90 |
| 〈표 5-10〉 FTA 이후 국내 축산물 시장에 대한 만족도..... | 90 |
| 〈표 5-11〉 활·신선냉장·냉동품의 구매 특성..... | 91 |
| 〈표 5-12〉 가공품의 구매 특성..... | 91 |
| 〈표 5-13〉 주요 수입수산물의 전반적 만족도..... | 92 |
| 〈표 5-14〉 주요 수입수산물의 품질 만족도..... | 93 |
| 〈표 5-15〉 주요 수입수산물의 가격 만족도..... | 93 |
| 〈표 5-16〉 주요 수입수산물의 선택의 폭 만족도..... | 94 |
| 〈표 5-17〉 주요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확인 정도..... | 94 |
| 〈표 5-18〉 주요 수입수산물의 특정 원산지 재구매 의사..... | 95 |
| 〈표 5-19〉 주요 수입수산물의 과거 대비 구매 변화..... | 95 |
| 〈표 5-20〉 수입수산물의 구매 횟수(총 10회 중)..... | 96 |
| 〈표 5-21〉 원산지 확인 정도-성별·연령별·소득별 특징..... | 97 |
| 〈표 5-22〉 국산과 수입산의 품질 차이 인식-성별·연령별·소득별 특징..... | 97 |
| 〈표 5-23〉 FTA 이후 전반적 만족도-성별·연령별·소득별·지역별 특징..... | 98 |
| 〈표 5-24〉 FTA 이후 품질 만족도-성별·연령별·소득별·지역별 특징..... | 99 |
| 〈표 5-25〉 FTA 이후 가격 만족도-성별·연령별·소득별·지역별 특징..... | 100 |
| 〈표 5-26〉 FTA 이후 선택의 폭 만족도-성별·연령별·소득별·지역별 특징..... | 101 |
| 〈표 5-27〉 노르웨이산 고등어 구입 이유-성별 특징..... | 102 |
| 〈표 5-28〉 노르웨이산 고등어 구입 이유-연령별 특징..... | 102 |
| 〈표 5-29〉 노르웨이산 고등어 구입 이유-소득별 특징..... | 103 |
| 〈표 5-30〉 노르웨이산 고등어 구입 이유-가구원수별 특징..... | 103 |
| 〈표 5-31〉 ASEAN산(베트남·태국) 새우 구입 이유-성별 특징..... | 104 |
| 〈표 5-32〉 ASEAN산(베트남·태국) 새우 구입 이유-연령별 특징..... | 104 |

| | |
|--|-----|
| 〈표 5-33〉 ASEAN산(베트남·태국) 새우 구입 이유-가구원수별 특징..... | 105 |
| 〈표 5-34〉 연어의 상품형태별 소비유형..... | 106 |
| 〈표 5-35〉 노르웨이산 연어 구입 이유-성별 특징..... | 106 |
| 〈표 5-36〉 노르웨이산 연어 구입 이유-연령별 특징..... | 107 |
| 〈표 5-37〉 노르웨이산 연어 구입 이유-소득별 특징..... | 107 |
| 〈표 6-1〉 수산물 유통단계별 가격 정보 제공 현황..... | 116 |

| | |
|--------------------------------------|-----|
| 〈그림 3-1〉 수입수산물의 일반적인 유통 경로 | 49 |
| 〈그림 3-2〉 수입 새우의 유통경로 | 51 |
| 〈그림 3-3〉 수입 명태의 유통경로 | 55 |
| 〈그림 3-4〉 명태 주요 제품 | 57 |
| 〈그림 3-5〉 수입 연어의 유통경로 | 60 |
| 〈그림 3-6〉 수입 오징어의 유통경로 | 63 |
| 〈그림 3-7〉 노르웨이산 고등어의 유통경로 | 65 |
| 〈그림 4-1〉 노르웨이산 연어·고등어의 수출가격 추이 | 81 |
| 〈그림 6-1〉 수입물품의 유통이력관리제도 | 117 |

요약

FTA 체결 이후 수입수산물의 유통·소비 현황과 과제

1.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크게 증가한 주요 수입수산물의 유통·소비 현황을 살펴보고, 수산물 무역과 국내 시장에 미친 FTA의 경제적인 효과, 수산물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표〉 본 연구 방법의 특징

| 특징 | 주요 내용 | 자료수집 | 방법론 선택 이유 |
|------|---|---|---|
| 기초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추진 동향 - FTA 국가별 수산물 수입 현황 - 주요 수산물 수입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조사 - 통계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이후 수산물 수입의 전반적인 현황 제시 - FTA 관련 주요 수입수산물 파악 |
| 면접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수입수산물 유통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 면담 - 외부전문가 공동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수입수산물의 유통 현황 파악 - FTA 후생 관련 문제점 및 개선점 조사 - 소비자 후생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한국 소비자자원) 공동 수행 |
| 계량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의 수입물량 변화 - FTA 수입물량과 가격 인과성 - FTA 체결국 수출가격 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조사 - 통계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창출/무역대체 효과, 수입산과 국내산의 대체 효과, 수출가격 효과의 정량 측정 |
| 설문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이후 수산물 시장 및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가 체감하는 FTA의 후생 효과 확인 -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체감도 분석 |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과 사례를 국내외 문헌을 통해 조사하고 수입수산물의 특성에 맞게 분석하고 수입·유통 현황과 소비자 인식에 대해 각각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수행하였으며, 이상을 토대로 수입수산물 관련 과제와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음
- 소비자 후생 분석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수입수산물의 수입·유통경로, 국산과의 경합성, 소비자 후생 관련 문제점 및 개선점을 파악함
- 기존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FTA 이후 수산물의 무역 효과, 수입산과 국산의 인과성, 상대국 수출가격의 변화 등 FTA의 경제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계측하고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함
-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FTA 영향과 후생 효과를 측정하고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이후 2016년 현재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FTA 국가로부터 수산물 수입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여 전체의 약 70%를 차지함
- 주요 수입수산물은 새우, 명태, 연어, 오징어, 고등어로 이 가운데 명태, 오징어, 고등어는 FTA 이후 국내 생산 감소로 수입이 증가하였고, 새우와 연어는 FTA를 계기로 수요가 늘면서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음
- 주요 수입수산물의 유통 현황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었음
- 새우는 다수의 영세한 수입업체 중심으로 수입되어 현지 수출업체에 대한 구매 교섭력이 떨어지고, TRQ 공매 제도로 수입업자의 위험 부담이 커서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
- 연어도 수입업체 간 경쟁이 심하여 현지 수출업체에 대한 교섭력이 떨어

- 지고, 노르웨이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관세 인하 혜택의 상당 부분이 수출업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됨
- 명태연육과 오징어는 주로 가공업체를 통해 수입되어 관세 인하의 효과를 소비자가 체감하기 힘들고, 오징어는 가공업체가 영세하여 원물 가격이 상승한 현 시점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입 고등어는 수도권 중심의 소비지를 중심으로 양질의 상품 공급이 부족한 국산을 보완하고 있음
 - FTA로 인한 무역효과는 다수 품목에서 무역창출효과가 우세하고 국산 가격 상승이 수입을 유발하는 인과성이 확인되어 수급 안정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수출가격 분석에서 노르웨이산 연어에 대한 관세 인하 효과가 현지 수출업자에게 일정부분 흡수된 것으로 추정됨
 -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 소비자들은 FTA 이후 국내 수산물 시장 변화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선택의 폭 확대’ 면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품질 향상’, ‘가격 하락’의 순이었음
 - 주요 품목별 만족도는 연어와 고등어가 높고 명태·오징어의 가공품이 낮았으며, 구매 수산물의 원산지는 고등어와 연어가 노르웨이산, 새우가 태국산과 베트남산이 대부분이었고, 원산지 선택 시 가격뿐만 아니라 신선도, 안전성도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음
 - 이상의 결과에 기초할 때 FTA가 계속 이행되고 신규 FTA가 체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자 보호뿐만 아니라 소비자 측면에서 FTA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으로 수산물 수입 시장의 경쟁 환경 조성, 수입수산물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개를 들 수 있음
 -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수입업체의 교섭력 강화, TRQ 제도 개선 등 정책 지원을 통해 수입 단계에서 FTA의 관세 혜택이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국내 유통단계에서 독과점적 지위에 따른 유통마진 확대, 불공정 관행에 따른 소비자 후생의 부정적인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필요 시 법에 정해진 적절한 규제를 시행함

- 현재 수입수산물에 대한 정보는 무역 자료 이외에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탓에 거래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확보, 관련 정책 수립에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와 정보 제공이 필요함
-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등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입물품의 유통이력관리제도를 활용함

2) 정책적 기여

- 그동안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한 수입수산물 유통·소비 현황, 문제점과 과제를 제시하여 관련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함
- 수산물 수입시장에서의 경쟁 환경 조성, 수입수산물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개 등 분석 결과에 기초한 주요 과제를 제시하여, 새 정부가 추구하는 소비자와 취약업종 중심의 포용적 통상 정책의 논거를 제공함

3) 기대효과

- FTA 이후 수입수산물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기존의 생산자 관점이 아닌 소비자 관점에서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함
- FTA 이후 수입수산물의 유통·소비 측면에서 체계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수산물 무역·유통·소비에 전반에 걸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
- 그동안 미흡했던 수입수산물의 유통·소비 실태에 대한 다양한 학술적·정책적 연구를 촉발함

Executive Summary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Imported Fisheries Products after the FTAs and Future Tasks

1. Purpose

- The study examines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major imported fisheries products that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FTAs took effect. It also analyzes large economic effects of FTAs on fisheries trade and domestic market as well as consumer recognition about fisheries market. Based on the result, it presents policy tasks.

2. Methodologies and Features

1) Methodologies

〈Table〉 Feature of This Study's Methodology

| Feature | Major Contents | Data Collection | Reason for Selection |
|----------------|--|--|---|
| Basic analysi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promotion trends - Fisheries imports from FTA partners - Major fisheries import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terature review - Statistical surve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show general condition of fisheries imports after FTAs - To understand major imported fisheries products under FTAs |
| Interview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rrent distribution of major imported fisheries product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rview with importers and distributors - Joint research with outside expert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identify current distribution of major imported fisheries - To examine problems and improvements regarding benefits of FTAs - To jointly conduct research with an expert organization on consumer benefits (Korea Consumer Agency) |

| Feature | Major Contents | Data Collection | Reason for Selection |
|-----------------------|--|---|--|
| Quantitative analysi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port changes under FTAs - Relation between import quantity and prices under FTAs - Price change of exports to FTA partner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terature review - Statistical surve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conduct quantitative analysis on trade creation/replacement, replacement of imported/domestic fisheries products |
| Surve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sumer recognition on major imported fisheries products and fisheries market after FTA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rnet surve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identify FTA benefits felt by consumers - To analyze consumer satisfac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and societal characteristics |

2) Features

- This study examines methods of analyzing economic effects of FTAs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and analyzes the method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imported fisheries products. It conducts interviews and surveys on current distribution of imports and consumer recognition. Based on the results, it draws future tasks and improvement direction.
 - The study teams up with the Korea Consumer Agency, an expert on consumer benefit analysis. Along with KCA, it interviews importers and distributors on import and distribution routes and competitiveness of imported fisheries products compared with domestic ones. The results show current problems and improvements.
 - Using the existing statistical data, it quantitatively measures economic impacts of FTAs such as fisheries trade effects under FTAs, relation between imported and domestic fisheries products and export price changes of FTA partners and derives policy implications.
 - It conducts consumer surveys to measure effects of FTAs and benefits consumer experience and draw problems and improvements.

2. Results

1) Summary

- Since the 2004 Korea-Chile FTA, Korea has implemented 15 FTAs with 52 countries as of 2016. In this process, fisheries imports from FTA partners have doubled, accounting for 70% of the total.
 - Major imports were shrimp, pollack, salmon, squid and mackerel. Among them, import of pollack, squid and mackerel increased as domestic production decreased after FTAs. Meanwhile, import of shrimp and salmon has jumped as FTAs boosted demand.
- The survey on current distribution of major fisheries imports shows the following.
 - Shrimps are imported through multiple small importers, which lowers bargaining power with local exporters. TRQ (Tariff Rate Quota) auction system exposes importers to higher risk, negatively affecting consumer benefits.
 - High competition among salmon importers also lowers bargaining power with the local exporters. High dependency on Norwegian salmon trades off benefits from low tariff as most of benefits go to local exporters.
 - Pollack paste and squids are mainly imported through processing companies, which makes it hard for consumers to feel benefits from tariff cuts. Squid processing companies are mostly in small size and are currently having difficulties as squid prices go up.
 - Imported mackerel is complementing domestic ones in metropolitan areas where high quality domestic mackerel are in short supply.
- In a number of fisheries products, FTAs create trade and high price of domestic products induces imports. Therefore, FTAs contribute to

consumer benefits by stabilizing supply and demand.

- However, the export price analysis implies that effects of tariff cuts on Norwegian salmon are partly absorbed by local exporters.
- According to the survey on consumer awareness, consumers are generally satisfied with domestic fisheries market changes since FTAs. As for details, highest satisfaction is for ‘expansion of choices,’ followed by ‘better quality,’ and ‘lower price.’
 - As for satisfaction for each item, salmon and mackerel show the highest level, while pollack and squids show the lowest. Mackerel and salmon are mostly from Norway and shrimps are from Thailand and Vietnam. When they choose countries of origin, consumers consider freshness and food safety as well as prices.
 - Such results suggest that future policies should be directed at maximizing effects of FTAs felt by consumers let alone producer protection as new FTAs are being signed in addition to the current ones. Examples include more competitive environment of import market, systematic management and opening of imported fisheries information.
 - As for items with high import dependency, diversified import origins, stronger bargaining power of importers and revision of TRQ system are necessary. With these improvements, benefits from tariff cuts can be realized at the import stage.
 - Larger monitoring efforts are necessary for domestic distribution process. Monopolistic position for high margins and unfair practices on consumers should be monitored and adequately regulated under the law if necessary.
 - Information on imported fisheries products are not reliable except those from trade materials. This puts limits on preparing relevant

policies let alone secur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ransaction. Therefore, constant surveys and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for major imported products.

- Distribution track record management system has been in place and the system can be utilized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imported fisheries products and unfair practice monitoring.

2) Policy Proposal

- The study highlights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imported fisheries products that have not received enough attention. By presenting problems and tasks, it raises the need for relevant policies
- Based on it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major tasks, such as more competitive environment for fisheries import market and systematic management and opening of import fisheries information. This provides foundation for engagement trade policy on consumers and vulnerable businesses pursued by the new administration.

3) Expected benefits

- The study analyzes rising fisheries imports under FTAs from consumer's perspective rather than producer's. Such analysis contributes to consumer benefits ultimately.
- It systematically examines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fisheries imports since FTAs. The results can be used as foundation when the government prepares policies across fisheries trade,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 The study invigorates various academic and policy research 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fisheries imports that have lacked enough attention.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이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거대 경제권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인도, 터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 주요 교역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 여건상 해외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한 결과이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수산물에 관세라는 보호막을 걷어내고 수입산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가세된 중미 5개국과의 FTA를 비롯하여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한-중-일 FTA 등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개방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현재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은 33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전체 수산물 수입의 69%를 차지했다. 이는 FTA가 처음 발효된 2004년 17억 달러에서¹⁾ 94% 증가한 것이다. 수입이 많은 상대국은 중국(12.3억 달러), ASEAN(9.0억 달러), EFTA(3.1억 달러), 미국(2.4억 달러), EU(1.6억 달러), 칠레(1.3억 달러), 페루(1.0억 달러) 등으로 12년 동안의 증가율은 최근에 발효한 중국이 다소 낮았을 뿐 나머지 국가들은 78~300%로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실적은 물론 FTA 이행에 따른 관세 인하에 힘입은 것이다.²⁾

그러나 10~20% 수준인 수산물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수요가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세 장벽이 낮아진 점도 중요하지만, FTA 체결을 계기로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고 수출입업체의

1) 2016년 현재 FTA 발효 국가 기준이다.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무역통계 원자료(2017.9.7.)를 저자가 가공하였다.

국내 유통망 확충, 홍보 및 할인행사 등의 마케팅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시장접근 노력이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EFTA(노르웨이) 산 고등어이다. 한-EFTA FTA에서 고등어는 국내 생산이 많은 민감성을 반영하여 500톤에 대해서만 무관세로 할당(TRQ)하였으나, 실제 수입량은 발효 1년차('06년)에 4,500톤에서 발효 11년차('16년)에 3만 9천 톤으로 증가하였다.³⁾ 이는 수입량의 1%에 불과한 TRQ의 효과보다는 노르웨이가 FTA를 계기로 한국 시장에서 전개한 수출마케팅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출 상대국의 이러한 노력은 소비자들이 수입산에 대해 거부감을 해소하고 소비경험을 축적시켜 수입산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고등어뿐만 아니라 노르웨이·칠레의 연어, 캐나다·미국의 바닷가재 등은 국내 생산이 미미하여 소비도 거의 없었지만 FTA 이후 소비경험이 쌓이면서 대중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수입수산물이다.

그리고 FTA가 아니더라도 수산물 수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장 여건이었다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이다. 사실 FTA 이행 기간인 2004~2016년 동안 FTA 국가산 수입(94%)보다 FTA 국가산이 아닌 수입이 더 많이(132%) 증가했다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⁴⁾ 2000년대 이후 수산물 생산이 연근해 자원 감소, 원양어장 축소 등으로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반면, 수산물 수요는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건강 및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증가하였다. 국내 생산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초과수요가 수입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FTA 체결로 수입 증가가 가속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FTA가 부족한 국내 수산물 생산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다.

물론 FTA는 양면성이 있어서 수입 증가를 유발하여 국내 생산을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는 FTA 체결 당시부터 크게 우려했던 부분이다. FTA 이후 생산 영향에 대해서는 엄밀한 분석이 요구되지만 현상적으로 볼 때 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국산 수산물 가격이 FTA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산물(해조류 제외) 산지

3)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무역통계 원자료(2017.9.7.)를 저자가 가공하였다.

4)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무역통계 원자료(2017.9.7.)를 저자가 가공하였다.

가격이 2004년 kg당 2,265원에서 2016년 3,599원으로 약 60% 올랐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지속적인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⁵⁾ 국내 생산의 정체 속에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입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이해되는 부분이다.⁶⁾

FTA는 정체되어 있는 국내 생산만으로는 수산물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수입수산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고 필수적인 소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했는지, 아니면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가격이 하락했는지 그 인과성을 엄밀하게 분석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FTA로 인한 관세 인하 등의 효과가 현지 수출부터 국내 유통·소비 단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한 사례도 거의 없어서 FTA의 후생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수산업의 FTA 관련 연구는 FTA 체결에 따른 국내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부문의 사전 영향 측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FTA 영향의 사후적인 연구가 수차례 시도되었는데, FTA의 관세 인하 효과가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을 보유한 수출국의 수출업자에게 일정 부분 귀속되거나⁷⁾ 국내 수입·유통단계의 마진에 흡수되면서 소비자에게는 후생 효과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⁸⁾ 수산물도 특정 국가에 특정 품목이 편중되어 있어 수출국의 시장지배력이 크고 수산물의 특성 상 유통단계가 복잡하여 유통마진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5)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의 원자료(2017.9.7.)를 저자가 가공하였다.

6) 그러나 개별적으로 피해가 확인된 품목도 다수 있다. 2012년부터 정부는 FTA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2015~2017년에 가리비, 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 가오리, 전갱이, 전복 등 12개 품목이 수입 증가에 의한 피해가 인정되었다. 다만 FTA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대체로 크지 않은 것으로 계속되어 전체 수산물 생산 대비 피해 규모는 작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FTA 체결 과정에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양허제외를 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TRQ 배정, 장기유예 등으로 최대한 보호를 하였기 때문이다. 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동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보완대책이 한·미/한·중 FTA를 계기로 시행되면서 시장 개방 확대에 내성을 키운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 최용호 외, 「오렌지 수입시장에서의 관세 인하에 따른 후생효과 분석」, 『농촌경제』, 제39권 제1호, 2016, p.14.

8) 이병훈 외, 「FTA 체결 이후 주요 수입농산물 유통실태와 경제주체별 후생효과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p.112.

한편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그간 생산자 중심이었던 통상정책을 취약업종 및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포용적 통상 정책을 천명하였고 FTA의 소비자 후생 제고도 중요한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⁹⁾

제2절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FTA 발효 이후 크게 증가한 주요 수입수산물의 유통·소비 현황을 살펴보고, 수산물 무역과 국내 시장에 미친 FTA의 경제적인 효과, 수산물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¹⁰⁾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전체적인 현황에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와 모든 수산물을 다루지만, 구체적인 유통·소비 현황,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는 FTA 상대국의 수입이 많거나 FTA 이행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한 새우, 명태, 연어, 오징어, 고등어와 이에 해당하는 한-ASEAN FTA, 한-미 FTA, 한-EFTA FTA, 한-칠레 FTA로 한정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 우리나라의 FTA 체결 및 수산물 수입 현황에 대해 국가별·품목별·세번별로 그 특징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주요 수입수산물의 유통실태를 수입업자,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9)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산교섭본부장, FTA보완대책·소비자후생 점검 나서」, 2017.9.14. 보도자료, p.1.

10) 유통·소비 단계별 후생 효과 측정도 중요한 부분이나 현재로서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 관련 자료 구득이 쉽지 않아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다.

조사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제4장에서는 수입물량, 수입가격, 국산 가격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한 FTA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제5장에서는 FTA 이후 수입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분석 결과와 함의를 요약하고 수입수산물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과 사례를 국내외 문헌을 통해 조사하고 수입수산물의 특성에 맞게 원용하였다. 기존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FTA 이후 수산물의 무역 효과, 수입산과 국산의 인과성, 상대국 수출가격의 변화 등 FTA의 경제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계측하였다. 수입수산물의 수입·유통경로, 국산과의 경합성 등 유통실태 파악을 위해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 소비자 후생 분석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FTA의 영향과 후생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행하고 분석하였다.

제4절 선행연구 검토

수입수산물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홍성걸 외(1997)가 수산물 수입자유화 직후 수입수산물의 유통실태, 유통정보체계, 수입관리제도 등을 고찰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¹¹⁾ FTA 이후 수입수산물에 대한 연구는 식품안전 관리 측면의 연구는 있으나¹²⁾ FTA의 경제적 영향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FTA의 후생효과와 관련해서는 서진교 외(2012)가 무역자유화 이후 주요 수

11) 홍성걸 외, 『수입수산물 유통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7의 내용을 저자가 요약·정리하였다.

12) 푸드원텍(주), 『수입수산물 선진관리체계 기반 구축 방안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장영주, 『수입수산물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09 등의 연구가 있다.

입재의 소비자가격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농식품의 국제가격 상승, 수입통관 이후의 경쟁 제한적 시장구조,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재 수입 비중, 상품다양성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물가지수의 왜곡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경쟁 제한적 시장구조를 주요 수입 소비재의 국내 유통마진 분석을 통해 규명하였고, 상품다양성 효과를 반영한 무역이익을 실증적으로 측정하였다.¹³⁾

이병훈 외(2013)는 FTA 체결국 수입 비중이 큰 포도, 오렌지, 쇠고기, 돼지고기를 사례로 수입농산물의 유통실태를 분석하고 FTA로 인한 경제주체별 후생 효과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로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현지 수출업자나 수입·유통업자에게 FTA의 관세 인하 혜택이 집중되고 소비자에게는 기대한 만큼의 후생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입 선 다변화를 통한 수출국 간 경쟁 확대, 수입유통단계의 독과점에 대한 규제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¹⁴⁾

이금노(2016)는 한-EU FTA 이후 EU산 수입규모가 큰 치즈, 아이스크림, 포도주, 맥주, 자동차, 가방, 화장품 등에 대해 소비자가격의 변화를 조사하고 소비자가격의 변화와 밀접한 유통마진의 변동률을 추정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 동안 FTA로 인한 관세 인하와 유로화 가치 하락에 의한 수입가격 인하 요인이 있었으나 수입소비재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등 소비자후생의 증가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관세인하분이 수입 및 유통업자의 이윤 증가로 흡수된 것으로 추정되었다.¹⁵⁾

본 연구는 FTA의 소비자 측면의 사후적 효과 평가라는 점에서 서진교 외(2012), 이병훈 외(2013), 이금노(2016) 등과 목적을 공유한다. 방법론 측면에서는 수산물과 상품 특성이 유사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 이병훈 외(2013)의 방법을 일부 원용하여 수산물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다만, 수산물의 경우 발효

13) 서진교 외,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의 내용을 저자가 요약·정리하였다.

14) 이병훈 외, 『FTA 체결 이후 주요 수입농산물 유통실태와 경제주체별 후생효과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의 내용을 저자가 요약·정리하였다.

15) 이금노, 「한-EU FTA 발효 후 수입소비재 가격변동 분석: 유통마진을 중심으로」, 『국제통상연구』, 제21권 제2호, 2016, pp.1~27의 내용을 저자가 요약·정리하였다.

전후로 유통마진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후생효과를 정량적으로 계측하지는 않고, 수입물량 변화, 수입물량과 가격의 인과성 분석, FTA 상대국의 수출가격 변화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서진교 외(2012)가 규명하였듯이 후생 효과 측정에서 놓치기 쉬운 상품다양성 효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개별 품목에 서진교 외(2012)의 분석 방법을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상품다양성 확대에 따른 후생 증가의 체감 정도를 조사하였다.

제2장

FTA 체결 및 수산물 수입 현황 《

제1절 개황

1. 우리나라의 FTA 체결 및 추진 동향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17년 9월 현재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이행하고 있다. FTA 체결국으로는 거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을 비롯하여 ASEAN, 인도, 터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 주요 교역국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수산물 교역 측면에서도 일본, 러시아를 제외한 주요 교역 상대국과 FTA를 이행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들 국가 이외에 중미 5개국과의 FTA가 타결되었고,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한-에콰도르 SECA, 한-이스라엘 FTA 등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표 2-1〉 FTA 체결 및 추진 동향(2017년 9월 기준)

| 구분 | 체결국 | 진행 상황 | 비고 |
|----------------|-------------|----------------|------------------|
| 협정 발효 (15건) | 칠레 | 발효(2004.4.1.) | 최초의 FTA |
| | 싱가포르 | 발효(2006.3.2.) | ASEAN 시장의 교두보 |
| | EFTA(4개국) | 발효(2006.9.1.) | 유럽시장 교두보 |
| | ASEAN(10개국) | 발효(2007.6.1.) | 거대경제권과의 최초 FTA |
| | 인도 | 발효(2010.1.1.) | BRICs국가, 거대시장 |
| | EU(28개국) | 발효(2011.7.1.) | 세계 최대경제권(GDP기준) |
| | 페루 | 발효(2011.8.1.) |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
| | 미국 | 발효(2012.3.15.) | 거대 선진경제권 |

| 구분 | 체결국 | 진행 상황 | 비고 |
|----------------|----------------|---|----------------------|
| 협정 발효 (15건) | 터키 | 발효(2013.5.1.) |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
| | 호주 | 발효(2014.12.12.) | 자원 부국 및 대양주 주요시장 |
| | 캐나다 | 발효(2015.1.1.) | 북미 선진시장 |
| | 중국 | 발효(2015.12.20.) | 우리의 제1위 교역('15 기준) |
| | 뉴질랜드 | 발효(2015.12.20.) |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
| | 베트남 | 발효(2015.12.20.) | 제3위 투자대상국('15.9. 기준) |
| | 콜롬비아 | 발효(2016.7.15.) |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
| 타결 (1건) | 중미 (5개국) | 가서명(2017.3.10.) 실질타결 선언(2016.11월) | 중미 신시장 창출 |
| 협상 진행 (4건) | 한·중·일 | 협상개시 선언(2012.11.20.) 제12차 공식협상 개최(2017.4월) |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
| | RCEP (15개국) | 협상개시 선언(2012.11.20.) 제19차 공식협상 개최(2017.7월) |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
| | 에콰도르 | 협상개시 선언(2015.8.25.) 제5차 협상 개최(2016.11월) |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
| | 이스라엘 | 협상개시 선언(2016.5월) 제5차 협상 개최(2017.5월) | 서부 중동지역 거점시장 |

주 1) EFTA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 ASEAN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3) EU :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4) 중미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5) RCEP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ASEAN

자료 : FTA 강국 KOREA(www.fta.go.kr, 검색일: 2017.10.30.)

기본적으로 FTA는 양자 협정이므로 기존의 교역 관계와 상호 간에 추구하는 공동의 목적에 따라 체결되는 양상이 다르다. 대체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를 보면, 이미 자유화 수준이 높은 선진국과는 추가적인 시장 확대를 위해 높은 수준의 FTA가 체결되는 반면, 자국 산업 보호에 관심이 많은 개발도상국과는 자유화 수준이 다소 낮으면서 경제협력을 표방하는 FTA가 체결되어 왔다. 수산물 교역 측면에서도 선진국인 미국, EU,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

대해서는 자유화 수준이 높고, 개발도상국인 중국, ASEAN, 인도, 터키 등에 대해서는 자유화 수준이 낮다. 그리고 수산물의 경우 원거리 국가에 대해서는 자유화 수준이 높고, 근거리 국가에 대해서는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과 대체로 겹치는데, 같은 어종이라도 선도에 따라 상품이 차별되는 수산물의 특성상 근거리 국가일수록 국산과 동질적인 상품이어서 직접적으로 경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칠레, 페루와 같이 개발도상국이지만 수산물에 대해 자유화 수준이 높은 FTA가 체결된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칠레, 페루와 교역하는 수산물은 주로 냉동품과 가공품이므로 중국, ASEAN 등에 비해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표 2-2〉 FTA 체결국별 양허별 수산물 품목 비중

단위 : %

| 구분 | 계 | 즉시 철폐 | 1~5년 철폐 | 6~10년 철폐 | 10년 초과 장기 철폐 | 저울관세 할당 (TRQ) | 부분 감축 /향후 재검토 | 양허 제외 |
|-------|-------|----------|------------|-------------|--------------------|---------------------|---------------------|----------|
| 칠레 | 100.0 | 69.4 | 21.6 | 9.0 | - | - | - | - |
| EFTA | 100.0 | 27.1 | 26.6 | 26.6 | - | 0.2 | 7.9 | 11.6 |
| ASEAN | 100.0 | 19.3 | 51.1 | - | 12.1 | 1.1 | 6.1 | 10.3 |
| 인도 | 100.0 | 10.3 | 22.9 | 34.0 | - | - | 13.3 | 19.5 |
| EU | 100.0 | 12.3 | 54.9 | 31.6 | 0.2 | 0.2 | - | 0.7 |
| 페루 | 100.0 | 9.7 | 58.7 | 31.2 | - | - | - | 0.4 |
| 미국 | 100.0 | 14.6 | 48.0 | 31.7 | 4.9 | 0.7 | - | - |
| 터키 | 100.0 | 7.2 | 3.6 | 52.0 | - | - | 16.8 | 20.4 |
| 호주 | 100.0 | 24.5 | 40.2 | 25.6 | 8.8 | - | - | 0.9 |
| 캐나다 | 100.0 | 10.7 | 61.3 | 24.4 | 3.6 | - | - | - |
| 중국 | 100.0 | 1.1 | 14.9 | 1.9 | 68.2 | 2.2 | 1.4 | 10.2 |
| 뉴질랜드 | 100.0 | 17.3 | 61.8 | 10.7 | 9.3 | 0.2 | - | 0.7 |
| 싱가포르 | 100.0 | 14.3 | 33.3 | 8.9 | - | - | - | 43.5 |

주 : 협정 당시 품목수 기준 비율임

자료 : FTA 강국 KOREA(www.fta.go.kr, 검색일: 2017.10.30.)

수산물의 양허 유형별 품목 수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와 가장 먼저 FTA를 체결한 칠레에 대해서는 즉시철폐 품목이 거의 70%에 이르고 모두 10년 이내에 자유화되어 그 이후 체결된 FTA에 비해 가장 급진적인 개방폭과 속도를 보였다. EU, 페루,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10년 초과 장기 철폐 품목이 일부 있지만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이 1% 미만으로 자유화 수준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다만 EFTA는 선진국이지만 다소 예외적으로 양허 제외 품목의 비중이 11.6%로 많은 편이다. ASEAN, 중국에 대해서는 장기 철폐 품목의 비중이 높고 양허 제외된 품목도 많다. 특히 중국은 많은 품목에 대해 최장 20년까지 자유화 일정을 설정하였다. 인도, 터키는 양허 제외 품목도 많지만 장기 철폐 대신 양허를 유보하는 ‘향후 재검토’ 품목이 많은 특징을 보인다.

국가별로 민감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 배정, 관세 부분 감축, 양허 제외 등으로 국내 수산업을 보호하였다. 주요 FTA 체결국별로 품목을 살펴보면, EFTA의 주요 수입 품목인 냉동고등어에 대해 TRQ를 배정하였다. ASEAN은 새우에 대해 TRQ를 배정하고 가오리 등은 일정 기간 유예 후 관세를 부분 감축하였고 전갱이, 가다랑어, 갈치 등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새우의 경우 베트남과의 개별 FTA에서 TRQ를 추가로 배정하였다. EU는 기타넙치에 TRQ를 배정하고, 민어, 명태, 오징어 등에 대해 양허 제외로 설정하였다. 미국은 명태, 민어, 기타넙치에 대한 TRQ 배정과 함께 8~12년 뒤에 관세 철폐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였다. 최대 수입상대국인 중국은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낙지, 아귀, 미꾸라지, 바지락, 조미오징어 등에 대해 TRQ를 배정하였고, 꽃게, 미역, 김, 복어 등에 대해 부분감축을 적용하고, 갈치, 고등어, 오징어 등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밖에 뉴질랜드는 홍합, 오징어, 명태 등에 대해 TRQ를 배정하거나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2-3〉 FTA 체결국별 주요 수산물 양허 내용(자유화되지 않은 품목)

| 구분 | 저울관세할당 (TRQ) | 부분 감축 /향후 재검토 | 양허 제외 |
|-------|---|--|--|
| 칠레 | - | - | - |
| 싱가포르 | - | - | 송어(산것), 열대어(관상용), 넙치(신선·냉장), 다랑어(신선·냉장), 갈치(신선·냉장), 홍합(조제) 등 |
| EFTA | 고등어(냉동) | 열대어(관상용), 실뱀장어, 오징어(냉동) 등 | 자라 등 |
| ASEAN | 새우살, 새우와 보리새우(냉장·냉동), 새우와 보리새우(기타) 등 | 새우와 보리새우(염장·염수장), 가오리(냉동), 피조개(냉동), 눈다랑어(냉동), 정어리(냉동) 등 | 전갱이(냉동), 가다랑어(밀폐용기), 황새치(냉동), 갈치(냉동), 민어(냉동) 등 |
| 인도 | - | 주꾸미(냉동), 생선묵(게맛), 오징어(건조), 골뱅이(조제) 등 |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새우살(냉동), 갈치(냉동), 복어(냉동), 낙지(냉동) 등 |
| EU | 기타넙치(냉동) | - | 민어(냉동), 명태(냉동), 오징어(냉동) |
| 페루 | - | - | 명태(냉동), 민어(냉동) |
| 미국 | 명태(냉동), 민어(냉동), 기타넙치(냉동) | - | - |
| 터키 | - | 송어(염장·염수장), 홍어(냉동), 아귀(냉동), 갈치(신선·냉장) 등 | 돔(신선·냉장), 꽃게(냉동), 기타넙치(냉동), 봉장어(신선·냉장), 조기(냉동), 볼락(냉동) 등 |
| 호주 | - | - | 전복(산것/신선·냉장), 굴(냉동), 뱀장어기타(산것), 명태(냉동) |
| 중국 | 낙지(산것/신선·냉장/냉동), 아귀(신선·냉장/냉동), 미꾸라지(산것), 바지락(산것/신선·냉장), 조미오징어 등 | 꽃게(냉동), 복어(냉동), 김(건조), 미역(건조), 대구(신선냉장), 기타굴(냉동, 염장), 다시마 등 | 갈치(냉동/신선·냉장), 게(산것/신선·냉장), 고등어(염장·염수장/조제), 오징어(산 것/냉동/염장·염수장/건조) 등 |
| 베트남 | 새우, 새우살(냉동), 기타새우류(냉동) 등 | - | 참다랑어(산것), 이빨고기(신선냉장), 꽁치(냉동), 틸라피아(산것), 멸치(신선냉장), 가다랑어(냉동), 눈다랑어(신선냉장), 고등어(냉동) 등 |
| 뉴질랜드 | 홍합(자숙) | - | 오징어(냉동), 명태(냉동), 전복(산것/신선·냉장) |
| 콜롬비아 | - | - | 명태(냉동), 민어(냉동) |

자료 : FTA 강국 KOREA(www.fta.go.kr, 검색일: 2017.10.30.)

2. 수산물 수입 동향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은 2000년 이후 연평균 7.8%씩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46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6년 수산물 생산액인 7.5조 원(62억 달러)의 약 75%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비율 역시 지금까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산물 생산은 정체된 반면 수입은 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요 증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¹⁶⁾

수산물 수급 추이를 보면, 2000~2016년 동안 생산량은 연평균 1.7% 증가에 그쳤으나 수입량은 두 배 이상인 3.8% 증가하였고, 이는 연평균 3.1%에 달하는 수산물 소비 확대를 이끌었다. 그 사이 국내 생산만으로 소비를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인 자급률은 2000년 92.5%에 달했으나 2016년에는 74.4%까지 떨어졌다. 반대로 수입수산물이 소비를 충당할 수 있는 비율(수입/소비)은 2008년 42.8%까지 하락했다가 2016년 58.5%로 높아졌다. 수출수산물의 대부분이 국내 생산물이므로 국내 소비에서 수입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었다.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FTA 체결국의 비중은 비슷하다. 2016년 현재 144만 톤의 수입수산물 중 FTA 체결국산은 97만 톤으로 67%를 차지하였다. 다만 국가별로는 수입수산물의 종류가 달라 금액 비중에 대비하여 물량 비중에서 차이를 보인다. 저가 수산물 수입이 많은 중국이 32.7%를 점유하여 거의 3분의 1을 차지한 반면, ASEAN은 14.0%, EFTA는 4.5%, EU는 2.1%로 금액 비중 대비 물량 비중이 낮아졌는데, 이들 국가로부터 새우, 주꾸미, 연어, 골뱅이, 참다랑어 등 단가가 높은 수산물을 주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⁷⁾

16)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원자료(2017.9.7.)와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의 원자료(2017.9.7.)를 저자가 가공하였다.

17) 제2장 2절 참조.

〈표 2-4〉 수산물 수급 현황 추이

단위: 천 톤, %

| 구분 | | 2000년 | 2004년 | 2008년 | 2012년 | 2016년 | 연평균 증가율 |
|---------------|-------|-------|-------|-------|-------|-------|------------|
| 공급 | 생산(A) | 2,503 | 2,519 | 3,361 | 3,173 | 3,257 | 1.7 |
| | 수입(B) | 1,419 | 2,061 | 1,784 | 2,065 | 2,558 | 3.8 |
| | 이입 | 586 | 743 | 395 | 384 | 324 | -3.6 |
| 총 공급 = 총 수요 | | 4,508 | 5,323 | 5,540 | 5,623 | 6,139 | 1.9 |
| 수요 | 소비(C) | 2,705 | 3,941 | 4,166 | 4,147 | 4,375 | 3.1 |
| | 수출 | 1,292 | 850 | 1,019 | 1,086 | 1,405 | 0.5 |
| | 이월 | 510 | 531 | 355 | 390 | 359 | -2.2 |
| 자급률(A/C) | | 92.5 | 63.9 | 80.7 | 76.5 | 74.4 | |
| 수입/소비 비율(B/C) | | 52.5 | 52.3 | 42.8 | 49.8 | 58.5 | |

주: 원물 환산 기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15, 20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해양수산부, 201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수산물 중에서 가장 수입이 많은 품목은 새우로 2016년에 5.2억 달러가 수입되었다. 그 다음이 명태로 4.2억 달러, 낙지 2.4억 달러, 연어 2.1억 달러, 갈치 1.4억 달러, 오징어 1.3억 달러 등의 순이다. FTA 이행과 연관하면 새우, 연어, 오징어, 주꾸미, 참다랑어, 고등어 등의 수입이 발효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명태는 FTA와 무관한 러시아산 원양 합작 반입 물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미국과의 FTA 발효 이후 미국산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수입 증가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이와 달리 낙지, 갈치, 조기, 민어, 대게 등은 최근에 FTA가 발효한 중국산이 많거나 세네갈, 기니, 러시아 등 비 체결국산 수입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FTA의 영향이 미미한 품목이다. 그런데 본 연구는 FTA와 관련된 수입수산물에 초점이 있으므로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이 많고 국내 시장에서 많이 유통되는 수산물로 새우, 명태, 연어, 오징어, 고등어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¹⁸⁾

¹⁸⁾ 제2장 3절, 제3장~제5장 참조.

〈표 2-5〉 FTA 체결국별 수산물 수입 동향(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

| 구분 | 2000년 | 2004년 | 2008년 | 2012년 | 2016년 | 연평균 증가율(%) | FTA 발효일 |
|-----------------|---------------|---------------|-----------------|-----------------|-----------------|---------------|------------|
| 전체 | 1,403 | 2,264 | 2,958 | 3,782 | 4,649 | 7.8 | - |
| FTA 체결국 (비중) | 0 (0.0) | 44 (1.9) | 685 (23.1) | 1,412 (37.3) | 3,186 (68.5) | - | - |
| 칠레 | 24 (1.7) | 44 (1.9) | 72 (2.4) | 111 (2.9) | 136 (2.9) | 11.5 | '04.4.1. |
| EFTA | 22 (1.5) | 40 (1.8) | 40 (1.3) | 127 (3.3) | 314 (6.8) | 18.2 | '06.9.1. |
| ASEAN | 200 (14.3) | 329 (14.5) | 573 (19.4) | 790 (20.9) | 897 (19.3) | 9.8 | '07.6.1. |
| 인도 | 11 (0.8) | 24 (1.1) | 19 (0.6) | 26 (0.7) | 25 (0.5) | 5.2 | '10.1.1. |
| EU | 55 (3.9) | 76 (3.4) | 82 (2.8) | 104 (2.7) | 158 (3.4) | 6.8 | '11.7.1. |
| 페루 | 11 (0.8) | 24 (1.1) | 41 (1.4) | 78 (2.1) | 95 (2.0) | 14.7 | '11.8.1. |
| 미국 | 145 (10.3) | 137 (6.0) | 136 (4.6) | 177 (4.7) | 242 (5.2) | 3.3 | '12.3.15. |
| 터키 | 0 (0.0) | 8 (0.4) | 7 (0.2) | 14 (0.4) | 12 (0.3) | 24.6 | '13.5.1. |
| 호주 | 2 (0.2) | 1 (0.0) | 1 (0.0) | 3 (0.1) | 3 (0.1) | 1.8 | '14.12.12. |
| 캐나다 | 18 (1.3) | 47 (2.1) | 30 (1.0) | 63 (1.7) | 82 (1.8) | 9.7 | '15.1.1. |
| 중국 | 486 (34.7) | 911 (40.2) | 1,007 (34.0) | 1,050 (27.7) | 1,205 (25.9) | 5.8 | '15.12.20. |
| 뉴질랜드 | 16 (1.1) | 12 (0.5) | 16 (0.5) | 23 (0.6) | 15 (0.3) | -0.4 | '15.12.20. |
| 콜롬비아 | 0.0 (0.0) | 0.0 (0.0) | 0.3 (0.0) | 0.1 (0.0) | 0.1 (0.0) | 16.4 | '16.7.15. |

주 1) 싱가포르, 베트남은 ASEAN에 포함

2) 소금 제외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원자료(2017.9.15.) 저자 가공

〈표 2-6〉 FTA 체결국별 수산물 수입 동향(수입량)

단위: 천 톤, %

| 구분 | 2000년 | 2004년 | 2008년 | 2012년 | 2016년 | 연평균 증가율(%) | FTA 발효일 |
|-----------------|---------------|---------------|---------------|---------------|---------------|---------------|------------|
| 전체 | 756 | 1,290 | 1,152 | 1,296 | 1,444 | 4.1 | - |
| FTA 체결국 (비중) | 0 (0.0) | 42 (3.3) | 213 (18.5) | 409 (31.6) | 965 (66.8) | - | - |
| 칠레 | 26 (3.5) | 42 (3.3) | 36 (3.1) | 55 (4.3) | 64 (4.5) | 5.8 | '04.4.1. |
| EFTA | 8 (1.1) | 17 (1.3) | 7 (0.6) | 34 (2.6) | 65 (4.5) | 13.8 | '06.9.1. |
| ASEAN | 80 (10.5) | 143 (11.1) | 169 (14.7) | 205 (15.8) | 202 (14.0) | 6.0 | '07.6.1. |
| 인도 | 6 (0.7) | 17 (1.3) | 9 (0.7) | 13 (1.0) | 9 (0.6) | 2.7 | '10.1.1. |
| EU | 27 (3.5) | 39 (3.1) | 22 (1.9) | 17 (1.3) | 30 (2.1) | 0.8 | '11.7.1. |
| 페루 | 19 (2.5) | 26 (2.0) | 27 (2.4) | 31 (2.4) | 30 (2.1) | 2.9 | '11.8.1. |
| 미국 | 75 (10.0) | 79 (6.2) | 41 (3.6) | 55 (4.2) | 81 (5.6) | 0.5 | '12.3.15. |
| 터키 | 0 (0.0) | 2 (0.1) | 1 (0.1) | 1 (0.1) | 2 (0.1) | 22.0 | '13.5.1. |
| 호주 | 1 (0.1) | 0 (0.0) | 0 (0.0) | 0 (0.0) | 1 (0.0) | -2.7 | '14.12.12. |
| 캐나다 | 6 (0.8) | 16 (1.2) | 5 (0.4) | 9 (0.7) | 6 (0.4) | 0.3 | '15.1.1. |
| 중국 | 285 (37.8) | 498 (38.6) | 426 (36.9) | 391 (30.1) | 472 (32.7) | 3.2 | '15.12.20. |
| 뉴질랜드 | 6 (0.8) | 4 (0.3) | 3 (0.3) | 5 (0.4) | 4 (0.3) | -3.0 | '15.12.20. |
| 콜롬비아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11.7 | '16.7.15. |

주 1) 싱가포르, 베트남은 ASEAN에 포함

2) 소금 제외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원자료(2017.9.15.) 저자 가공

〈표 2-7〉 주요 수산물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 구분 | 2000년 | 2004년 | 2008년 | 2012년 | 2016년 | 연평균 증가율 | 비고 ('16년 기준 상위수입국) |
|------|-------|-------|-------|-------|-------|------------|--|
| 전체 | 1,403 | 2,264 | 2,958 | 3,782 | 4,649 | 7.8 | - |
| 새우 | 89 | 188 | 287 | 422 | 516 | 11.6 | 베트남(54.3), 태국(12.2), 중국(10.6) |
| 명태 | 107 | 274 | 326 | 368 | 419 | 8.9 | 러시아(77.4)*, 미국(17.6) |
| 낙지 | 31 | 63 | 129 | 175 | 238 | 13.6 | 중국(86.6) |
| 연어 | 23 | 27 | 64 | 87 | 207 | 14.6 | 노르웨이(72.3), 칠레(18.1), 태국(5.6) |
| 갈치 | 71 | 102 | 90 | 107 | 142 | 4.4 | 중국(36.8), 세네갈(34.3)* |
| 오징어 | 40 | 49 | 76 | 115 | 127 | 7.4 | 베트남(26.4), 칠레(23.0), 중국(22.2) |
| 주꾸미 | 10 | 24 | 56 | 95 | 127 | 17.6 | 베트남(68.4), 태국(20.9) |
| 조기 | 141 | 130 | 144 | 127 | 118 | -1.1 | 중국(100.0) |
| 민어 | 5 | 18 | 21 | 23 | 92 | 20.1 | 기니(40.0)*, 중국(24.9) |
| 대게 | 4 | 37 | 41 | 77 | 89 | 20.9 | 러시아(98.8)* |
| 참다랑어 | 15 | 24 | 57 | 55 | 76 | 10.5 | 이탈리아(25.4), 프랑스(17.9), 스페인(15.0) |
| 고등어 | 20 | 48 | 35 | 63 | 74 | 8.4 | 노르웨이(89.6), 중국(6.3), 영국(1.4) |

주 1) 싱가포르, 베트남은 개별 FTA체결국인 동시에 ASEAN 회원국이므로, 1개 실적만 포함됨

2) 소금 제외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원자료(2017.9.15.) 저자 가공

제2절 FTA 국가별 수산물 수입 현황

1. 아시아 지역

1) 중국

중국산 수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인 2014~2015년에 11억 달러 수준이 었다가 발효 직후인 2016년 12억 1천만 달러로 발효 전 3년 평균 대비 10.8% 증가하였다.¹⁹⁾ 중국산 주요 수입 품목은 낙지, 조기, 기타어류(냉동연육), 기타 연체동물(조제품), 아귀, 꽃게, 새우, 갈치 등이다.

최대 수입 품목인 낙지는 2016년에 활·신선·냉장품을 중심으로 2억 1천만 달러가 수입되어 발효 전 대비 증가하였으나 가장 수입이 많았던 2014년 수준 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수입이 많이 늘어난 품목은 기타연체동물(조제품), 꽃게, 까나리 등이며, 특히 까나리는 2016년 사료용 품종의 국내 생산 감소로 수입이 급증하였다. 반면 새우 수입은 베트남, 에콰도르 등 경쟁국산의 수입 증가에 밀 려 발효 전 대비 24.6% 감소하였다.

한-중 FTA에서 낙지는 기존 수입량의 70%에 해당하는 물량을 TRQ로 배정 받았으나 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아귀 역시 TRQ를 배정 받았으나 기존 수입량의 9% 수준이어서 수입 영향은 미미하였다. 꽃게는 기존 관세의 1%를 낮추는 부분감축이어서(14→13.86%) 사실상 양허 제외와 다를 바 없으며 갈치, 조기 등도 양허 제외되어 FTA 영향이 없는 품목이다. 따라서 중국산 수산물 수 입에서 한-중 FTA 영향은 아직 뚜렷하지 않으며 국내 생산 감소 등 수급 요인 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¹⁹⁾ 한-중 FTA는 2015년 12월 20일에 발효하여 2016년과 발효 이전을 비교하였다.

〈표 2-8〉 對중국 주요 수산물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 품목 | 발효 전 3년 평균 (‘13~’15) | 발효 전 | | | 발효 후 | 증가율 (발효 후 /발효 전) | 주요 양허유형 |
|-----------------|----------------------------|-------|-------|-------|-------|------------------------|------------------|
| |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 전체 | 1,088 | 986 | 1,144 | 1,134 | 1,205 | 10.8 | |
| 낙지 | 188 | 154 | 222 | 189 | 206 | 9.3 | TRQ (19,000톤) |
| 조기 | 114 | 105 | 117 | 119 | 118 | 4.0 | 양허 제외 |
| 기타어류 (냉동연육) | 84 | 81 | 87 | 84 | 94 | 11.4 | 20년 철폐 |
| 기타연체동물 (조제품) | 56 | 45 | 59 | 63 | 78 | 41.4 | 20년 철폐 |
| 아귀 | 54 | 45 | 50 | 65 | 59 | 9.3 | TRQ (1,900톤) |
| 꽃게 | 41 | 31 | 34 | 57 | 55 | 36.6 | 부분감축 |
| 새우 | 73 | 92 | 66 | 61 | 55 | -24.6 | 20년 철폐 |
| 갈치 | 50 | 46 | 58 | 47 | 52 | 4.0 | 양허 제외 |

주 1) 한-중 FTA 발효일은 2015년 12월 20일임

2) 소금 제외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원자료(2017.9.15.) 저자 가공

2)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EAN으로부터의 최근 3년 평균 수산물 수입액은 TRQ 및 관세 철폐, 국내 수요 증가 등으로 새우, 주꾸미, 낙지, 쥐치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발효 전 3년 평균 대비 142.7% 증가한 9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수입상대국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로 이들 국가가 전체 ASEAN 수입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전체 ASEAN산 수입 중 41.2%를 차지하는 새우의 수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타어류(연육) 17.2%, 주꾸미 13.1%, 오징어·쥐치가 각각 4.4%를 차지한다. 한-ASEAN FTA는 발효 이후 10년이 지났고 주요 수입 품목에 대해 TRQ 배정, 4년 철폐 등을 적용하여 FTA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9〉 對ASEAN 주요 수산물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 품목 | 발효 전 3년 평균 (‘04~’06) | 발효 후 | | | 발효 후 최근 3년 평균 (‘14~’16) | 증가율 (발효 후 /발효 전) | 주요 양허유형 |
|-----------------|----------------------------|-------|-------|-------|-------------------------------|------------------------|-----------------|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
| 전체 | 379 | 958 | 900 | 897 | 918 | 142.7 | |
| 새우 | 132 | 403 | 340 | 370 | 371 | 181.7 | TRQ (5,000톤) |
| 기타어류(연육) | 63 | 149 | 153 | 154 | 152 | 141.4 | 4년 철폐 |
| 주꾸미 | 26 | 133 | 139 | 117 | 130 | 402.4 | 4년 철폐 |
| 오징어 | 28 | 39 | 38 | 39 | 39 | 35.9 | 부분감축 |
| 쥐치 | 29 | 41 | 36 | 39 | 39 | 32.6 | 4년 철폐 |
| 낙지 | 11 | 38 | 32 | 32 | 34 | 208.1 | 4년 철폐 |
| 기타패류(냉동) | 1 | 19 | 18 | 28 | 22 | 2,074.9 | 부분감축 |
| 기타 (캐비아 대용물) | 9 | 25 | 33 | 24 | 27 | 202.3 | 4년 철폐 |

주 1) 한-ASEAN FTA 발효일은 2007년 6월 1일임

2) 소금 제외

3) 오징어의 주 수입품목인 건조품은 초민감품목(HSL B)으로 분류되어 2016년부터 관세 20% 감축

4) 기타패류는 일반민감품목(SL)으로 분류되어 2016년부터 0~5%로 관세 인하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원자료(2017.9.15.) 저자 가공

3) 베트남

2015년 12월 발효한 한-베트남 FTA는 한-ASEAN FTA에서 자유화되지 않은 추가 협상 대상 품목 190개 중에서 84개 품목을 자유화하였다. 발효 직후인 2016년 베트남산 수산물 수입액은 주꾸미의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TRQ 물량이 확대된 새우와 관세가 20% 감축된 오징어 등이 늘어나면서 발효 전 3년 평균 대비 9.6% 증가한 6억 2천만 달러였다. 특히 한-베트남 FTA에서 새우의 TRQ가 베트남에 대해 별도로 배정되고 물량이 크게 확대되면서 새우의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 두드러졌다.

〈표 2-10〉 베트남 주요 수산물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 품목 | 발효 전 3년 평균 (13~15) | 발효 전 | | | 발효 후 | 증가율 (발효 후 /발효 전) | 주요 양허유형 |
|----------|--------------------------|-------|-------|-------|-------|------------------------|------------------|
| |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 전체 | 566 | 484 | 633 | 583 | 621 | 9.6 | |
| 새우 | 240 | 182 | 290 | 247 | 280 | 16.8 | TRQ (11,000톤) |
| 기타어류(연육) | 111 | 107 | 111 | 114 | 112 | 1.4 | 무관세 |
| 주꾸미 | 86 | 66 | 96 | 95 | 87 | 1.8 | 무관세 |
| 취치 | 38 | 38 | 41 | 36 | 39 | 2.9 | 무관세 |
| 오징어 | 33 | 36 | 33 | 31 | 34 | 0.2 | 부분감축 |
| 기타패류(냉동) | 14 | 15 | 14 | 14 | 22 | 50.4 | 10년 철폐 |
| 낙지 | 19 | 14 | 24 | 19 | 20 | 7.6 | 무관세 |
| 기타(어분) | 8 | 7 | 7 | 9 | 7 | -3.7 | 무관세 |

주 1) 한-베트남 FTA 발효일은 2015년 12월 20일임

2) 소금 제외

3) 무관세 품목과 부분감축 품목은 한-ASEAN FTA 양허 내용을 따름

4) 새우 TRQ는 발효 6년차에 1만 5천 톤까지 매년 증량됨(11,000톤은 2016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원자료(2017.9.15.) 저자 가공

4) 인도

인도산 수산물의 최근 3년 평균 수입액은 FTA 발효 전 3년 평균 대비 63.7% 증가한 3.4천만 달러였다. 주요 수입 품목인 기타어류(냉동연육)와 새우의 수입이 증가하였는데, 기타어류(냉동연육)는 10%의 관세가 5%까지 단계적으로 감축되어 FTA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만,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새우는 양허 제외 품목으로 현지 생산 호조 및 국내 수요 증가에 따라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기타(어분) 등은 발효 전 대비 증가하였으나 기타갑각류(기타게) 등은 감소하였다.

〈표 2-11〉 對인도 주요 수산물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 품목 | 발효 전 3년 평균 (‘07~’09) | 발효 후 | | | 발효 후 최근 3년 평균 (‘14~’16) | 증가율 (발효 후 /발효 전) | 주요 양허유형 |
|------------------|----------------------------|-------|-------|-------|----------------------------------|------------------------|------------|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
| 전체 | 21 | 39 | 39 | 25 | 34 | 63.7 | |
| 기타어류 (냉동연육 등) | 8 | 10 | 15 | 13 | 13 | 55.0 | 부분감축 |
| 새우 | 1 | 22 | 16 | 9 | 16 | 2,388.5 | 양허 제외 |
| 기타갑각류 (기타게 등) | 2 | 1 | 1 | 1 | 1 | -45.7 | 양허 제외 |
| 기타(어분 등) | 1 | 5 | 4 | 1 | 3 | 166.4 | 즉시 철폐 |

주 1) 한-인도 FTA 발효일은 2010년 1월 1일임

2) 소금 제외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원자료(2017.9.15.) 저자 가공

〈표 2-12〉 對터키 주요 수산물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 품목 | 발효 전 3년 평균 (‘10~’12) | 발효 후 | | | 발효 후 최근 3년 평균 (‘14~’16) | 증가율 (발효 후 /발효 전) | 주요 양허유형 |
|-----------------|----------------------------|-------|-------|-------|----------------------------------|------------------------|------------|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
| 전체 | 14 | 20 | 14 | 12 | 15 | 12.0 | |
| 기타연체동물 (조제품) | 7 | 7 | 6 | 6 | 6 | -7.5 | 5년 철폐 |
| 참다랑어 | 6 | 11 | 7 | 5 | 8 | 26.7 | 5년 철폐 |
| 기타다랑어 | 0.2 | 1 | 1 | 1 | 1 | 200.5 | 10년 철폐 |
| 기타(패각 등) | 0.4 | 1 | 0.4 | 1 | 1 | 25.2 | 즉시 철폐 |

주 1) 한-터키 FTA 발효일은 2013년 5월 1일임

2) 소금 제외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원자료(2017.9.15.) 저자 가공

5) 터키

터키산 수산물의 최근 3년 평균 수입액은 발효 전 3년 대비 12.0% 증가한 1.5천만 달러였다. 주요 수입 품목은 기타연체동물(밀폐용기), 참다랑어이며, 기타연체동물은 발효 전 3년 대비 7.5% 감소한 반면 참다랑어는 26.7% 증가하여 FTA 영향이 나타났다. 이밖에 기타다랑어, 패각 등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2. 유럽 지역

1)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FTA로부터의 최근 3년 평균 수산물 수입액은 TRQ 및 관세철폐, 국내 수요 증가 등으로 연어, 고등어 등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발효 전 3년 평균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2억 5천만 달러였다.

〈표 2-13〉 對EFTA 주요 수산물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 품목 | 발효 전 3년 평균 (‘03~‘05) | 발효 후 | | | 발효 후 최근 3년 평균 (‘14~‘16) | 증가율 (발효 후 /발효 전) | 주요 양허유형 |
|--------------------|----------------------------|-------|-------|-------|----------------------------------|------------------------|---------------|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
| 전체 | 35 | 193 | 231 | 314 | 246 | 606.2 | |
| 연어 | 18 | 76 | 89 | 150 | 105 | 489.8 | 즉시철폐 |
| 고등어 | 10 | 59 | 66 | 66 | 64 | 527.2 | TRQ (500톤) |
| 기타어류 (신선·냉장피레트) | 1 | 21 | 39 | 47 | 36 | 5,523.5 | 즉시철폐 |
| 기타갑각류 (기타게) | 0 | 23 | 18 | 29 | 23 | 359,284.0 | 즉시철폐 |
| 기타 (캐비아대용물) | 4 | 6 | 9 | 12 | 9 | 135.3 | 즉시철폐 |
| 볼락 | 1 | 4 | 6 | 7 | 6 | 390.8 | 6년 철폐 |
| 송어 | 0 | 3 | 2 | 2 | 2 | 1,099.3 | 즉시철폐 |
| 가자미 | 0 | 1 | 1 | 1 | 1 | 154.2 | 11년 철폐 |

주 1) 한-EFTA FTA 발효일은 2006년 9월 1일임

2) 소금 제외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원자료(2017.9.15.) 저자 가공

주요 수입상대국은 노르웨이로 전체 EFTA 수입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전체 EFTA산 수입 중 연어의 비중이 47.7%로 가장 높았고 고등어 21.1%, 기타어류(신선·냉장피레트) 15.0%, 기타갑각류(활·신선·냉장 기타게) 9.2% 등이었다. 연어 등은 관세가 대부분 철폐되어 FTA 영향이 뚜렷하였지만, 고등어는 TRQ 물량이 수입량의 2%에도 미치지 못하여 FTA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국산 공급 부족과 FTA를 계기로 한국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수출 노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 유럽연합(EU)

EU산 수산물의 최근 3년 평균 수입액은 발효 전 3년 평균 대비 78.4% 증가한 1억 5천만 달러였다. 주요 수입상대국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등이며 특히 영국이 전체 수입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등 상위 5개국이 4분의 3을 점하고 있다.

주요 수입 품목은 골뱅이, 참다랑어 등이며 FTA 발효 이후 이들 품목이 전체 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최근 3년 평균 기준으로 골뱅이 수입액은 관세 철폐 및 통조림 수요 증가로 인해 발효 전 대비 약 1.3배 증가한 6천 1백만 달러였고, 참다랑어 수입액은 관세 철폐, 현지 생산 호조 등의 영향으로 발효 전 대비 92.0% 증가한 4천 1백만 달러였다. 한편 가자미는 TRQ 물량이 배정되었으나 발효 전 대비 수입이 감소하여 FTA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4〉 對EU 주요 수산물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 품목 | 발효 전 3년 평균 (‘09~’11) | 발효 후 | | | 발효 후 최근 3년 평균 (‘14~’16) | 증가율 (발효 후 /발효 전) | 주요 양허유형 |
|--------------------|----------------------------|-------|-------|-------|----------------------------------|------------------------|-----------------|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
| 전체 | 83 | 128 | 158 | 158 | 148 | 78.4 | |
| 골뱅이 | 27 | 58 | 66 | 58 | 61 | 128.2 | 5년 철폐 |
| 참다랑어 | 22 | 33 | 44 | 48 | 41 | 92.0 | 3년 철폐 |
| 기타연체동물 (조제가공품) | 4 | 5 | 4 | 10 | 7 | 75.0 | 5년 철폐 |
| 볼락 | 3 | 5 | 7 | 9 | 7 | 141.4 | 10년 철폐 |
| 아류의분및팔무트 | 8 | 6 | 14 | 7 | 9 | 11.4 | 5년 철폐 |
| 기타어류 (냉동어류, 패류) | 2 | 5 | 5 | 6 | 5 | 183.9 | 5년 철폐 10년 철폐 |
| 이빨고기 | 1 | 2 | 3 | 4 | 3 | 96.9 | 3년 철폐 |
| 가자미 | 3 | 1 | 1 | 2 | 1 | -54.5 | TRQ (1,088톤) |

주 1) 한-EU FTA 발효일은 2011년 7월 1일임

2) 소금 제외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원자료(2017.9.15.) 저자 가공

3. 미주·대양주 지역

1) 미국

미국산 수산물의 최근 3년 평균 수입액은 FTA 발효 전 3년 대비 79.4% 증가한 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품목들의 수입이 발효 전 대비 증가하였는데, 특히 명태와 가자미는 관세 철폐 및 TRQ 확대로, 바닷가재는 관세 철폐 및 국내 대형할인점, 호텔 등의 판촉 활동,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저가의 중국산이 국내 수입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귀를 비롯해 홍어, 임연수어 등은 10년 장기철폐품목으로 관세 인하 정도가 크지 않아 수입이 발효 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감소하였다.

〈표 2-15〉 對미국 주요 수산물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 품목 | 발효 전 3년 평균 (‘09~‘11) | 발효 후 | | | 발효 후 최근 3년 평균 (‘14~‘16) | 증가율 (발효 후 /발효 전) | 주요 양허유형 |
|------------------|----------------------------|-------|-------|-------|----------------------------------|------------------------|-----------------|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
| 전체 | 135 | 236 | 246 | 242 | 242 | 79.4 | |
| 명태 | 36 | 61 | 72 | 74 | 69 | 91.8 | 3년 철폐 |
| 바닷가재 | 1 | 41 | 38 | 34 | 38 | 4,240.8 | 5년 철폐 |
| 기타 (어분, 어란 등) | 25 | 30 | 27 | 27 | 28 | 13.4 | 5년 철폐 |
| 가자미 | 14 | 25 | 28 | 22 | 25 | 81.2 | TRQ (2,082톤) |
| 대구 | 9 | 8 | 11 | 21 | 13 | 53.0 | 5년 철폐 |
| 먹장어 | 11 | 17 | 18 | 16 | 17 | 51.0 | 3년 철폐 |
| 아귀 | 11 | 10 | 12 | 11 | 11 | -3.0 | 10년 철폐 |
| 기타어류 (냉동연육 등) | 3 | 9 | 6 | 7 | 8 | 155.4 | 3년 철폐 |
| 홍어 | 6 | 6 | 6 | 7 | 6 | -2.0 | 10년 철폐 |
| 임연수어 | 5 | 4 | 4 | 5 | 4 | -21.9 | 10년 철폐 |

주 1) 한-미 FTA 발효일은 2012년 3월 15일임

2) 소금 제외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원자료(2017.9.15.) 저자 가공

2) 칠레

칠레산 수산물의 최근 3년 평균 수입액은 1억 5천만 달러로 FTA 발효 전 3년 평균 대비 441.3% 증가하였다. 칠레산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에 모든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주요 수입 품목인 어류의 분 및 펠리트, 연어, 오징어 등이 FTA 발효 전 대비 2배 이상 수입이 증가하여 FTA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6〉 對칠레 주요 수산물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 품목 | 발효 전 3년 평균 (‘01~’03) | 발효 후 | | | 발효 후 최근 3년 평균 (‘14~’16) | 증가율 (발효 후 /발효 전) | 주요 양허유형 |
|-----------------|----------------------------|-------|-------|-------|----------------------------------|------------------------|------------|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
| 전체 | 27 | 156 | 146 | 136 | 146 | 441.3 | |
| 어류의분 및 펠리트 | 14 | 45 | 45 | 50 | 46 | 242.5 | 10년 철폐 |
| 연어 | 0.7 | 59 | 66 | 38 | 54 | 7,316.3 | 5년 철폐 |
| 오징어 | 0.04 | 36 | 19 | 29 | 28 | 76,231.8 | 5년 철폐 |
| 기타어류 (냉동피레트) | 0.6 | 3 | 3 | 6 | 4 | 573.4 | 10년 철폐 |
| 홍어 | 7 | 1 | 1 | 4 | 2 | -69.7 | 10년 철폐 |

주 1) 한-칠레 FTA 발효일은 2004년 4월 1일임

2) 소금 제외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원자료(2017.9.15.) 저자 가공

〈표 2-17〉 對페루 주요 수산물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 품목 | 발효 전 3년 평균 (‘09~’11) | 발효 후 | | | 발효 후 최근 3년 평균 (‘14~’16) | 증가율 (발효 후 /발효 전) | 주요 양허유형 |
|-------------------|----------------------------|-------|-------|-------|----------------------------------|------------------------|------------|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
| 전체 | 41 | 113 | 108 | 95 | 106 | 157.1 | |
| 기타연체동물 (자숙오징어) | 16 | 48 | 51 | 52 | 50 | 219.3 | 10년 철폐 |
| 오징어 | 11 | 35 | 29 | 18 | 27 | 138.3 | 10년 철폐 |
| 붕장어 | 6 | 9 | 14 | 15 | 13 | 100.5 | 7년 철폐 |
| 어류의분 및 펠리트 | 2 | 12 | 8 | 3 | 7 | 293.3 | 5년 철폐 |
| 새우 | - | 3 | 3 | 2 | 3 | - | 10년 철폐 |

주 1) 한-페루 FTA 발효일은 2011년 8월 1일임

2) 소금 제외

3) 2012년부터 자숙오징어가 HSK 코드에서 구분되며, 2012년 이전에는 기타연체동물(자숙오징어)에 포함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원자료(2017.9.15.) 저자 가공

3) 페루

페루산 수산물의 최근 3년 평균 수입액은 FTA 발효 전 3년 평균 대비 157.1% 증가한 1억 1천만 달러였다. 기타연체동물(자숙오징어), 오징어(냉동) 등 오징어가 수입의 70% 이상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붕장어가 12% 정도의 비중이다. 이들 품목은 모두 FTA 이행으로 계속 관세가 인하되고 있어 FTA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캐나다

FTA 발효 이후 캐나다산 수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대비 10.4% 증가한 7.1천만 달러였다. 주요 수입 품목 중 바닷가재, 새우, 연어 등의 수입이 증가하였지만 먹장어, 기타패류(냉동클램)는 감소하였다. 바닷가재는 FTA 이후 관세 인하, 국내 수요 증가 등으로 발효 전 대비 57.6% 수입이 증가하였고 캐나다산 수입액의 70% 이상을 점유하여 FTA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표 2-18〉 對캐나다 주요 수산물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 품목 | 발효 전 3년 평균 (‘12~’14) | 발효 전 | | 발효 후 | | 발효 후 최근 2년 평균 (‘15~’16) | 증가율 (발효 후 /발효 전) | 주요 양허유형 |
|----------------|----------------------------|-----------|-----------|-----------|-----------|----------------------------------|------------------------|------------|
| | | 2013 년 | 2014 년 | 2015 년 | 2016 년 | | | |
| 전체 | 64 | 77 | 54 | 60 | 82 | 71 | 10.4 | |
| 바닷가재 | 33 | 36 | 33 | 44 | 52 | 57.6 | 39.1 | 3년 철폐 |
| 새우* | 2 | 2 | 2 | 2 | 4 | 2 | 37.9 | 5년 철폐 |
| 먹장어 | 6 | 7 | 5 | 3 | 2 | 6 | -57.6 | 7년 철폐 |
| 기타패류 (냉동클램) | 2 | 2 | 1 | 1 | 2 | 2 | -12.2 | 10년 철폐 |
| 연어 | 0.1 | 0.1 | 0.2 | 0.4 | 2 | 1 | 609.2 | 즉시철폐 |

주 1) 한-캐나다 FTA 발효일은 2015년 1월 1일임

2) 소금 제외

3) 새우의 주요품목인 냉동 냉수성 새우의 양허유형은 북쪽분홍새우는 5년 철폐, 그 외는 10년 철폐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원자료(2017.9.15.) 저자 가공

5) 뉴질랜드

FTA 발효 2년차인 2016년 뉴질랜드산 수산물 수입은 발효 전 3년 평균 대비 10.6% 감소한 1.5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²⁰⁾ 최대 수입 품목인 홍합을 비롯해 기타(어란), 기타어류(냉동피레트) 등의 수입이 감소하였다. 특히 홍합은 TRQ 배정에도 불구하고 발효 전 대비 21.3% 감소하여 전체 수입 감소를 주도하였다.

한편 양허 제외 품목인 오징어의 경우 거의 수입이 없었다가 수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6년 5월부터 뉴질랜드 수역에서 자국어선만 입어가 가능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국적이 뉴질랜드로 변경됨에 따라 반입물량이 수입으로 집계된 영향 때문이다. 따라서 뉴질랜드산 수산물 수입은 FTA 발효의 영향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9〉 對뉴질랜드 주요 수산물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 품목 | 발효 전 3년 평균 (‘13~’15) | 발효 전 | | | 발효 후 | 증가율 (발효 후 /발효 전) | 주요 양허유형 |
|-----------------|----------------------------|-------|-------|-------|-------|------------------------|-----------------|
| |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 전체 | 17 | 16 | 18 | 15 | 15 | -10.6 | |
| 홍합 | 9 | 9 | 10 | 10 | 7 | -21.3 | TRQ (1,808톤) |
| 기타(어란) | 3 | 3 | 2 | 2 | 3 | -2.4 | 5년 철폐 |
| 오징어 | 0 | 0 | 0 | 0 | 1 | 92,973.7 | 양허 제외 |
| 기타어류 (냉동피레트) | 1 | 1 | 2 | 1 | 1 | -29.3 | 3년 철폐 |
| 돔 | 1 | 1 | 1 | 1 | 1 | 11.2 | 10년 철폐 |

주 1) 한-뉴질랜드 FTA 발효일은 2015년 12월 20일임

2) 소금 제외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원자료(2017.9.15.) 저자 가공

20) 한-뉴질랜드 FTA는 2015년 12월 20일에 발효하여 2016년과 발효 이전을 비교하였다.

6) 호주

호주산 수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이후 5.1% 증가한 38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수입 품목은 참다랑어, 기타(어류·유지 분획물) 등이 있다. 참다랑어는 발효 이후 2.1% 증가한 220만 달러가 수입되어 발효 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발효 직후인 2015년에는 수입이 크게 늘었다가 2016년에는 크게 감소하여 FTA 영향보다는 현지 생산 여건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2-20〉 對호주 주요 수산물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 품목 | 발효 전 3년 평균 (‘12~’14) | 발효 전 | | 발효 후 | | 발효 후 최근 2년 평균 (‘15~’16) | 증가율 (발효 후 /발효 전) | 주요 양허유형 |
|------------------------|----------------------------|-------|-------|-------|-------|----------------------------------|------------------------|------------|
| |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
| 전체 | 3.6 | 3.9 | 3.5 | 4.4 | 3.2 | 3.8 | 5.1 | |
| 참다랑어 | 2.2 | 2.8 | 2.4 | 3.2 | 1.2 | 2.2 | 2.1 | 3년 철폐 |
| 기타 (어류의 유지· 분획물) | 0.4 | 0.2 | 0.2 | 0.2 | 0.7 | 0.5 | 14.6 | 5년 철폐 |

주 1) 한-호주 FTA 발효일은 2014년 12월 12일임

2) 소금 제외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제3절 주요 수산물 수입 현황

1. 새우

우리나라의 새우 수입량은 2000년대 중반 5만 톤으로 증가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6년에 6만 4천 톤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ASEAN 등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늘어나고 있으나 에콰도르 등과 같은 FTA 비체결국산 수입도 증가하고 있어서 전체 수입 중 FTA 체결국산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2-21〉 새우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천 톤, %

| 구분 |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연평균 증감율 |
|------------|------|--------|--------|--------|--------|--------|---------|
| 전체 | 금액 | 419 | 433 | 563 | 494 | 516 | 5.4 |
| | 물량 | 59 | 54 | 58 | 59 | 64 | 2.3 |
| FTA 체결국 | 금액 | 382 | 390 | 496 | 423 | 440 | 3.6 |
| | 물량 | 53 | 49 | 51 | 50 | 55 | 0.5 |
| | (비중) | (91.0) | (90.1) | (87.4) | (85.2) | (84.8) | |
| 베트남* | 금액 | 164 | 182 | 290 | 247 | 280 | 14.4 |
| | 물량 | 18 | 20 | 28 | 28 | 33 | 16.3 |
| | (비중) | (30.9) | (37.3) | (47.6) | (47.2) | (51.7) | |
| 중국* | 금액 | 101 | 92 | 66 | 61 | 55 | -14.2 |
| | 물량 | 18 | 15 | 9 | 10 | 9 | -15.8 |
| | (비중) | (31.4) | (27.5) | (15.8) | (16.6) | (14.4) | |
| 에콰도르 | 금액 | 24 | 33 | 42 | 48 | 51 | 21.2 |
| | 물량 | 3 | 4 | 4 | 6 | 6 | 16.4 |
| | (비중) | (5.9) | (7.2) | (7.3) | (9.6) | (9.9) | |

주 1) * FTA 체결국임

2) 괄호 안은 전체 새우 수입량에서 전체 FTA 체결국의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임

3) FTA 교역은 2016년 현재 FTA가 체결된 국가들을 기준으로 제시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원자료(2017.9.15.) 저자 가공

또한, 국가별로는 TRQ 물량 확대, 국내 수요 증가 등으로 베트남, 에콰도르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최근 국내 수요가 늘어난 중국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새우는 한-ASEAN FTA('07.6.1.) 발효로 ASEAN산은 TRQ 적용을 받고 있는데, 냉동새우살과 냉동새우는 5,000톤, 기타새우 조제품은 2,000톤, 활·신선·냉장 새우는 300톤 이하의 물량이 무관세로 수입된다. 베트남산의 경우 한-베트남 FTA('15.12.20.)가 발효되면서 한-ASEAN FTA상의 7개 품목을 합하여 TRQ 10,000톤(발효 1년차)을 추가로 배정받았고 연차별로 확대되어 최대 15,000톤(발효 6년차)까지 늘어난다. 한편, 중국은 한-중 FTA에서 냉동새우살, 건조새우, 냉동새우가 20년에 걸쳐 관세가 인하된다.

〈표 2-22〉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수입 새우 관세율

| 구분 | 주요 수입품목 (HSK 2012) | 기준 관세 | FTA 협정세율(%) | | | | |
|-------|--------------------------|----------|-------------------|-------|-------|-----------------------|-----------------------|
| | |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ASEAN | 기타새우살 냉동 (0306171090) | 20 | 0 (TRQ 5,000톤) | | | | |
| | 기타새우류 냉동 (0306179090) | 20 | | | | | |
| | 새우류(브레드) (1605211000) | 20 | 0 | 0 | 0 | 0 | 0 |
| 베트남 | 기타새우살 냉동 (0306171090) | 20 | 0 (TRQ 5,000톤) | | | 0 (TRQ 10,000톤) | 0 (TRQ 11,000톤) |
| | 기타새우류 냉동 (0306179090) | 20 | | | | | |
| | 새우류(브레드) (1605211000) | 20 | 0 | 0 | 0 | 0 | 0 |
| 중국 | 기타새우살 냉동 (0306171090) | 20 | 20 | 20 | 20 | 19 | 18 |
| | 기타새우류 건조 (0306272000) | 20 | 20 | 20 | 20 | 19 | 18 |
| | 기타새우류 냉동 (0306179090) | 20 | 20 | 20 | 20 | 19 | 18 |

주: 베트남의 2012~2014년 TRQ 5,000톤은 한-ASEAN FTA의 TRQ임

자료: 한국무역협회(stat.kita.net, 2017.9.13.); 관세청(www.customs.go.kr, 2017.9.13.)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새우의 주요 세번인 냉동새우살과 냉동새우의 수입량은 최근 5년간 각각 2만 톤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였고 기타새우 조제품은 약 7천 톤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에 반해 새우류(브레드)는 연평균 19.0%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우리나라 전체 새우 수입 중 냉동새우살과 냉동새우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5% 내외이고, 기타새우 조제품이 약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새우류(브레드)는 2012년 6.6%에서 2016년 12.2%로 5.6%p 상승하였다.

〈표 2-23〉 새우의 주요 세번별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천 톤, %

| 구분 |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연평균 증가율 |
|--------------------------|------|--------|--------|--------|--------|--------|------------|
| 전체 | 금액 | 419 | 433 | 563 | 494 | 516 | 5.4 |
| | 물량 | 59 | 54 | 58 | 59 | 64 | 2.3 |
| 기타새우살 냉동 (0306171090) | 금액 | 151 | 156 | 223 | 179 | 192 | 6.1 |
| | 물량 | 21 | 20 | 22 | 21 | 23 | 2.3 |
| | (비중) | (35.4) | (36.0) | (37.3) | (35.0) | (35.4) | |
| 기타새우류 냉동 (0306179090) | 금액 | 141 | 150 | 190 | 164 | 165 | 4.0 |
| | 물량 | 22 | 19 | 20 | 21 | 22 | 0.3 |
| | (비중) | (36.9) | (34.7) | (34.9) | (34.7) | (34.0) | |
| 새우류(브레드) (1605211000) | 금액 | 28 | 32 | 41 | 50 | 54 | 18.3 |
| | 물량 | 4 | 4 | 5 | 7 | 8 | 19.0 |
| | (비중) | (6.6) | (8.2) | (8.8) | (11.4) | (12.2) | |
| 기타새우류 조제 (1605219000) | 금액 | 68 | 65 | 77 | 67 | 70 | 1.0 |
| | 물량 | 8 | 7 | 6 | 6 | 7 | -3.1 |
| | (비중) | (13.0) | (12.5) | (11.1) | (10.3) | (10.4) | |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전체 새우 수입량에서 세번별의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원자료(2017.9.15.) 저자 가공

국내 새우의 총 공급량은 2013년을 제외하고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6년에 8만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수입은 2012년 5만 9천 톤에서 2016년 6만 4천 톤으로 연평균 2.3% 증가하였고, 국내 생산 역시 같은 기간 1만 2천 톤에서 1만 6천 톤으로 연평균 7.4%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우리나라 전체 새우 공급에서 국내 생산 비중이 20%에 불과해 수입산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입산(냉동·조미·가공품)과 국산(활·신선·냉장품)은 유통되는 상품 형태에 차이가 있고 활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경쟁적 관계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수요는 국내 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수출은 약 1천 톤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24〉 새우 수급 동향

단위: 톤, %

| 구분 |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연평균 증가율 |
|---------|------|--------|--------|--------|--------|--------|------------|
| 공급 | 생산 | 12,215 | 13,223 | 15,211 | 15,932 | 16,222 | 7.4 |
| | 수입 | 58,792 | 54,454 | 57,871 | 59,248 | 64,394 | 2.3 |
| 총공급=총수요 | | 71,007 | 67,677 | 73,082 | 75,180 | 80,616 | 3.2 |
| 수요 | 국내소비 | 68,603 | 66,870 | 72,218 | 74,075 | 79,735 | 3.8 |
| | 수출 | 2,404 | 808 | 865 | 1,105 | 881 | -22.2 |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원자료(2017.9.15.),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원자료(2017.9.15.) 저자 가공

2. 명태

2016년 우리나라 명태 수입량은 25만 6천 톤으로 2003년 이후 25만 톤 내외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명태는 85% 이상이 러시아에서 수입되며 원양 합작 물량이 많다. 나머지는 주로 FTA 체결국인 미국에서 수입되는데, 2016년 FTA 체결국산 수입량은 3만 톤으로 전체의 13.1%로 비중이 높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미국산은 FTA로 인한 관세 인하 및 TRQ 물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표 2-25〉 명태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천 톤, %

| 구분 |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연평균 증가율 |
|------------|------|--------|--------|--------|--------|--------|------------|
| 전체 | 금액 | 368 | 359 | 381 | 405 | 419 | 3.3 |
| | 물량 | 252 | 234 | 216 | 228 | 256 | 0.4 |
| FTA 체결국 | 금액 | 47 | 58 | 67 | 76 | 83 | 15.1 |
| | 물량 | 14 | 20 | 24 | 28 | 33 | 24.9 |
| | (비중) | (5.5) | (8.8) | (11.0) | (12.1) | (13.1) | |
| 러시아 | 금액 | 299 | 290 | 307 | 319 | 324 | 2.1 |
| | 물량 | 229 | 209 | 189 | 196 | 218 | -1.2 |
| | (비중) | (90.9) | (89.3) | (87.6) | (86.2) | (85.4) | |
| 미국* | 금액 | 42 | 53 | 61 | 72 | 74 | 15.1 |
| | 물량 | 13 | 20 | 23 | 27 | 32 | 26.1 |
| | (비중) | (5.0) | (8.4) | (10.6) | (11.7) | (12.5) | |

주 1) * FTA 체결국임

2) 괄호 안은 전체 명태 수입량에서 전체 FTA 체결국의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임

3) FTA 교역은 2016년 현재 FTA가 체결된 국가들을 기준으로 제시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원자료(2017.9.15.) 저자 가공

미국으로부터는 주로 냉동연육과 냉동명태가 수입되고 있다. 냉동연육에 대해서는 발효 3년차부터 무관세가 적용되었다. 냉동명태는 발효 14년차까지 TRQ가 적용되다가 이후부터는 무관세가 부과된다. TRQ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에는 TRQ 물량이 매년 전년 대비 9%씩 늘어난다. 한편 러시아산 냉동명태는 대부분 우리나라와의 합작생산물량으로 22%의 조정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명태의 세번별 수입을 살펴보면 2016년 현재 냉동명태가 전체의 79.9%로 가장 많고 냉동연육 7.9%, 냉동피레트 7.8% 등의 비중이다. 냉동명태는 매년 20만 톤 수준의 물량이 꾸준히 수입되고 있다. 미국산의 경우 엄격한 TAC 제도 시행으로 자원이 회복되어 2012년부터 어획쿼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지 생산 호조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과 TRQ 물량 확대로 미국산의 수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2-26〉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수입 명태 관세율

| 구분 | 주요 수입품목 (HSK 2012) | 기준 관세 | FTA 협정세율(%) | | | | |
|----|-----------------------|----------|---------------|---------------|---------------|---------------|---------------|
| | |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미국 | 냉동연육 (0304941000) | 10 | 6.6 | 3.3 | 0 | 0 | 0 |
| | 냉동명태 (0303670000) | 22 | TRQ 4,000톤 | TRQ 4,360톤 | TRQ 4,752톤 | TRQ 5,180톤 | TRQ 5,646톤 |

자료: 한국무역협회(stat.kita.net, 2017.9.13.); 관세청(www.customs.go.kr, 2017.9.13.)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주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냉동연육은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의 영향으로 수입량이 연평균 18.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발효 직후인 2012년 대비 2배 가까이 높아졌다. 냉동피레트는 2012년부터 연평균 5.8% 증가하여 2016년에는 2만 톤이 수입되었다.

〈표 2-27〉 명태의 주요 세번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

| 구분 |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연평균 증가율 |
|-----------------------|------|--------|--------|--------|--------|--------|------------|
| 전체 | 금액 | 368 | 359 | 381 | 405 | 419 | 3.3 |
| | 물량 | 252 | 234 | 216 | 228 | 256 | 0.4 |
| 냉동명태 (0303670000) | 금액 | 232 | 208 | 222 | 225 | 222 | -1.0 |
| | 물량 | 214 | 189 | 173 | 181 | 204 | -1.2 |
| | (비중) | (85.0) | (80.9) | (80.2) | (79.3) | (79.9) | |
| 냉동연육 (0304941000) | 금액 | 33 | 43 | 52 | 58 | 57 | 14.5 |
| | 물량 | 10 | 17 | 19 | 20 | 20 | 18.5 |
| | (비중) | (4.1) | (7.2) | (8.7) | (8.7) | (7.9) | |
| 냉동피레트 (0304750000) | 금액 | 43 | 50 | 45 | 50 | 53 | 5.6 |
| | 물량 | 16 | 18 | 16 | 18 | 20 | 5.8 |
| | (비중) | (6.3) | (7.7) | (7.5) | (7.9) | (7.8) | |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원자료(2017.9.15.) 저자 가공

2016년 국내 시장에 총 39만 톤의 명태가 공급되었다. 국내 생산이 감소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입과 재고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명태 총 공급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늘어나고 있다. 국내 생산은 거의 원양산으로 국내 생산의 증감은 러시아 수역의 입어 쿼터와 관련되어 있다. 수입의 경우 러시아 산이 매년 20만 톤 수준으로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나, 최근 미국산이 증가하고 있다.

명태는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많은 대중어종으로 총 수요에서 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수출은 전체의 5% 미만을 차지한다. 국내 소비는 27만 4천 톤으로 매년 4.9%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수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 2-28〉 명태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

| 구분 |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연평균 증가율 |
|-----------|------|-------|-------|-------|-------|-------|------------|
| 공급 | 생산 | 39 | 24 | 32 | 20 | 19 | -16.5 |
| | 수입 | 252 | 234 | 216 | 228 | 256 | 0.4 |
| | 전년재고 | 96 | 110 | 89 | 98 | 119 | 5.5 |
| 총공급 = 총수요 | | 387 | 368 | 337 | 346 | 394 | 0.4 |
| 수요 | 국내소비 | 226 | 233 | 215 | 219 | 274 | 4.9 |
| | 수출 | 51 | 46 | 23 | 8 | 15 | -26.4 |
| | 차년이월 | 110 | 89 | 98 | 119 | 104 | -1.4 |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원자료(2017.9.15.),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원자료(2017.9.1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www.nfqs.go.kr, 2017.9.15.)의 자료 저자 가공

3. 연어

연어는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27.0% 수입액이 늘어나 2016년에 2억 6천만 달러가 수입되었다. 물량으로는 연평균 15.0% 증가한 2만 8천 톤이다. 금액 증가율이 물량 증가율보다 높은 것은 단가가 높은 신선·냉장품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별로는 FTA 체결국산 수입량이 2만 7천 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6년 현재 노르웨이산 수입량이 1만 7천 톤으로 63.2%를 점유하였고, 칠레 7천 톤으로 25.2%를 차지하였다. 이밖에 태국, 미국 등에서 각각 1천 톤 정도가 수입되었다. 2014년부터 노르웨이산의 점유율이 커지고 있는 반면, 칠레, 태국, 미국 등의 원산지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29〉 연어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천 톤, %

| 구분 |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연평균 증가율 |
|------------|------|--------|--------|--------|--------|--------|------------|
| 전체 | 금액 | 99 | 136 | 197 | 222 | 256 | 27.0 |
| | 물량 | 16 | 18 | 25 | 31 | 28 | 15.0 |
| FTA 체결국 | 금액 | 97 | 135 | 195 | 221 | 255 | 27.3 |
| | 물량 | 15 | 18 | 25 | 31 | 27 | 16.0 |
| | (비중) | (95.6) | (96.4) | (98.0) | (98.7) | (99.0) | |
| 노르웨이* | 금액 | 63 | 78 | 95 | 122 | 192 | 32.1 |
| | 물량 | 9 | 8 | 9 | 14 | 17 | 19.6 |
| | (비중) | (54.1) | (42.7) | (37.1) | (43.5) | (63.2) | |
| 칠레* | 금액 | 30 | 45 | 61 | 68 | 43 | 9.2 |
| | 물량 | 6 | 8 | 9 | 12 | 7 | 4.3 |
| | (비중) | (37.3) | (43.1) | (34.7) | (39.5) | (25.2) | |
| 태국* | 금액 | 0.0 | 9 | 25 | 20 | 12 | 928.4 |
| | 물량 | 0.0 | 1 | 3 | 2 | 1 | 857.2 |
| | (비중) | (0.0) | (5.7) | (11.2) | (7.5) | (5.3) | |
| 미국* | 금액 | 3 | 2 | 12 | 7 | 5 | 10.0 |
| | 물량 | 1 | 1 | 4 | 2 | 1 | 16.0 |
| | (비중) | (1.2) | (2.0) | (9.6) | (5.4) | (1.8) | |

주 1) * FTA 체결국임

2) 괄호 안은 전체 연어 수입량에서 전체 FTA 체결국의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임

3) FTA 교역은 2016년 현재 FTA가 체결된 국가들을 기준으로 제시함

4) 2012년 코드변경으로 연어 피레트류(030441000, 030481000)가 기타어류에서 연어로 재분류되며 이전 코드 기준 실적과 다소 차이가 발생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원자료(2017.9.15.) 저자 가공

상품별로는 신선·냉장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냉동품 및 훈제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이는 공급 측 요인이 크게 작용했는데 노르웨이산이 신선·냉장

품의 항공 운송이 가능해진 반면 칠레산은 자연 재해 등으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입시장 점유율에서도 상반되는 결과를 낳았다. 노르웨이산이나 칠레산 연어의 주요 소비 형태는 횡감, 초밥과 같은 연어회 형태이다. 이밖에 미국에서 수입되는 연어는 주로 구이용, 통조림용으로 사용되며, 태국산은 통조림 등으로 가공된 제품이 수입되고 있는데, 연어 통조림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낮아지면서 2015년 이후 수입이 감소하였다. 한편 2014년부터 주요한 연어 품목들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주요 수입상대국이 동일하게 적용 받고 있다.

〈표 2-30〉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수입 연어 관세율

| 구분 | 주요 수입품목 (HSK 2012) | 기준 관세 | FTA 협정세율(%) | | | | |
|------|-----------------------------------|----------|-------------|-------|-------|-------|-------|
| | |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노르웨이 | 신선·냉장 대서양 연어 (0302140000) | 20 | 0 | 0 | 0 | 0 | 0 |
| | 신선·냉장 연어 피레트 (0304410000) | 20 | 0 | 0 | 0 | 0 | 0 |
| 칠레 | 냉동 대서양연어 (0303130000) | 10 | 0 | 0 | 0 | 0 | 0 |
| | 냉동 태평양연어 (0303120000) | 10 | 0 | 0 | 0 | 0 | 0 |
| 태국 | 통조림 연어 (1604111000) | 20 | 0 | 0 | 0 | 0 | 0 |
| | 연어 조제품 (통조림 외) (1604119000) | 20 | 0 | 0 | 0 | 0 | 0 |
| 미국 | 냉동 태평양연어 (0303120000) | 10 | 6.6 | 3.3 | 0 | 0 | 0 |
| | 연어 냉동피레트 (0304810000) | 10 | 6.6 | 3.3 | 0 | 0 | 0 |

주 : 노르웨이는 EFTA, 태국은 ASEAN 관세율임

자료: 한국무역협회(stat.kita.net, 2017.9.13.); 관세청(www.customs.go.kr, 2017.9.13.)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연어의 세번별 수입 동향을 보면, 노르웨이의 신선·냉장 연어가 수입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2016년 전체 연어 수입량의 46.5%를 차지하는 신선·냉장 대서양 연어는 1만 3천 톤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8.3% 증가하였다. 신선·냉장 연어 피레트도 연평균 44.3% 증가하여 2016년 3만 톤이 수입되었다. 신선·냉장품 전체로 보면 시장점유율이 60%에 육박한다. 이에 반해 칠레산의 주요 품목인 냉동 대서양연어 수입량은 2016년 7천 톤으로 감소하였고, 전체 연어 수입에서 점유율이 2015년 36.8%에서 2016년 25.3%로 하락하였다.

〈표 2-31〉 연어의 주요 세번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

| 구분 |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연평균 증가율 |
|---------------------------------|------|--------|--------|--------|--------|--------|------------|
| 전체 | 금액 | 99 | 136 | 197 | 222 | 256 | 27.0 |
| | 물량 | 16 | 18 | 25 | 31 | 28 | 15.0 |
| 신선·냉장 대서양 연어 (0302140000) | 금액 | 28 | 45 | 57 | 76 | 138 | 48.6 |
| | 물량 | 3 | 4 | 6 | 9 | 13 | 38.3 |
| | (비중) | (22.2) | (23.3) | (22.6) | (29.1) | (46.5) | |
| 냉동 대서양 연어 (0303130000) | 금액 | 49 | 59 | 72 | 66 | 43 | -3.2 |
| | 물량 | 9 | 10 | 10 | 12 | 7 | -6.8 |
| | (비중) | (58.6) | (52.9) | (39.9) | (36.8) | (25.3) | |
| 신선·냉장 연어 피레트 (0304410000) | 금액 | 9 | 12 | 17 | 31 | 41 | 48.2 |
| | 물량 | 1 | 1 | 1 | 2 | 3 | 44.3 |
| | (비중) | (4.3) | (4.0) | (4.3) | (7.9) | (10.7) | |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전체 연어 수입량에서 세번별의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임

2) 2012년 코드변경으로 연어 피레트류(030441000, 030481000)가 기타어류에서 연어로 재분류되며 이전 코드 기준 실적과 다소 차이가 발생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원자료(2017.9.15.) 저자 가공

한편 국내 연어 생산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45.7%임에도 불구하고 총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의 미미한 수준이다. 국내 연어 생산량은 2012년 이후 증가하다가 2016년 356톤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일 반해면과 내수면 생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2.7%, 17.5%이지만, 2014년

이후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산 연어 양식이 성공함에 따라 2016년 천해 양식 생산량이 100톤을 기록하며 내수면 생산량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어의 국내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통조림의 인기가 식으면서 2016년 2만 7천 톤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국내 소비는 연평균 18.1%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요에서 국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이후 90%를 상회하였다.

〈표 2-32〉 연어 수급 동향

단위: 천톤, %

| 구분 |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연평균 증가율 |
|-----------|------|-------|-------|-------|-------|-------|------------|
| 공급 | 생산 | 0.08 | 0.18 | 0.44 | 0.49 | 0.36 | 45.7 |
| | 수입 | 16 | 18 | 25 | 31 | 28 | 15.0 |
| 총공급 = 총수요 | | 16 | 19 | 26 | 32 | 28 | 15.2 |
| 수요 | 국내소비 | 14 | 18 | 24 | 31 | 27 | 18.1 |
| | 수출 | 2 | 1 | 2 | 1 | 1 | -15.9 |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원자료(2017.9.15.),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원자료(2017.9.15.) 저자 가공

4. 오징어

오징어는 칠레, 페루, 중국 등 FTA 체결국산이 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 금액과 물량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주 조업어장인 포클랜드 해역의 어황이 크게 부진하면서 칠레산과 중국산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였고 전체 수입량은 7만 6천 톤을 기록하였다.²¹⁾ 2016년 수입량 기준 비중은 칠레산 37.7%, 페루산 29.3%, 중국산 23.4%이다. 품종이 대왕오징어인 칠레산과 페루산은 현지 조업 사정에 따라 수입량이 영향을 받고 있다.

국가별로 관세율을 살펴보면 칠레산은 모든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었고, 페루산은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면서 2016년에 오징어(냉동) 8.8%, 오징어(자

21) 2012년 HSK 개정으로 오징어(자숙) 품목이 포함되면서 국가별 수입 현황 수치와 차이가 있다.

숙)과 조미오징어가 8%이다. 중국산은 오징어(자숙)와 조미오징어는 TRQ를 적용받고 오징어(냉동)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어 22%의 조정관세를 적용받거나 20%의 관세가 20년 동안 철폐된다.²²⁾ 그런데 오징어는 우리나라 외에도 세계적으로 수요가 큰 품목이어서 관세보다는 현지 생산 여건에 따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표 2-33〉 오징어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천 톤, %

| 국가 |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연평균 증가율 |
|------------|------|--------|--------|--------|--------|--------|------------|
| 전체 | 금액 | 165 | 145 | 188 | 165 | 202 | 5.2 |
| | 물량 | 60 | 54 | 77 | 69 | 76 | 6.0 |
| FTA 체결국 | 금액 | 160 | 142 | 176 | 156 | 191 | 4.5 |
| | 물량 | 57 | 52 | 70 | 64 | 72 | 5.8 |
| | (비중) | (95.6) | (96.2) | (89.9) | (91.9) | (94.9) | |
| 칠레* | 금액 | 24 | 27 | 36 | 19 | 30 | 5.9 |
| | 물량 | 22 | 24 | 31 | 22 | 29 | 7.3 |
| | (비중) | (35.9) | (43.5) | (40.0) | (31.3) | (37.7) | |
| 페루* | 금액 | 59 | 51 | 78 | 75 | 70 | 4.3 |
| | 물량 | 25 | 20 | 27 | 31 | 22 | -2.5 |
| | (비중) | (40.9) | (37.2) | (35.4) | (44.4) | (29.3) | |
| 중국* | 금액 | 30 | 21 | 22 | 21 | 47 | 12.1 |
| | 물량 | 8 | 6 | 9 | 9 | 18 | 22.6 |
| | (비중) | (13.1) | (11.0) | (11.4) | (12.4) | (23.4) | |

주 1) * FTA 체결국임

2) 괄호 안은 전체 오징어 수입량에서 전체 FTA 체결국의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임

3) FTA 교역은 2016년 현재 FTA가 체결된 국가들을 기준으로 제시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원자료(2017.9.15.) 저자 가공

²²⁾ 오징어(냉동) 중 연근해산인 살오징어(일렉스 오징어)는 양허 제외이지만, 롤리고 오징어(포클랜드 오징어)는 20%의 관세가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표 2-34〉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수입 오징어 관세율

| 국가 | 주요 수입품목 (HSK 2012) | 기준 관세 | FTA 협정세율(%) | | | | |
|----|------------------------------|-------|-------------|-------|-------|-----------------|-----------------|
| | |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칠레 | 오징어(냉동) (0307491020) | 22 | 0 | 0 | 0 | 0 | 0 |
| | 오징어(자숙) (1605542099) | 20 | 3.6 | 1.8 | 0 | 0 | 0 |
| 페루 | 오징어(자숙) (1605542099) | 20 | 16 | 14 | 12 | 10 | 8 |
| | 오징어(냉동) (0307491020) | 22 | 17.6 | 15.4 | 13.2 | 11 | 8.8 |
| | 조미오징어 (1605542091) | 20 | 16 | 14 | 12 | 10 | 8 |
| 중국 | 오징어(냉동) (0307491020) | 22 | 22 | 22 | 22 | 22 | 22 |
| | 오징어(자숙) (1605542099) | 20 | 20 | 20 | 20 | 0(1,300톤 이하) | 0(1,300톤 이하) |
| | 조미오징어 (1605542091) | 20 | 20 | 20 | 20 | 0(980톤 이하) | 0(980톤 이하) |
| | 오징어(밀폐용기) (1605542010) | 20 | 20 | 20 | 20 | 20 | 20 |
| | 오징어(염장, 염수장) (0307492000) | 10 | 10 | 10 | 10 | 10 | 10 |

자료: 한국무역협회(stat.kita.net, 2017.9.13.); 관세청(www.customs.go.kr, 2017.9.13.)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오징어의 주요 세번별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오징어(냉동)이 2016년 전체 오징어 수입량의 67%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오징어(자숙) 25.8%, 조미 오징어 5.6% 순이다. 오징어(염장·염수장)을 제외하고 모든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2016년 전체 오징어 수입은 연평균 6.0% 증가한 7만 6천 톤이었다.

〈표 2-35〉 오징어의 주요 세번별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천 톤, %

| 국가 |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연평균 증가율 |
|----------------------------------|------|--------|--------|--------|--------|--------|------------|
| 전체 | 금액 | 165 | 145 | 188 | 165 | 202 | 5.2 |
| | 물량 | 60 | 54 | 77 | 69 | 76 | 6.0 |
| 오징어(냉동) (0307491020) | 금액 | 55 | 50 | 77 | 60 | 74 | 7.9 |
| | 물량 | 39 | 36 | 56 | 47 | 51 | 6.7 |
| | (비중) | (65.4) | (65.4) | (71.8) | (67.5) | (67.0) | |
| 오징어(자숙) (1605542099) | 금액 | 50 | 45 | 54 | 59 | 74 | 10.5 |
| | 물량 | 15 | 14 | 15 | 18 | 20 | 7.8 |
| | (비중) | (24.2) | (25.5) | (19.8) | (26.2) | (25.8) | |
| 조미오징어 (1605542091) | 금액 | 23 | 15 | 23 | 17 | 24 | 1.0 |
| | 물량 | 4 | 3 | 5 | 3 | 4 | 1.4 |
| | (비중) | (6.7) | (5.9) | (6.0) | (4.4) | (5.6) | |
| 오징어 (밀폐용기) (1605542010) | 금액 | 0.1 | 0.1 | 0.3 | 0.1 | 0.1 | 19.9 |
| | 물량 | 0.0 | 0.0 | 0.1 | 0.1 | 0.1 | 28.7 |
| | (비중) | (0.0) | (0.1) | (0.2) | (0.1) | (0.1) | |
| 오징어 (염장, 염수장) (0307492000) | 금액 | 0.4 | 0.2 | 0.4 | 0.2 | 0.1 | -25.7 |
| | 물량 | 0.2 | 0.1 | 0.2 | 0.1 | 0.0 | -33.2 |
| | (비중) | (0.4) | (0.2) | (0.2) | (0.1) | (0.1) | |

주 : 괄호 안은 전체 오징어 수입량에서 세번별의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원자료(2017.9.15.) 저자 가공

2016년 오징어의 국내 총 공급량은 국내 생산량 감소의 영향으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적은 36만 3천 톤을 기록하였다. 국산 오징어는 원양산이 현지 어획 부진, 운반선 침몰 등으로, 연근해산이 북한 수역 중국어선들의 썩 끝이 조업에 따른 자원 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다.²³⁾ 이에 따라 오징어 수입이 연평균 6.0% 증가한 7만 6천 톤이었고 수출은 4만 7천 톤으로 4.8% 감소하였다. 또한 재고량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6년 초에 14만 1천 톤이었으나, 이월 물량은 크게 감소한 3만 톤에 불과하였다.

²³⁾ 이정삼 외, 「중국 어선의 북한 동해수역 입어동향과 대응방향」, 『수산경영론집』, 제48권 3호, 2017, p.71.

〈표 2-36〉 오징어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

| 구분 |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연평균 증가율 |
|---------|------|-------|-------|-------|-------|-------|------------|
| 공급 | 생산 | 268 | 260 | 334 | 310 | 147 | -14.0 |
| | 수입 | 60 | 54 | 77 | 69 | 76 | 6.0 |
| | 전년재고 | 39 | 77 | 80 | 126 | 141 | 37.7 |
| 총공급=총수요 | | 367 | 392 | 491 | 506 | 363 | -0.3 |
| 수요 | 국내소비 | 233 | 239 | 293 | 292 | 286 | 5.2 |
| | 수출 | 57 | 73 | 73 | 73 | 47 | -4.8 |
| | 차년이월 | 77 | 80 | 126 | 141 | 30 | -21.0 |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원자료(2017.9.15.),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원자료(2017.9.15.),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www.nfqs.go.kr, 2017.9.15.)의 자료 저자 가공

5. 고등어

고등어 수입은 2012년 3만 2천 톤에서 연평균 8.7%씩 증가하여 2016년 4만 5천 톤을 기록하였다. 주로 노르웨이, 중국, 페루 등 FTA 체결국으로부터 냉동품 형태로 수입되는데, 노르웨이산 비중이 87%로 절대적으로 많다.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의 경우 500톤의 TRQ를 배정하였으나 TRQ 물량의 비중은 전체 수입의 1.3% 수준이어서 TRQ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최근 국산 고등어가 소형어 위주로 생산이 늘면서 상품성이 뛰어난 노르웨이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노르웨이의 전략적인 마케팅 노력이 수입 확대를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²⁴⁾ 한편 중국산과 페루산은 주로 사료용으로 수입되는데, 최근 중국산 수입이 줄고 페루산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수입상대국의 생산 여건과 함께 중국산 냉동고등어가 양허 제외된 반면 페루산은 매년 관세가 인하되고 있는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24) 김봉태, 「고등어 원산지별 소비 특성에 대한 연구」, 『해양정책연구』, 제32권 제1호, 2017, p.190.

〈표 2-37〉 고등어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천 톤, %

| 구분 |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연평균 증가율 |
|------------|------|--------|--------|--------|--------|--------|------------|
| 전체 | 금액 | 63 | 36 | 72 | 93 | 74 | 4.3 |
| | 물량 | 32 | 16 | 33 | 51 | 45 | 8.7 |
| FTA 체결국 | 금액 | 58 | 35 | 70 | 88 | 74 | 6.4 |
| | 물량 | 29 | 16 | 32 | 48 | 44 | 11.4 |
| | (비중) | (90.4) | (96.6) | (96.0) | (92.9) | (99.7) | |
| 노르웨이* | 금액 | 42 | 28 | 59 | 66 | 66 | 12.0 |
| | 물량 | 19 | 12 | 26 | 36 | 39 | 19.9 |
| | (비중) | (58.7) | (71.9) | (79.2) | (70.7) | (87.0) | |
| 중국* | 금액 | 12 | 6 | 9 | 18 | 5 | -21.8 |
| | 물량 | 9 | 3 | 5 | 9 | 3 | -25.1 |
| | (비중) | (27.7) | (20.4) | (13.8) | (18.2) | (6.3) | |
| 페루* | 금액 | - | - | - | - | 0.8 | - |
| | 물량 | - | - | - | - | 2 | - |
| | (비중) | - | - | - | - | (3.9) | |
| 영국* | 금액 | 2 | 0.7 | 1 | 3 | 1 | -8.9 |
| | 물량 | 1 | 0.4 | 0.4 | 1 | 1 | 0.7 |
| | (비중) | (2.1) | (2.3) | (1.2) | (2.9) | (1.5) | |

주 1) * FTA 체결국임

2) 괄호 안은 전체 고등어 수입량에서 전체 FTA 체결국의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임

3) FTA 교역은 2016년 현재 FTA가 체결된 국가들을 기준으로 제시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원자료(2017.9.15.) 저자 가공

주요 세번의 관세율을 살펴보면,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는 500톤 이하에는 무관세인 TRQ가, 중국과 EU산은 양허유예 품목으로 기준관세가, 페루는 10년 철폐 품목으로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고 있다. 통조림 고등어는 노르웨이, EU, 페루는 관세가 철폐되었거나 인하되고 있는 반면, 중국산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되었다. 2016년 현재 전체 고등어 수입 중에서 냉동고등어가 9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가 통조림 고등어로 수입이 미미하다.

〈표 2-38〉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수입 고등어 관세율

| 구분 | 주요 수입품목 (HSK 2012) | 기준 관세 | FTA 협정세율(%) | | | | |
|----------------|------------------------|----------|---------------|---------------|---------------|---------------|---------------|
| | |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노르웨이 (EFTA) | 냉동고등어 (0303540000) | 10 | 0(500톤 이하) | 0(500톤 이하) | 0(500톤 이하) | 0(500톤 이하) | 0(500톤 이하) |
| | 통조림고등어 (1604151000) | 20 | 7.2 | 5.4 | 3.6 | 1.8 | 0 |
| 중국 | 냉동고등어 (0303540000) | 10 | 10 | 10 | 10 | 10 | 10 |
| | 통조림고등어 (1604151000) | 20 | 20 | 20 | 20 | 20 | 20 |
| 페루 | 냉동고등어 (0303540000) | 10 | 8 | 7 | 6 | 5 | 4 |
| | 통조림고등어 (1604151000) | 20 | 12 | 8 | 4 | 0 | 0 |
| EU | 냉동고등어 (0303540000) | 10 | 10 | 10 | 10 | 10 | 10 |
| | 통조림고등어 (1604151000) | 20 | 15 | 12.5 | 10 | 7.5 | 5 |

자료: 한국무역협회(stat.kita.net, 2017.9.13.); 관세청(www.customs.go.kr, 2017.9.13.)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2-39〉 고등어의 주요 세번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

| 구분 |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연평균 증가율 |
|------------------------|------------|--------------|--------------|--------------|--------------|--------------|------------|
| 전체 | 금액 | 63 | 36 | 72 | 93 | 74 | 4.3 |
| | 물량 | 32 | 16 | 33 | 51 | 45 | 8.7 |
| 냉동고등어 (0303540000) | 금액 | 62 | 36 | 71 | 91 | 73 | 4.4 |
| | 물량 (비중) | 32 (99.4) | 16 (99.2) | 33 (99.3) | 51 (99.4) | 44 (99.3) | 8.9 |
| 통조림고등어 (1604151000) | 금액 | 0.4 | 0.3 | 1 | 1 | 1 | 28.2 |
| | 물량 (비중) | 0.2 (0.5) | 0.1 (0.7) | 0.2 (0.7) | 0.3 (0.5) | 0.3 (0.6) | 14.2 |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전체 고등어 수입량에서 세번별의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원자료(2017.9.15.) 저자 가공

고등어의 국내 수급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총 공급에서 생산이 약 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재고가 31%, 수입이 15%를 차지하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가 약 71%, 다음으로 이월이 21%, 수출이 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식용으로 소비하는 고등어의 수급 현황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데, 이는 국산 고등어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대부분 사료용으로 사용되거나 수출용이어서 국내 소비와 관련성이 낮기 때문이다. 국내 생산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소비자가 선호하는 크기의 국산 고등어 생산이 감소한 측면과 최근 노르웨이의 현지 생산 호조, 적극적인 마케팅 등의 측면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영향으로 볼 수 있다.²⁵⁾

〈표 2-40〉 고등어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

| 구분 |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연평균 증가율 |
|---------|------|-------|-------|-------|-------|-------|------------|
| 공급 | 생산 | 129 | 115 | 131 | 141 | 156 | 4.9 |
| | 수입 | 32 | 16 | 33 | 51 | 45 | 8.7 |
| | 전년재고 | 65 | 60 | 56 | 58 | 91 | 9.0 |
| 총공급=총수요 | | 226 | 192 | 221 | 250 | 292 | 6.6 |
| 수요 | 국내소비 | 102 | 96 | 140 | 134 | 208 | 19.6 |
| | 수출 | 64 | 40 | 23 | 26 | 21 | -24.1 |
| | 차년이월 | 60 | 56 | 58 | 91 | 63 | 1.0 |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원자료(2017.9.15.),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원자료(2017.9.1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www.nfqs.go.kr, 2017.9.15.)의 자료 저자 가공

²⁵⁾ 상계서, p.187.

제3장

주요 수입수산물의 유통 현황 《

제1절 수입수산물 유통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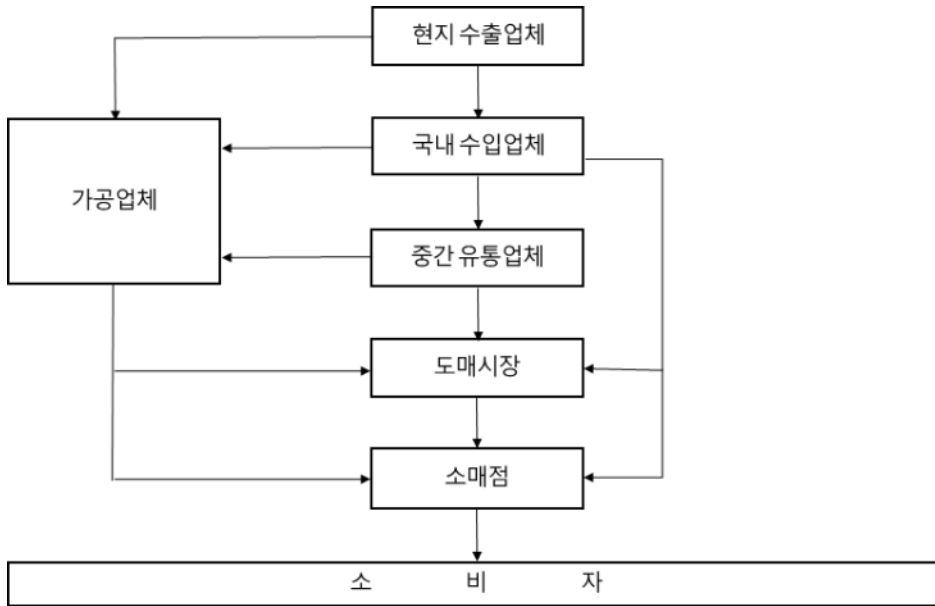
수입수산물은 연근해 수산물과 달리 산지위판장을 경유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수입수산물은 주로 냉동품이 많으며, 장기 보관이 가능하여 시장 상황에 따라 출하한다. 통관 전에는 냉동창고와 보세장치장 구역에 보관되었다가 통관 후에 수입업체, 중간유통업체, 가공업체 등을 거쳐 도매시장, 소매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도매시장은 소비지의 대형 도매시장보다는 유사 도매시장이 보편적이며 소매점도 전통시장, 대형할인점, 외식업체 등으로 다양하다.

최근에는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등 새로운 경로가 발달하고 있으며, 수입업체가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대형외식업체, 급식업체 등으로 직접 유통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²⁶⁾ 또한 운송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경로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수입하기 어려웠던 활·신선·냉장 수산물의 수입도 활발해지고 있다. 연어, 바닷가재, 왕게, 갈치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은 선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유통하기 위해 수입업체와 대형할인점 또는 외식업체로 바로 연결되어 유통 경로가 짧은 특징을 보인다. 한편 수입 건어물은 창고에 저장되었다가 재포장되어 시장으로 분산되는데, 가공, 포장 등의 비용이 추가되어 타 품목보다 유통비용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²⁷⁾

26) 한국수산물무역협회·한국수산물 수산정책연구소, 『2013 수입수산물 가격조사·분석사업 최종보고서』, 해양수산부, 2013, p.47.

27) 상계서, pp.48~49

〈그림 3-1〉 수입수산물의 일반적인 유통 경로



자료 : 저자 작성

제2절 주요 수입수산물의 유통 현황²⁸⁾

1. 새우

1) 유통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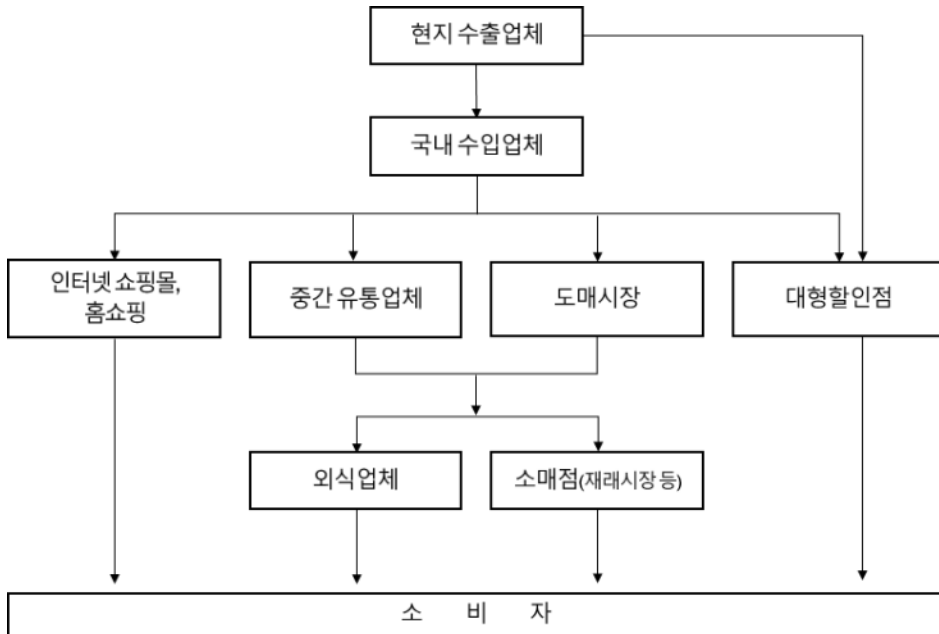
수입 새우는 대부분이 수입업체를 통해 국내 시장에 유통되고 있으며, 극히 소량을 대형할인점이 직수입하고 있다. 수입업체는 일부 업체가 자사 홈페이지, TV 홈쇼핑 등을 통해 직접 소매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은 도매시장, 중간유통업체, 대형할인점 등으로 판매하는데, 중간유통업체와 도매시장이 약 70%, 대형할인점이 30%로 분산된다. 도매시장과 중간유통업체를 거친 다음에는 소매점, 외식업체, 급식업체 등을 경유하여 소포장품, 조제품, 식자재 등의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대형할인점의 경우 직수입을 하거나 수입업체를 통해 구매한 물량을 자사의 물류센터에 입고한 다음에 전국 각 지점으로 배송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단순한 유통경로를 보이고 있다. 즉 대형할인점은 다른 유통주체에 납품하기 보다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 새우를 구매하고 있으며, 인력 추가에 따른 비용 부담, 상품의 균일성, 상품에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직수입보다는 대부분 수입업체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국내 수입업체의 수입선 확보는 현지 생산지 또는 가공공장을 방문한 후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지 브로커를 통해 수입하는 방법으로 구분되는데 수입 초기에는 직접 계약이 많고, 안정기에 접어들면 브로커를 경유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8) 본 절의 내용은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 대상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출처를 제시하였다.

〈그림 3-2〉 수입 새우의 유통경로



자료 : 저자 작성

새우는 세번별로 다양한 상품 형태가 수입되어 국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데 새우살(냉동)은 노바시새우·각테일새우·깐새우, 새우(냉동)은 원물, 새우(브레드)는 빵가루 입힌 것, 새우(조제)는 자숙품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우리나라는 ASEAN (베트남, 태국), 중국, 에콰도르 등으로부터 주로 새우를 수입하고 있는데 베트남산은 새우살(냉동)·새우(브레드), 태국산은 새우(조제)·새우(브레드), 중국산은 새우살(냉동)·새우(건조), 에콰도르산은 새우(냉동) 형태로 국가별로 특정 상품에 특화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표 3-1〉 새우의 세번별 주요 유통 상품 형태

| 구분 | | 상품 | 활용용도 |
|---------|------------|---|-------------|
| 새우살(냉동) | 노바시 새우 |  | 튀김 등 |
| | 칵테일 새우 |  | 탕, 볶음, 튀김 등 |
| | 간새우 또는 새우살 |  | 탕, 볶음, 튀김 등 |
| 새우(냉동) | 원물 새우 |  | 구이, 탕, 튀김 등 |
| 새우(브레드) | 빵가루 입힌 새우 |  | 튀김 |
| 새우(조제) | 자숙 새우 |  | 초밥 등 |

자료 : 이바다몰 www.ebadamall.com, 다음 블로그 blog.daum.net/kbs506; 롯데마트 www.lottemart.com;
 다음 블로그 blog.daum.net/horbit77; 맘쿡 www.momcook.co.kr; 지마켓 www.gmarket.co.kr,
 (검색일 : 2017.12.14.)

2) 유통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새우 수입은 국내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 세계 주요 새우생산국인 ASEAN(베트남·태국), 중국 등과의 FTA 발효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수입업체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영세업체가 대부분이어서 현지 수출업체와의 구매 교섭력이 낮고 급작스런 국내 소비 부진, 가격 하락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의 위험이 크다. 따라서 수입협의체를 구성하여 희망구입가격 설정, 공동·대량 구매 등을 통해 구매 교섭력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새우 수입상대국인 ASEAN(베트남·태국)의 경우 한·ASEAN FTA, 한·베트남 FTA로 각각 상이한 TRQ 물량이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 물량은 수입권 공매로 배정된다. 수입권 공매 입찰 시기는 1월과 6월의 연 2회이고 6개월의 수입 이행 기간 내에 낙찰 받은 물량의 수입이 완료되어야만 다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업체 간의 수입권 입찰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공매 낙찰금이 상승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바이러스 등으로 현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 경우에도 수입을 이행해야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TRQ 제도가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러한 취지를 유지하면서 양질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또한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명태

1) 유통경로

우리나라에서 주로 소비되는 명태는 러시아산과 원양산이다. 최근에는 한-미 FTA로 인한 관세 인하 등으로 미국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원양산은 우리나라가 러시아로부터 쿼터를 할당 받아 조업하는 어획물을 말하며, 러시아산의 경우 우리나라와의 합작 생산 물량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는 러시아로부터 매년 2만여 톤의 쿼터를 할당 받고 있으며, 국내 2개 원양선사가 트롤어선 3척을 서베링해로 출항시켜 5월부터 12월까지 조업을 하고 있다. 합작선사는 5개로

트롤어선 15척이 오호츠크해(1~4월)와 베링해(5~12월)에서 연중 조업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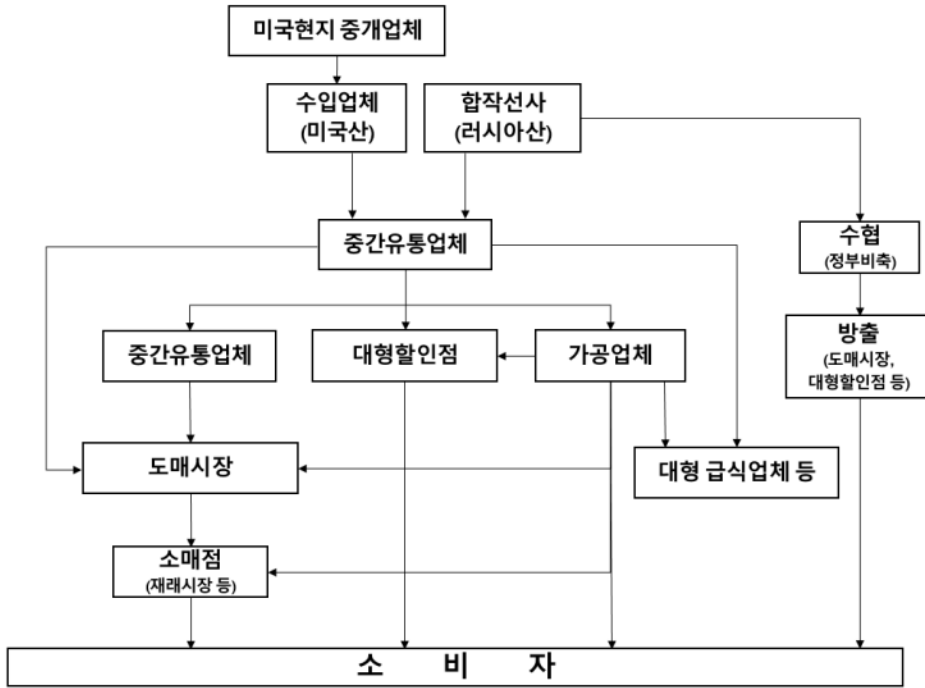
원양산 및 합작산은 어획 즉시 선상에서 급냉되어 국내에 냉동원물로 반입된다. 국내에 반입된 냉동명태는 약 5%의 수협 비축물량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간유통업체(1차)를 통해 유통된다. 중간유통업체(1차)는 50% 이상을 가공공장에 납품하며, 약 30%를 도매시장, 약 8%를 중간유통업체(2차)에게 판매한다. 대형 할인점으로 유통되는 물량은 미미한 수준이다.²⁹⁾ 원양산 및 합작산은 국내에 반입된 후 사내입찰 또는 경매를 통해 중간유통업체(1차)로 판매된다. 합작산은 러시아 수입산으로 통관되지만 어획물의 25% 이상을 경매로 상장하면 22%의 조정관세를 면제받는다. 이에 따라 약 25~30%의 합작 물량이 경매로 상장되며, 나머지는 수협의 사내입찰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경매를 거치는 경우 3~4%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미국산 수입 명태는 베링해와 알래스카만에서 상반기 A시즌(1~5월)과 하반기 B시즌(6~11월)에 조업된 물량이다. 미국산은 냉동연육, 냉동피레트, 머리 및 내장을 제거한 냉동명태(H/G, Headed and Gutted)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원물 생산 비중은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냉동연육, 냉동원물(WR, Whole Round), 냉동 H/G 순으로 수입하고 있다.

미국의 명태산업은 어육연제품의 재료인 냉동연육을 중심으로 성장하였고 어육연제품의 최대 수요처인 일본이 미국 명태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미국산 냉동연육은 상당 물량이 일본의 가공공장에 납품된다. 일본에 비해 한국은 소규모 수요처로, 어육연제품을 취급하는 소수의 대기업이 미국 생산업체를 직접 통하지 않고 현지 한국인 중개업자를 통해 수입하여 자사 가공공장에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냉동연육은 한-미 FTA 협정에 의해 발효 3년차인 2014년부터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다.

2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해양수산부, 2018, p.205.

〈그림 3-3〉 수입 명태의 유통경로



자료 : 유통업체 면담조사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해양수산부, 2018, p.20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미국산 냉동명태(WR, H/G)는 한국 수입업체가 현지 한국인 중개업자를 통해 수입한다. 국내 반입 후 보세창고에 보관되다 시장 상황에 따라 출고하여 중간유통업체에게 판매하며, 이들 대부분은 가공공장으로 납품된다. 이후 급식, 대형할인점, 소매점 등에 유통된다. 냉동명태는 매년 배정된 물량에 한해 선착순으로 무관세로 통관되는 TRQ를 적용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전년도 하반기 B시즌에 어획된 물량을 국내에 반입하여 보세창고에 보관하다가 1월 1일부터 통관한다. TRQ 물량을 초과하면 미국산은 조정관세 22%를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수입업체들은 TRQ 내에서 수입이 되도록 하고 있다.

원양산 및 합작산 명태는 ‘통(桶)’ 단위로 거래된다.³⁰⁾ 명태의 사용용도는 통

30) 통(桶)이란 일정 규격(21.5kg)의 팬(상자)을 열었을 때 보이는 명태 마리수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3통은 한

수별로 다른데, 3~4통은 큰 사이즈로 수율이 좋기 때문에 포를 떠서 전(煎)의 주원료로 사용된다. 5~7통은 황태 혹은 급식용으로 가공된다. 8~12통은 코다리, 13통은 엮걸이, 14~16통은 노가리 혹은 먹태로 사용되고 있다. 원양산 및 합작산은 크기가 비교적 세분화되어있는 반면, 미국산의 경우 인건비가 비싸고 원어 이외의 생산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이즈 분류가 더 간소화되어 있다. 미국산은 총 5개의 크기로 나뉘져 규격별로 편차가 큰데, 이는 국내 수입업자와 유통업체들이 미국산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다.

국내시장에서는 오랫동안 공급량의 큰 비중을 차지한 러시아산이 유통·가공업자나 소비자들에게 익숙해져 미국산보다 선호되고 있다.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인 코다리는 머리를 남겨둔 채 가공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곧은 형태의 가공용 원물이 선호되는데, 미국산의 경우 높은 인건비로 배열 작업이 기계화되어 원물이 휘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미국산 원료는 코다리 가공 작업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에 대한 TRQ 혜택, 원양산 및 합작산의 국내 선호 사이즈 생산 부진 등으로 미국산 명태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선호되는 코다리용 8~9통이 최근 러시아 해역에서 생산이 부진하였다. 이와 맞물려 최근 알래스카 연안에서는 주요 가공품인 연육, 피레트, H/G 용도로는 수율이 좋지 않은 작은 사이즈가 많이 어획되어 WR 생산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연유로 국내 코다리 가공공장에서는 러시아산의 부족분을 미국산으로 채웠고, 머리를 절단한 두절 코다리, 절단 코다리 등 미국산의 단점을 보완한 방법으로 가공하고 있다. 향후에도 원양산 및 합작산 생산이 부진할 경우 미국산 명태는 TRQ 물량 확대에 따라 계속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팬에 3마리가 4겹(12마리)으로 담아진 크기를 말한다. 명태 거래 규격은 3통에서 16통까지 있으며, 통 수가 적을 수록 명태 사이즈가 크다.

〈그림 3-4〉 명태 주요 제품



황태



코다리



두절코다리



절단코다리



노가리



먹태

자료 : 티스토리 블로그 dasrim.tistory.com; 진영식품 jinyoungfood.modoo.at; 칼숨명가 calhouse.co.kr; 삼정수산 samjungSusan.com; 치어스코리아 cheerskorea.com; 꼬꼬사롱 kokosalon.co.kr, (검색일 : 2017.12.1.)

2) 유통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우리나라 냉동연육은 소수의 어육연제품 가공업체에 수입이 집중되어 있어 미국산 냉동연육에 대한 한-미 FTA 무관세 혜택이 소비자 후생으로 바로 이어 지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냉동연육은 거의 미국에서 수입되는데 미국산 생산은 세계 최대 수요처인 일본의 수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즉 국내 냉동 연육 가격은 FTA 요인보다는 국제적인 수급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무관세 혜택으로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국제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가격 하락의 효과가 제한 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냉동명태의 경우 현재까지 국내 시장에서 러시아산의 비중이 절대적인 반면 미국산은 5% 미만을 차지한다. 따라서 국내 가격은 러시아산에 의해 형성되는 구조이다. 러시아산은 주로 합작 물량으로 관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25~30% 가량이 경매를 통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미 FTA로 냉동명태의 TRQ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관세가 철폐되면 경매가 합작 물량에 대한 역차별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시장의 상황에 따라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연어

1) 유통경로

연어는 비린내가 없으며 뼈가 없는 형태로 소비하여 뒤처리가 간편하여 20~30대가 선호하는 수산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연어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뷔페 등에서 냉동훈제품을 회, 초밥 등으로 주로 소비하였으나 최근에는 항공운송으로 노르웨이산 신선·냉장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노르웨이산은 양식 대서양연어이므로 러시아, 미국 등에서 어획되는 자연산 태평양연어보다 품질이 균일하고 기생충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표 3-2〉 연어 상품 형태와 용도별 제품

| 연어 상품 형태 | | |
|--|--|---|
| 신선·냉장 연어(HOG) | 냉동피레트(Trim D 피레트 및 절단 형태) | |
|  |  |  |
| 연어 용도별 제품 | | |
| 훈제 연어 슬라이스 | 구이용 연어 | 도매용 훈제 피레트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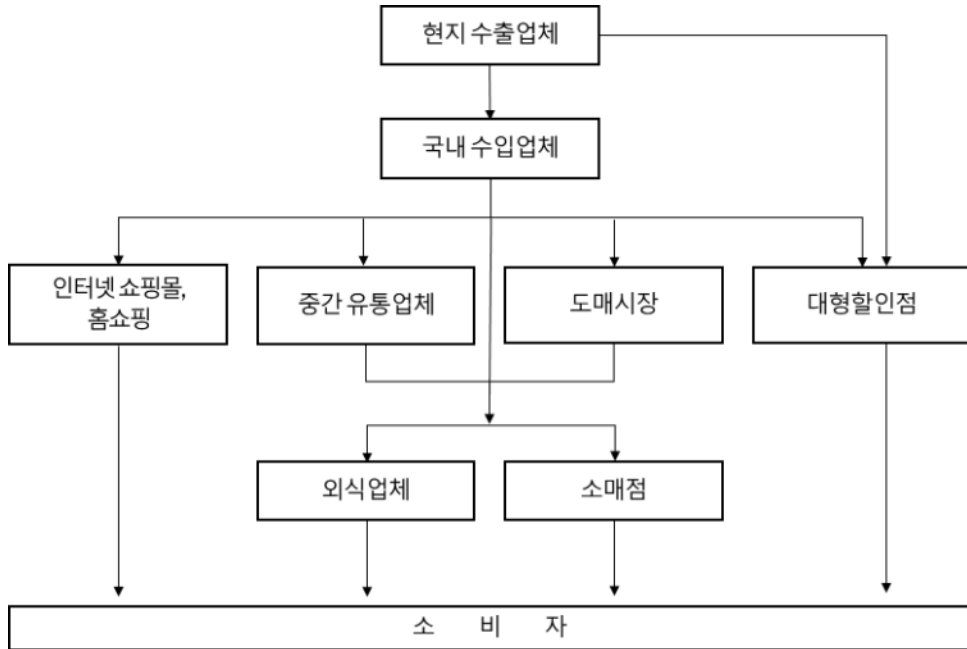
자료 : 대방수산 www.daebangfishery.com; 윈윈수산 winwinseafood.co.kr; 유림수산물유통 www.yurimfishery.co.kr; 유니언포씨 www.forsea.co.kr, (검색일: 2017.12.15.)

노르웨이산 다음으로 많이 수입되는 칠레산 연어는 노르웨이 업체를 통해 기술이전을 받아 양식 및 가공 기술이 유사하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열악한 운송조건으로 신선도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나라에는 주로 냉동품으로 수입되어 저렴한 횡감, 구이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연어는 주로 비가식 부위를 제거한 1차적으로 가공된 원물 형태(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H/G, 내장을 제거한 HOG(Head on Gutted)) 또는 피레트 형태로 수입되고 있다. 신선·냉장품의 유통기한은 포장단계부터 약 2주이고,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시점에는 3~4일 정도 경과한 시점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출하 후

6~7일 가량 지난 연어를 접하게 된다.

〈그림 3-5〉 수입 연어의 유통경로



자료 : 저자 작성

국내 연어수입업체는 대기업을 포함하여 약 20여 곳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연어는 일반적으로 수입업체를 통하여 훈제, 절단 등의 가공작업을 한 이후 중간유통업체, 대형할인점 등으로 유통된다. 그리고 일부 물량은 홈쇼핑, 온라인판매 등을 통한다. 신선·냉장품은 신선도의 확보가 중요하므로 수입업체에서 대형할인점, 외식업체 등으로 유통되고, 냉동품은 대부분 도매시장으로 유통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연어 전문점, 뷔페, 초밥집, 횃집 등의 외식업체에서 연어를 많이 소비하고 있다. 외식업체들은 수입된 연어를 대부분 중간유통업체 혹은 도매시장을 통하여 공급받지만 일부 업체들은 수입업체와 직거래하기도 한다.

2) 유통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연어는 EFTA, 칠레 등 주요 수입상대국과 FTA가 발효되어 현재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는 품목이다. 그러나 노르웨이산 수입업체들은 현지의 공급가격이 상승하여 무관세에도 불구하고 수입단가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체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 철폐에 따른 효과의 일부분이 산지에 귀속되며 국내 소비자들이 관세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힘든 상황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 소비자들의 연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수입업체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노르웨이의 수출업체에 비해 국내 수입업체의 규모가 작고 수는 많아 구매 교섭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국내 수입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며 국내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자의 이윤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연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중국과 노르웨이 간 교역이 정상화되어 향후 중국의 수입 확대에 따라 국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국산 연어 양식이 성공하였으나 아직 생산량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대중적인 소비 수산물로 부상한 연어의 안정적인 수급 대책이 요청된다. 구매 교섭력 강화와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를 위해 현재 노르웨이와 칠레에 편중되어 있는 수입상대국을 캐나다, 뉴질랜드 등으로 다변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4. 오징어

1) 유통경로

최근 오징어 가격 상승과 함께, 1인 가구의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가정 소비를 위해 오징어를 구입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외식이나 간식, 급식 등을 통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유통경로의 변화에서도 나타나는데, 원양산 오징어는 도매업자들보다는 가공업체로 유통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오징어는 국산과 달리 대부분이 칠레·페루산 대왕오징어로 전량 가공을 거친 후 식자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³¹⁾ 최근에는 국산 생산 감소로 수

31) 대왕오징어를 가공하는 이유는 길이가 약 2m에 달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손질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지만 특유의 암모니아 향과 신맛을 현지에서 제거해서 수출하여 국내에서 가공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런 맛이 나지 않기 때

입이 증가하면서 가공용 비중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수입 오징어는 크게 칠레산 또는 페루산의 냉동품과 페루산 자숙품으로 나눌 수 있다. 냉동품은 대왕오징어의 원물을 수입하여 귀, 몸통, 다리 세 부위별로 용도에 맞게 가공하는데 가공품의 수가 35가지에 이른다. 페루산 자숙품은 강원도의 가공업체에서 진미채로 가공되어 유통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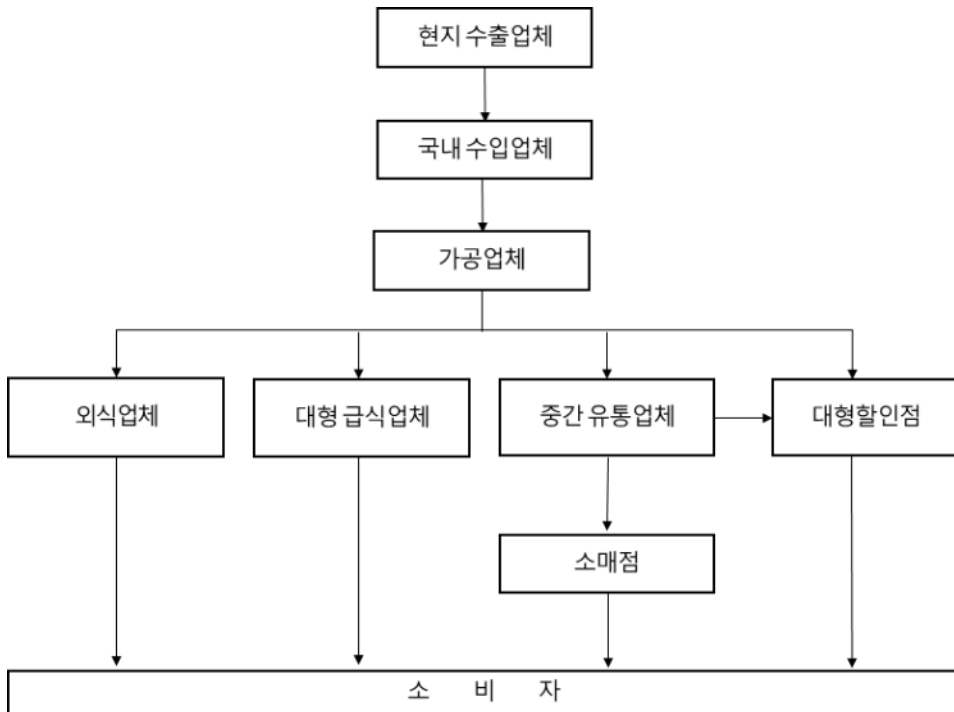
〈표 3-3〉 수입 오징어의 가공 형태와 용도

| 가공형태 | 용도 | 가공형태 | 용도 |
|---|--|---|---------------------------------|
|  | - 볶음, 탕, 튀김 등 다양한 식자재용 |  | - 탕, 튀김용 등 식자재 사용(귀 채보다 선호도 낮음) |
| 〈귀 채〉 | | 〈몸통 채〉 | |
|  | - 찜뽕 등 중식당에서 주로 사용 - 일부는 샐러드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  | - 주로 안주나 간식 또는 반찬으로 사용 |
| 〈솔방울 가공〉 | | 〈진미채〉 | |
|  | - 주로 꼬치 형태로 노점상에서 사용 |  | - 주로 안주나 간식 또는 반찬으로 사용 |
| 〈가문어 꼬치용〉 | | 〈가문어 슬라이스〉 | |

자료 : 다인푸드 www.dainfood.com; 한스무역 hanstradingltda.wixsite.com, (검색일: 2017.12.5.)

냉동 대왕오징어는 부위별로 용도가 다양하다. 귀는 식감이 국산 오징어 몸통과 비슷하기 때문에 채로 썰어 볶음, 탕, 튀김 등의 다양한 식재료로 사용된다. 몸통의 경우 채로 썰어 튀김용으로 사용되거나 솔방울 형태로 가공하여 증식당 등에서 사용된다. 다리는 얇게 썰어 뷔페, 노점상 등에서 가문어로 사용된다.³²⁾ 한편 페루산 자숙 오징어는 현지에서 내장제거, 자숙, 건조 등 1차 가공을 거쳐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진미채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3-6〉 수입 오징어의 유통경로



자료 : 저자 작성

가공업체는 항만이 가까운 부산 지역과 오징어 가공단지가 조성된 강원 지역에 주로 있는데, 부산은 냉동품의 원물 가공이 많은 반면, 강원은 자숙품의 진

32) '가문어'는 가짜 문어의 줄임말로 대왕오징어 다리를 가공한 맛과 모양이 문어 다리와 비슷하여 붙여진 용어이다.

미채 가공이 많은 특징을 보인다. 이렇게 가공된 오징어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데, 주된 경로는 외식업체, 대형 급식업체 등으로의 식자재 판매이다. 부산 지역에서는 수입산 냉동품을 가공하여 주로 급식용으로 유통하고 있는 대형 가공업체가 3~4곳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유통 경로는 대형 할인점 및 소매점인데, 대형할인점은 대규모 물량이어서 가공업체와 직거래를 하고 소매점은 취급 물량이 작기 때문에 벤더(도매업체)를 통한다.

한편 부산에 있는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가공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대형 가공업체를 거치지 않고 수입한 물량을 바로 가공한 후 유통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현지 어획량 감소로 수입 오징어의 물량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수입업체끼리 물량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다.

2) 유통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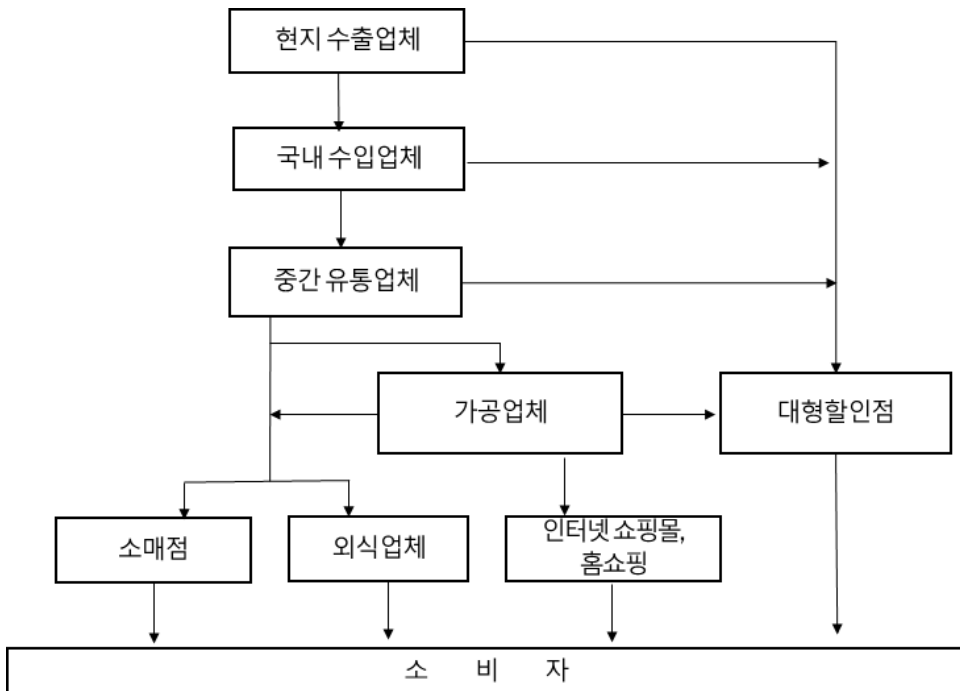
최근 오징어는 원물 형태로 가정에서 소비되기보다는 가공을 거친 후 식당이나 급식, 간식 등으로 소비되는 추세이며, 국산의 생산 감소에 따라 수입산이 가공용으로 쓰이는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직접 오징어를 구매하기보다는 가공된 상품을 간접적으로 소비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원산지 선택권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공품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표시와 수입산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가 요구된다.

유통과정에서는 가공업체가 주요 납품처인 대기업 급식업체 및 대형할인점과의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기업 급식업체와 가공업체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최근과 같이 원물의 가격이 이례적으로 크게 상승한 상황에서는 가공업체가 계약 이행을 위해 손해를 보면서 판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형할인점과의 거래에서도 원물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판매가격 인상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공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안정적인 오징어 원물 확보를 통한 가격 안정과 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5. 고등어

수입 고등어의 대부분(87%)을 차지하는 노르웨이산은 냉동으로 수입되어 대부분 피레트(순살)이나 자반으로 가공되어 유통된다. 이러한 노르웨이산의 유통 경로와 경로별 비중을 살펴보면, 노르웨이산은 수입업체-도매상을 통해 가공업체를 거쳐 대형할인점, 인터넷·홈쇼핑, 소매점 등에 배분되는 물량이 80%에 달하고, 현지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로부터 대형할인점이 직접 구매하는 물량이 20%를 차지한다. 도매상은 80% 가량의 물량을 가공업체에, 소매점과 소비자에게 각각 10%를 판매한다. 대형할인점은 현지 수출업체 및 수입업체를 통해 구입한 수입 고등어를 계약된 가공업체를 통해서 가공하여 판매한다.³³⁾

〈그림 3-7〉 노르웨이산 고등어의 유통경로



자료 : Tsai, "Norweign Mackerel's Potential in Korea", Norwegian Seafood Council, 2017, p.16

³³⁾ Tsai, "Norweign Mackerel's Potential in Korea", Norwegian Seafood Council, 2017, p.16

노르웨이산 고등어는 2016년 기준으로 피레트 형태가 80%, 다음으로 자반(18%) 등의 순으로 판매 비중이 높으며, 과거에 비해 노르웨이산은 피레트 중심으로 상품 구성이 변화되고 있다.³⁴⁾ 이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피레트의 비중은 노르웨이산이 90%, 국산이 10%로 노르웨이산이 크게 앞서고 있다.³⁵⁾ 반면에 자반고등어의 경우 여전히 국산(85%)의 비중이 노르웨이산(15%)에 비해 높다.³⁶⁾

34) 상계서, p. 13.

35) 상계서, p. 15.

36) 상계서, p. 18.

제4장 FTA 이후 수산물 수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제1절 FTA의 수입물량 변화 효과

1. 개요

FTA로 인한 수입물량의 변화 효과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와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로 측정할 수 있다. 전자는 FTA 이후 관세 인하 등 시장접근성 개선으로 협정당사국 사이에 새로운 무역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는 효율적인 국외의 수산물 생산이 비효율적인 국내의 생산을 대체하는 것으로 소비자 후생의 증가를 가져온다. 후자는 FTA 비체결국에서 체결국으로 무역이 전환되는 현상이다. 수입의 입장에서는 시장접근성 개선으로 더 효율적인 생산을 하는 국가로부터 덜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국가로 수입이 전환될 수 있으며, 이는 후생의 감소를 수반한다.³⁷⁾ 따라서 FTA로 인한 전체적인 무역의 효과는 두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결정되며 실증 분석을 통해 각각의 효과를 측정한다.

이와 같은 FTA의 무역효과는 국내외 다수의 연구에서 분석이 수행되었다. Viner(1950)³⁸⁾는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를 최초로 도입하여 전자는 사회적 후생에 긍정적이지만 후자는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Clausing(2001)³⁹⁾은 미국과 캐나다 양국 간의 무역창출효과와 무

37) Krugman, Paul R. and Maurice Obstfeld, *International Economics: Theory and Policy*, Boston: Pearson Addison-Wesley, 1997, p.247.

38) Viner, Jacob, *The Customs Union Issue*, New York: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50.

39) Clausing, Kimberly A. "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in the Canad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Revue canadienne d'économie*, 34(3), 2001.

역전환효과를 계측하였는데, 관세 인하율이 가장 높은 품목의 수입 증가율이 높았으며 무역전환효과는 뚜렷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usanto et al.(2007)⁴⁰⁾는 NAFTA에 따른 미국과 멕시코 양국 간에 농업분야의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를 추정하였는데,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은 무역전환효과보다 무역창출효과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로 이병훈 외(2013)⁴¹⁾가 한-칠레 FTA에 따른 돼지고기·포도·키위·포도주의 수입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모든 품목에서 무역창출효과가 있고 돼지고기 이외의 품목에서 무역전환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밖에도 관련 연구로는 Balassa(1967)⁴²⁾, Krueger(1999)⁴³⁾, Magee(2008)⁴⁴⁾, Vollarth et al.(2011)⁴⁵⁾ 등이 있다.

FTA로 인해 발생한 후생 변화의 크기를 엄밀하게 측정하려면 해당 상품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가 완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분석 자료의 제약으로 본 연구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의 크기를 비교하지는 않고 각 효과의 유무를 판별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본 분석을 통해 ‘FTA의 관세 혜택으로’ 또는 ‘FTA에 의한 시장지배력 강화로’ 수입물량에 변화가 있었는지, 그러한 변화가 모두 새롭게 창출된 것인지, 기존의 수입이 전환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FTA 전후의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일 무역창출효과가 있으나 무역전환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FTA로 인해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0) Susanto et al., "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in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the case of the agricultural sector," *Journal of Agricultural and Applied Economics*, 39(1), 2007.

41) 이병훈 외, 『FTA 체결 이후 주요 수입농산물 유통실태와 경제주체별 후생효과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42) Balassa, Bela, "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in the European Common Market," *The Economic Journal*, 77(305), 1967.

43) Krueger, Anne O., *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under NAFTA*, Working Paper 7429,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BER Working Paper Series, 1999.

44) Magee, Christopher S.P., "New measures of 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75(2), 2008.

45) Vollarth, Thomas, *Reciprocal trade agreements: Impacts on bilateral trade expansion and contraction in the world agricultural marketplace*, Economic Research Report 102755,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2011.

2. 분석 모형 및 자료

제2장 제3절에서 살펴본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FTA로 인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를 분석하였다.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분석모형은 FTA 발효 이후 관세 인하 또는 TRQ 배정, FTA 상대국의 국내 시장지배력이 FTA 상대국산 수입물량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도록 구성된다. 여기서 관세 인하 또는 TRQ 배정은 관세인하 정도나 TRQ의 크기를 변수로 삼을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FTA 발효 이후 평균적인 물량 증가율을 계측하기 위해 FTA 발효 기간에 대한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수입시장이 경쟁적인 구조라면 FTA 발효의 영향이 주로 작용하겠으나, 실제 수입시장은 특정 국가산 위주의 불완전경쟁시장인 경우가 많으며 이때에는 FTA 발효 외에도 시장지배력이 영향을 미친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전기 또는 전년 동기의 수입시장점유율을 변수로 삼았다. 무역전환효과와 분석모형은 FTA 상대국 이외 나머지 국가로부터의 전체 수입물량을 종속변수로 하되 설명변수는 무역창출효과와 분석모형과 동일하다. 즉 FTA 상대국에 대한 관세인하 또는 TRQ의 효과와 시장지배력이 나머지 국가산 수입량에 미치는 영향이 측정된다.

또한 두 모형 모두에서 수입량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변수로 국민총소득(실질), FTA 상대국산 수입가격, FTA 상대국 이외의 수입가격을 포함하였다. 수입량과 국민총소득은 인구변동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1인당 변수로 환산하였다. 수입가격은 환율과 소비자물가를 반영하여 실질화하였다. 실제 추정에서는 계절성을 통제하기 위한 더미변수를 포함하였고 더미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자연로그를 취하여 log-log 형태로 구성하였다. 수입량, 수입가격 등 무역과 관련된 변수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분기별 자료를, 국민총소득은 한국은행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기간은 2000~2016년이며 FTA 발효 시점을 고려하여 품목에 따라 기간을 조정하였다.

품목별로 분석 대상 국가는 FTA 발효 기간이 5년 이상 지났고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거나, FTA 이후 수입이 크게 증가한 수입상대국으로 새우는 ASEAN(베트남·태국), 명태는 미국, 연어는 EFTA(노르웨이), 오징어는 칠레, 고등어는 EFTA(노르웨이)이다. 연어는 FTA 체결국 중에 칠레에서도 수입이 되지만 최근

점유율이 크게 상승한 노르웨이를 대상으로 하였고, 오징어 또한 페루에서도 수입이 되지만 같은 이유로 칠레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FTA 상대국 외에는 실제로는 FTA 상대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4-1〉 무역창출효과 및 무역전환효과 분석 모형

| 모형 | 무역창출효과 | 무역전환효과 | 비고 |
|------|------------------------------|----------------|----------------------|
| 종속변수 | FTA 상대국 수입량 | FTA 상대국 이외 수입량 | 1인당 환산 |
| 설명변수 | GNI(국민총소득) | | 1인당 환산, 실질 |
| | FTA 상대국산 수입가격 | | 환율, 물가 반영 |
| | FTA 상대국 외의 수입가격 | | 환율, 물가 반영 |
| | FTA 발효 (관세인하 및 TRQ 효과) | | 더미변수 |
| | FTA 상대국산 수입시장 점유율 (시장지배력) | | 전기 또는 전년 동기 물량 기준 |

자료 : 저자 작성

〈표 4-2〉 무역창출효과 및 무역전환효과 분석 대상

| 품목 | FTA 상대국 | 발효 시점 | 양허 내용 |
|-----|---------------|---------|--|
| 새우 | ASEAN(베트남·태국) | 2007.6. | - TRQ(기존 수입량 이내, 일정 물량) |
| 명태 | 미국 | 2012.3. | - 냉동: TRQ(기존 수입량 이상, 매년 증량) - 연육: 3년 철폐 |
| 연어 | EFTA(노르웨이) | 2006.9. | - 신선·냉장: 즉시철폐 - 냉동: 4년 철폐 |
| 오징어 | 칠레 | 2004.4. | - 냉동: 5년 철폐 |
| 고등어 | EFTA(노르웨이) | 2006.9. | - TRQ(기존수입량 이내, 일정 물량) |

자료 : 저자 작성

3. 분석 결과

새우의 무역창출효과는 FTA 발효와 FTA산 점유율 모두 양(+)의 값으로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한-ASEAN FTA에서 기존 수입량 이내에 TRQ를 설정하고

수입 활용에 제약적인 TRQ 공매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이 늘어났으며, 베트남을 중심으로 시장점유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시장지배력 또한 무역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새우의 무역전환효과는 유의하게 확인되지 않았는데, 국내 새우 수요 증가로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인도 등 ASEAN 이외의 새우도 많이 수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명태의 무역창출효과도 FTA 발효와 FTA산 점유율 모두 양(+)의 값으로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한-미 FTA로 미국산 명태(냉동)에 대해 TRQ를 늘리고 있으며 명태연육이 관세가 철폐된 영향으로 수입이 증가하였다. 또한 미국산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이 증가한 측면도 확인되었다. 무역전환효과는 FTA 발효와 FTA산 점유율 모두 음(-)의 값으로 유의하였다. FTA로 인한 미국산의 수입이 러시아산, 일본산 등 다른 국가산을 일부 대체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어의 무역창출효과는 FTA 발효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FTA산 점유율에 대해서는 양(+)의 값으로 유의하였다. 한-EFTA 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되었지만, 철폐 직후 수입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경과한 다음 크게 증가한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역전환효과 역시 FTA 발효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았고 FTA산 점유율에 대해 음(-)의 값으로 유의하였다. 신선·냉장 연어를 출시한 노르웨이산 점유율이 크게 오르는 동안 냉동품 중심의 칠레산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4-3〉 새우의 무역효과 분석 결과

| 변수 | 무역창출효과 | | 무역전환효과 | |
|-----------------|-----------------|-------------|---------------|--------------|
| | 계수 | t-값 | 계수 | t-값 |
| GNI | 1.010 *** | 3.38 | 0.868 ** | 2.24 |
| FTA산 수입가격 | -0.032 | -0.09 | 1.040 ** | 2.31 |
| FTA외 수입가격 | -0.235 | -0.76 | -1.198 *** | -3.09 |
| FTA 발효 | 0.149 * | 2.00 | -0.167 | -1.67 |
| FTA산 점유율 | 0.439 ** | 2.34 | -0.198 | -0.79 |
| adj. R2 | 0.763 | | 0.523 | |
| D.W. | 1.975 | | 2.097 | |

주 : *** p<0.01, ** p<0.05, * p<0.1; 계절더미, 상수항 생략

자료 : 저자 작성

〈표 4-4〉 명태의 무역효과 분석 결과

| 변수 | 무역창출효과 | | 무역전환효과 | |
|-----------------|------------------|-------------|-------------------|--------------|
| | 계수 | t-값 | 계수 | t-값 |
| GNI | -0.937 * | -2.00 | 0.918 *** | 2.84 |
| FTA산 수입가격 | -1.319 *** | -10.48 | -0.029 | -0.35 |
| FTA외 수입가격 | 0.580 ** | 2.22 | -0.620 *** | -3.58 |
| FTA 발효 | 0.301 *** | 2.95 | -0.221 *** | -3.29 |
| FTA산 점유율 | 0.294 *** | 4.56 | -0.164 *** | -3.78 |
| adj. R2 | 0.870 | | 0.716 | |
| D.W. | 1.962 | | 1.943 | |

주 : *** p<0.01, ** p<0.05, * p<0.1; 계절더미, 상수항 생략

자료 : 저자 작성

〈표 4-5〉 연어의 무역효과 분석 결과

| 변수 | 무역창출효과 | | 무역전환효과 | |
|-----------------|----------------|--------------|------------------|--------------|
| | 계수 | t-값 | 계수 | t-값 |
| GNI | 4.812 *** | 8.14 | 2.653 ** | 2.12 |
| FTA산 수입가격 | -1.509 *** | -4.13 | 0.229 | 0.31 |
| FTA외 수입가격 | 0.630 ** | 2.12 | -1.117 * | -1.86 |
| FTA 발효 | -0.275 | -1.42 | 0.182 | 0.41 |
| FTA산 점유율 | 0.210 * | 1.73 | -0.559 ** | -2.16 |
| adj. R2 | 0.739 | | 0.363 | |
| D.W. | 1.872 | | 1.817 | |

주 : *** p<0.01, ** p<0.05, * p<0.1; 계절더미, 상수항 생략

자료 : 저자 작성

오징어는 FTA 발효와 FTA산 점유율 모두 양(+)의 값으로 유의하였다. 한-칠레 FTA 발효로 칠레산 오징어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무역전환효과는 FTA 발효에 대해 유의하였지만 양(+)의 값이었고 FTA산 점유율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했다기보다는 칠레산 수입이 증가한 시점에 한-페루 FTA 등으로 경쟁국산 수입 또한 증가하여 무역이 더 많이 창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표 4-6〉 오징어의 무역효과 분석 결과

| 변수 | 무역창출효과 | | 무역전환효과 | |
|-----------------|------------------|-------------|-----------------|--------------|
| | 계수 | t-값 | 계수 | t-값 |
| GNI | 2.266 ** | 2.22 | 0.939 ** | 2.14 |
| FTA산 수입가격 | 0.354 | 0.95 | 0.072 | 0.80 |
| FTA외 수입가격 | 0.513 | 1.42 | -0.991 *** | -7.88 |
| FTA 발효 | 2.400 *** | 4.08 | 0.408 ** | 2.17 |
| FTA산 점유율 | 0.859 *** | 9.75 | -0.039 | -1.13 |
| adj. R2 | 0.911 | | 0.789 | |
| D.W. | 1.993 | | 1.990 | |

주 : *** p<0.01, ** p<0.05, * p<0.1; 계절더미, 상수항 생략

자료 : 저자 작성

고등어의 무역창출효과는 FTA 발효와 FTA산 점유율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한-EFTA FTA 발효 이후 일정 기간 후에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FTA산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수입량은 현지 생산량, 국내 생산량 등의 영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역전환효과는 FTA 발효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FTA산 점유율에 대해서는 음(-)의 값으로 유의하였다. 노르웨이산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경쟁국인 중국산의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4-7〉 고등어의 무역효과 분석 결과

| 변수 | 무역창출효과 | | 무역전환효과 | |
|-----------------|---------------|--------------|-----------------|--------------|
| | 계수 | t-값 | 계수 | t-값 |
| GNI | 3.424 * | 2.00 | -3.763 ** | -2.25 |
| FTA산 수입가격 | -0.632 | -1.10 | -0.091 | -0.16 |
| FTA외 수입가격 | 0.172 | 0.47 | -1.187 *** | -3.25 |
| FTA 발효 | -0.277 | -0.62 | 0.505 | 1.18 |
| FTA산 점유율 | 0.230 | 1.54 | -0.278 * | -1.86 |
| adj. R2 | 0.608 | | 0.476 | |
| D.W. | 1.984 | | 1.915 | |

주 : *** p<0.01, ** p<0.05, * p<0.1; 계절더미, 상수항 생략

자료 : 저자 작성

제2절 FTA 수입물량과 가격의 인과성 분석

1. 개요

FTA에 따른 시장접근성 개선으로 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 경합하는 국산 가격이 하락하고 비효율적인 국내 생산이 대체되면서 국내 생산 규모가 축소된다. 이러한 영향은 국내 수급 상황이 일정한 상황에서 FTA의 외생적인 충격이 있을 때 예상되는 것으로 수입물량 변화가 국산 가격 변화를 유발하는 인과성을 상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 국내 수급 상황이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다. 특히 수산물은 기상 여건, 자원 상태 등에 따라 생산이 감소하거나 소비자 선호 변화, 구매력 향상 등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럴 경우 국산 가격이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진 수입산이 증가하게 되는데, FTA는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시키는 구실을 한다. 이때에는 국산 가격 변화가 수입물량 변화를 유발하여 인과성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두 경우 모두 국산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상승을 억제하므로 생산자에게는 부정적이고 소비자에게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만 FTA로 인한 수산물 수입의 성격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수입물량 → 가격’의 인과성이 국내 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작용한다면 ‘가격 → 수입물량’의 인과성은 국내 시장의 다른 변동요인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과성의 방향을 확인한다면 FTA 발효 이후 수산물 수입 증가의 성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FTA와 관련한 인과성 분석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3)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과 한우 가격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⁴⁶⁾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이 한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성은 있으나 역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산물에 대한 인과성 분석으로는 차영기 외(2009)⁴⁷⁾가 명태의 수입가격과 국산 도매·소매 가격의 순환적인 인과성을 확인하였다.

4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농축산물 조사·분석 연차보고서』, 2013, pp.185~194.

47) 차영기 외, 「수입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의 가격간 유통단계별 인과성 분석 : 명태, 갈치, 조기 냉동품을 대상으로」, 『수산경영론집』, 제40권 제2호, 2009.

2. 분석 모형 및 자료

가장 널리 활용되는 인과성 분석은 그랜저의 인과성 검정법(Granger Causality Test)이며, 이를 다변량으로 일반화한 것이 벡터자기회귀모형(Vector Autoregressive model: VAR)을 통한 인과성 검정 방법이다. 이는 수입물량(또는 가격)의 움직임을 설명하고자 할 때 수입물량(또는 가격)의 과거 자료뿐만 아니라 가격(또는 수입물량)의 과거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를 검정하는 것이다.⁴⁸⁾ 기본적인 변수는 수입수요함수를 상정하여 수입량, 가격(자체수입가격, 경쟁수입가격, 국산 가격), 소득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VAR에서 내생 변수이고, 외생 변수로 FTA 발효 더미변수, 계절성을 통제하는 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더미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수입량, 수입가격 등 무역과 관련된 변수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국산 가격은 통계청(어업생산동향조사)의 분기별 자료를, 국민총소득은 한국은행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기간은 2000~2016년이다. 분석 대상은 제1절의 분석에서 국산과 경합하지 않는 연어를 제외한 4개 품목이며, 품목별 대상 국가는 동일하다.

〈표 4-8〉 수입물량-가격의 인과성 검정 모형

| 구분 | 변수 | 비고 |
|------|-----------------|-----------|
| 내생변수 | FTA 상대국 수입량 | 1인당 환산 |
| | FTA 상대국산 수입가격 | 환율, 물가 반영 |
| | 국산 가격 | 물가 반영 |
| | FTA 상대국 외의 수입가격 | 환율, 물가 반영 |
| | GNI(국민총소득) | 1인당 환산 |
| 외생변수 | FTA 발효 | 더미변수 |

자료 : 저자 작성

⁴⁸⁾ Johnston, Jack and John Dinardo, *Econometric Methods*, New York: McGraw-Hill, 1997, p.255.

3. 분석 결과

그랜저 인과성 검정에서 모든 시계열 자료가 안정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을 시행해야 한다. 안정적이지 않은 자료로 분석하는 경우 검정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단위근 검정은 널리 활용되는 ADF(Augmented Dickey and Fuller) 검정을 이용하였다. 만일 해당 변수(수준 변수)의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1차 차분한 자료로 다시 검정하여 안정성을 확인하고 이를 사용하게 된다. 분석 결과, ASEAN산 새우, 미국산 명태, 칠레산 오징어에 대한 변수는 일부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아 1차 차분한 변수로 재검정하였고 그 결과 모두 안정적인 변수로 확인되어 이를 사용하였다. EFTA산 고등어는 모든 변수가 안정적이어서 수준 변수를 사용하였다.

한편 VAR 추정에는 시차(lag) 선택이 중요한데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HQIC(Hanna-Quinn Information Criterion), SIC(Schwarz Information Criterion)의 값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지수가 가장 적은 값을 보이는 시차를 선택하였다. 그 결과, 품목별 최적 시차는 미국산 명태가 4차이고, 나머지 품목은 모두 1차이다.

〈표 4-9〉 품목별 수입물량-가격의 인과성 검정 결과

| 구분 | 인과성 | F-값 | 최적 시차 | 변수 |
|-----------|--------------|------------|-------|-------|
| ASEAN산 새우 | 수입물량 → 국산 가격 | 0.393 | 1 | 1차 차분 |
| | 국산 가격 → 수입물량 | 5.720 ** | | |
| 미국산 명태 | 수입물량 → 국산 가격 | 2.062 | 4 | 1차 차분 |
| | 국산 가격 → 수입물량 | 0.550 | | |
| 칠레산 오징어 | 수입물량 → 국산 가격 | 0.129 | 1 | 1차 차분 |
| | 국산 가격 → 수입물량 | 11.145 *** | | |
| EFTA산 고등어 | 수입물량 → 국산 가격 | 0.192 | 1 | 수준 |
| | 국산 가격 → 수입물량 | 0.173 | | |

주 : *** p<0.01, ** p<0.05, * p<0.1; 귀무가설은 '인과성 없음'임

자료 : 저자 작성

인과성 검정 결과, ASEAN산 새우와 칠레산 오징어가 국산 가격 상승에 따라 수입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수입물량이 증가하여 국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산 명태와 EFTA산 고등어는 양방향 모두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새우와 오징어의 경우 국내 수요 증가 또는 생산 감소와 같은 국내 수급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수입 증가가 유발된 측면이 크며 이때 FTA 발효가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3절 FTA의 체결국 수출가격 변화 효과

1. 개요

FTA로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되면 수입가격이 그만큼 하락하고 국내 소비자들이 혜택을 얻는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는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상정할 때 예상되는 효과이다. 수입업자나 유통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지니고 있다면 관세 인하에 따른 차익을 흡수하여 최종 소비단계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수입상대국의 수출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시장지배력이 있는 수출업자라면 가격을 낮춰 더 많이 판매하기보다는 관세 인하분만큼 수출가격을 높이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 된다.

주요 수입수산물 가운데 수출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으로 연어와 고등어를 들 수 있다. 이들 품목의 노르웨이산 수입점유율은 2016년 물량 기준으로 각각 63.2%, 87.0%에 이른다. 노르웨이의 수출업체는 Marine Harvest사와 같이 규모가 크고 공동 마케팅 조직인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Norwegian Seafood Council)를 운영하여 ASEAN 등 다른 수입상대국에 비해 수출업체의 교섭력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본 연구는 관세 인하의 후생 효과가 수출업자에게 귀속되는지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노르웨이산 연어와 고등어의 對한국 수출가격이 FTA 발효 이후 상승하였는지 확인하여 시장지배력의 영향을 유추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최용호 외(2016)가 한-미 FTA 이후 미국산 오렌지의 관세 인하에 따른 후생 효과를 분석하면서 미국의 오렌지 수출업체가 관세 인하에 반응하여 수출가격을 조정한다는 추정 결과를 제시하였다.⁴⁹⁾

49) 최용호 외, 「오렌지 수입시장에서의 관세 인하에 따른 후생효과 분석」, 『농촌경제』, 제39권 제1호, 2016, p.14.

2. 분석 모형 및 자료

수출가격 변화 효과 분석모형은 對한국 수출가격을 종속변수로 하고 핵심적인 설명변수인, FTA로 인한 관세 인하 또는 TRQ에 대한 변수는 FTA 발효 기간에 대한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다만, 한-EFTA FTA는 발효한 지 10년이 넘었고, 최근 5년 동안 수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전반기(2006.9.~2011.12.)와 후반기(2012.1.~2016.12.)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수출가격을 설명하는 다른 변수로 對한국 수출물량, 對세계 수출가격, 크로네/달러환율, 생산비 및 운송비와 관련된 변수로 국제유가를 포함하였다. 이 함수는 가격을 물량으로 설명하는 형태이므로 일종의 역수출수요함수로 볼 수 있다. 이밖에 계절성을 통제하는 더미변수를 포함하였고, 더미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 자연로그를 취해 log-log 형태로 구성하여 추정하였다. 노르웨이의 수출가격 자료는 Global Trade Atlas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크로네/달러 환율은 한국은행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기간은 2000~2016년이다.

〈표 4-10〉 수출가격 변화 효과 분석 모형

| 모형 | 수출가격 변화 효과 | 비고 |
|------|---------------------------|-----------------------|
| 종속변수 | 對한국 수출가격 | |
| 설명변수 | 對한국 수출물량 | |
| | 對세계 수출가격 | |
| | 크로네/달러환율 | 1기전 가격 |
| | 국제유가 | |
| | FTA 발효 (관세인하 및 TRQ 효과) | 더미변수 (전반기, 후반기 구분) |

자료 : 저자 작성

3. 분석 결과

노르웨이산 연어에 대한 수출가격 변화 효과 분석 결과, 신선·냉장품, 냉동품 모두 FTA 발효에 대해 양(+)의 값으로 유의하여 FTA 발효 이후 수출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 연어에 대한 10~20%의 관세 철폐 효과가 수출업자의 수출가격 상승에 반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발효 전반기의 상승률이 6.4%, 발효 후반기의 상승률이 10.4%로 수입이 크게 증가한 후반기에 수출가격이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수출 가격의 추이에서도 확인된다(<그림 4-1>). 노르웨이의 對한국 수출가격은 FTA 발효 이후 對세계 수출가격의 추세를 따르면서도 발효 이전과 달리 뚜렷하게 상회하고 있다.

노르웨이산 고등어에 대한 분석에서는 FTA 발효와 FTA산 점유율이 모두 유의하지 않아서 수출가격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 한-EFTA FTA에서 양허된 고등의 TRQ 물량이 500톤에 불과하여 가격 변화의 여지가 적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4-11〉 노르웨이산 연어의 수출가격 변화 효과

| 변수 | 신선·냉장 | | 냉동 | |
|------------|-----------|-------|------------|-------|
| | 계수 | t-값 | 계수 | t-값 |
| 수출물량 | -0.020 | -1.00 | -0.025 *** | -2.72 |
| 對세계 가격 | 1.162 *** | 25.83 | 0.383 *** | 5.31 |
| 크로네/달러 환율 | 0.036 | 0.37 | 0.095 | 0.61 |
| 국제유가 | -0.069 * | -1.90 | 0.116 ** | 2.10 |
| FTA 발효 전반기 | 0.064 ** | 1.98 | 0.202 *** | 3.81 |
| FTA 발효 후반기 | 0.104 ** | 2.34 | 0.313 *** | 5.22 |
| adj. R2 | 0.884 | | 0.608 | |
| D.W. | 1.920 | | 2.185 | |

주 : *** p<0.01, ** p<0.05, * p<0.1; 계절더미, 상수항 생략

자료 :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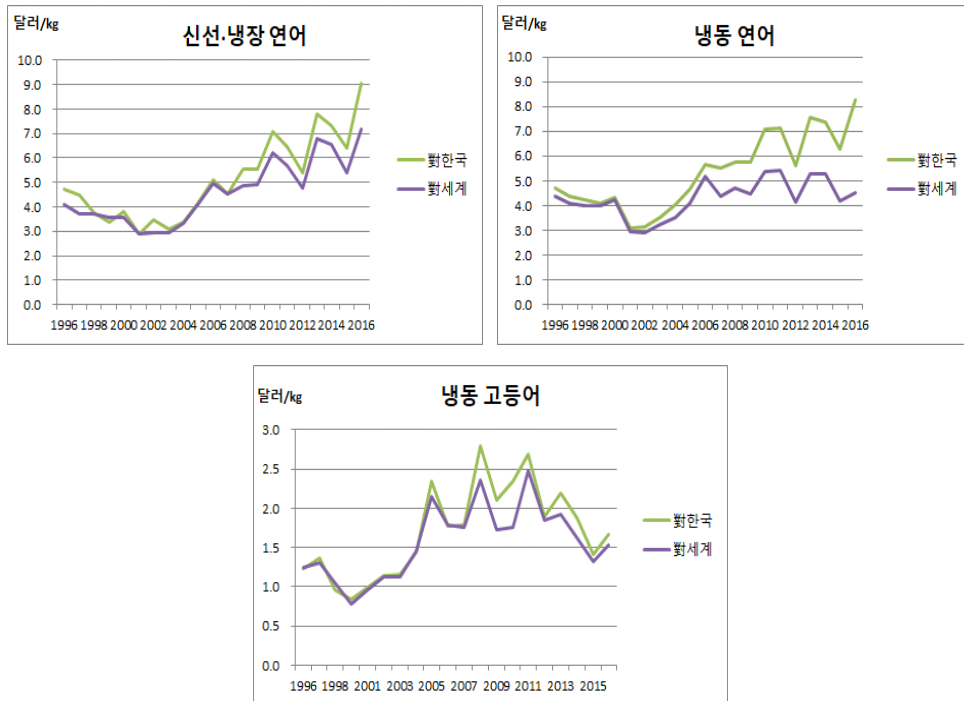
〈표 4-12〉 노르웨이산 고등어의 수출가격 변화 효과

| 변수 | 냉동 | |
|------------|-----------|-------|
| | 계수 | t-값 |
| 수출물량 | 0.015 | 1.57 |
| 對세계 가격 | 0.859 *** | 13.98 |
| 크로네/달러환율 | -0.067 | -0.44 |
| 국제유가 | 0.117 * | 1.95 |
| FTA 발효 전반기 | -0.003 | -0.09 |
| FTA 발효 후반기 | -0.040 | -0.91 |
| adj. R2 | 0.872 | |
| D.W. | 1.764 | |

주 : *** p<0.01, ** p<0.05, * p<0.1; 계절더미, 상수항 생략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4-1〉 노르웨이산 연어·고등어의 수출가격 추이



자료 : UN comtrade(comtrade.un.org, 2017.12.1.)

제4절 소결

FTA 이후 주요 수입수산물의 무역 효과를 분석한 결과, FTA 발효 이후 새우, 명태, 연어, 오징어에서 무역창출효과가 확인되었다. 고등어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한-EFTA FTA에서 양허된 TRQ 규모가 작은 이유로 발효와 직접 연관되지는 않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다음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역전환효과는 명태, 연어, 고등어에서 확인되었다. 새우는 국내 수요가 증가하면서 FTA가 아니더라도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고, 오징어도 한-칠레 FTA 이후 한-페루 FTA 등으로 수입이 늘어나면서 무역전환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무역전환효과가 있는 명태, 연어, 고등어도 전체적으로는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서 무역창출효과가 전환효과보다 더 크다고 보이며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의 후생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FTA 상대국의 수입물량과 국산 가격 간의 인과성 검정에서는 새우와 오징어의 국산 가격이 수입물량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들 품목에서 역(逆)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명태와 고등어는 양방향 모두에서 인과성이 없다는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새우와 오징어는 국내 수요가 증가하거나 생산이 감소한 품목으로 국내 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새우와 오징어에 대해 무역창출효과는 있지만 무역전환효과가 확인되지 않는 상기 분석 결과와도 통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관세 인하의 효과가 수출 단계에서 수출업자에게 흡수된다면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후생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수출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강한 노르웨이산 연어와 고등어에 대해 FTA의 수출가격 변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노르웨이산 연어는 신선·냉장품, 냉동품 모두 FTA 발효 이후 對한국 수출가격이 상승하여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고등어에 대해서는 수출가격에 대한 FTA 발효의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고등어는 TRQ가 소량이고 연어에 비해 저가품이어서 가격 인상의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5장 수입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분석 《

제1절 소비자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및 설계

본 장에서는 소비자 조사를 통해 FTA 이후 수산물 시장의 변화, 주요 수입수산물의 구매 행태, 인식, 만족도 등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측면을 분석하였다. 전국 7대 도시에 거주하는 20~60세 남녀 1,500여명을 대상으로 고등어, 새우, 연어, 오징어, 명태 등 수입수산물 구매 경험자를 중심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본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으로 추출하였다. 조사 시점은 2017년 11월이다.

제2장~제4장에서 다룬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 상품형태, 유통실태 등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과 내용을 구성하였다. 고등어, 새우, 연어는 주로 활·신선·냉장·냉동품으로 수입되는 반면, 오징어와 명태는 수입량의 상당부분이 국내에서 가공 후 유통되는 비율이 높아 오징어는 진미채와 버터구이오징어, 명태는 코다리과 게맛살로 특정하였다.

조사 내용은 ‘수산물 구입 일반’, ‘FTA 이후 국내 수산물 시장 전체의 변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 ‘주요 수입수산물의 품목별 구매 경험 및 소비자 인식’의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수산물 구입 일반’에서는 주로 구입하는 수산물이 무엇인지, 수입수산물 가운데 주로 구입하는 수산물이 무엇인지, 수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얼마나 확인하는지, 국산과 수입산 수산물의 품질을 비교할 때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과거 2~3년 전에 비해 최근 수산물 소비량이 변했는지 등 FTA 이행 전후로 소비자들의 수산물 구매 행태 변화와 인식을 조사하였다.

‘FTA 이후 국내 수산물 시장 전체의 변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수입수산물이 국내 시장에 도입됨에 따라 국내 수산물의 품질, 가격, 선택의 폭, 전반적 만족도는 어떠한지를 7점 리커트 척도로써 측정하였다. ‘주요 수입수산물의 품목별 구매 경험 및 소비자 인식’은 고등어, 새우, 연어, 오징어 가공품(진미채, 버터구이오징어), 명태 가공품(코다리, 게맛살) 등 각각의 수입 품목에 대해 구입 장소, 구매 원산지 및 구입 이유, 원산지 확인 정도, 제품 다양성, 가격, 품질, 만족도, 재구매 의사 등을 조사하였다.

〈표 5-1〉 조사 내용

| 구분 | 설문 항목 |
|------------------------------------|---|
| 수산물 구입 일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구입하는 수산물 - 주로 구입하는 수입수산물 - 수산물 구입 시, 원산지 확인 정도(활·신선냉장·냉동품, 가공품) - 수입산과 국산 수산물의 품질 비교 평가 - 과거 대비 수산물 소비량의 변화 |
| FTA 이후 국내 수산물 시장 전체의 변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의 품질 향상 - 수산물의 가격 하락 - 수산물의 선택 종류 및 가격대 등 확대 - 수산물의 전반적인 구입만족도 |
| 주요 수입수산물의 품목별 구매 경험 및 소비자 인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수산물의 품목별 구입 장소 - 수입수산물의 품목별 구입 원산지 및 구입 이유 - 수입산 구입 시, 원산지 확인 정도 - 총 10번 구입 시, 수입산 구입 횟수 - 과거 대비 수입산 구입 비율 변화 - 수입수산물의 제품 다양성(제품 형태, 크기, 가격대, 원산지 등) - 수입수산물의 가격 - 수입수산물의 품질 - 수입수산물의 만족도 - 수입수산물의 해당 원산지 재구매 의사 <p>* 주요 수입수산물: 고등어, 새우, 연어, 오징어(진미채, 버터구이오징어), 명태(코다리, 게맛살)</p> |

〈표 5-2〉 품목별 구매 경험 응답자 수

단위 : %

| 구분 | | 전체 수산물 구매 응답자 수 | 수입수산물 구매 응답자 수 | 수입수산물 구매 비중 |
|-----|---------|--------------------|-------------------|----------------|
| 고등어 | | 1,260 | 768 | 61.0 |
| 새우 | | 1,302 | 993 | 76.3 |
| 연어 | | 1,042 | 936 | 89.8 |
| 오징어 | 진미채 | 1,156 | 579 | 50.1 |
| | 버터구이오징어 | 891 | 220 | 24.7 |
| 명태 | 코다리 | 809 | 415 | 51.3 |
| | 게맛살 | 1,111 | 424 | 38.2 |

품목별 구매 응답자 수는 고등어, 새우, 연어, 진미채, 게맛살 등이 1천 명 이상 응답하였고, 버터구이오징어와 코다리는 그보다는 다소 낮은 응답자 수를 보였다. 수입수산물 구매 응답자 수는 고등어, 새우, 연어가 많은 반면 가공품인 오징어와 명태는 다소 적었다.

2. 응답자 특성

조사 표본은 조사 대상 수산물 구매 경험이 있는 응답자로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으로 추출하되 응답자 수가 적은 가공품에 대해서는 통계 분석의 신뢰성을 위해 최소 200명의 응답자를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집계된 표본 수는 1,522명이다. 응답자의 피로도나 기억 등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최근 3개월 이내의 구매 경험으로 제한하고, 응답자 1인당 응답 품목을 4개 이하로 하되 가공품 응답자의 경우 가공품 2개 이하, 활·신선냉장·냉동 품은 3개 이하로 제한하였다.

〈표 5-3〉 응답자 특성

단위 : %

| 구분 | | 사례 수 | 비율 |
|-------------|------------|-------|-------|
| 전체 | | 1,522 | 100.0 |
| 성별 | 여성 | 891 | 58.5 |
| | 남성 | 631 | 41.5 |
| 지역 | 서울 | 613 | 40.3 |
| | 인천 | 161 | 10.6 |
| | 대구 | 202 | 13.3 |
| | 대전 | 103 | 6.8 |
| | 부산 | 240 | 15.8 |
| | 광주 | 103 | 6.8 |
| | 울산 | 100 | 6.6 |
| 연령 | 20~29세 | 296 | 19.4 |
| | 30~39세 | 379 | 24.9 |
| | 40~49세 | 421 | 27.7 |
| | 50~59세 | 426 | 28.0 |
| 가족 구성원 수 | 1명 | 110 | 7.2 |
| | 2명 | 189 | 12.4 |
| | 3명 | 451 | 29.6 |
| | 4명 | 636 | 41.8 |
| | 5명 이상 | 136 | 8.9 |
| 소득수준 | 300만 원 미만 | 218 | 14.3 |
| | 300~499만 원 | 553 | 36.3 |
| | 500~699만 원 | 442 | 29.0 |
| | 700만 원 이상 | 309 | 20.3 |
| 직업 | 전문/관리직 | 248 | 16.3 |
| | 사무직 | 713 | 46.8 |
| | 서비스/판매/생산직 | 123 | 8.1 |
| | 자영업 | 126 | 8.3 |
| | 전업주부 | 208 | 13.7 |
| | 무직/기타 | 104 | 6.8 |

제2절 소비자 조사 결과

1. 수산물 구입 일반

지난 1년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구입한 수산물은 고등어가 32.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오징어(19.3%), 새우(14.7%), 갈치(10.1%), 연어(8.7%), 명태(3.7%) 등의 순이었다. 주로 구입하는 수입수산물은 고등어가 28.1%로 가장 많고, 새우 22.7%, 연어 17.1%로 뒤를 이었다.

〈표 5-4〉 주 구입 수산물 및 수입수산물 현황

단위 : %

| 수산물 | | | 수입수산물 | | |
|------|-------|-------|-------|-------|-------|
| 품목 | 사례수 | 비중 | 품목 | 사례수 | 비중 |
| 전체 | 1,522 | 100.0 | 전체 | 1,522 | 100.0 |
| 고등어 | 494 | 32.5 | 고등어 | 427 | 28.1 |
| 오징어 | 294 | 19.3 | 새우 | 345 | 22.7 |
| 새우 | 223 | 14.7 | 연어 | 260 | 17.1 |
| 갈치 | 154 | 10.1 | 오징어 | 142 | 9.3 |
| 연어 | 132 | 8.7 | 주꾸미 | 100 | 6.6 |
| 명태 | 57 | 3.7 | 명태 | 85 | 5.6 |
| 주꾸미 | 54 | 3.5 | 갈치 | 55 | 3.6 |
| 가자미 | 48 | 3.2 | 가자미 | 46 | 3.0 |
| 골뱅이 | 38 | 2.5 | 바닷가재 | 43 | 2.8 |
| 바닷가재 | 25 | 1.6 | 골뱅이 | 17 | 1.1 |
| 기타 | 3 | 0.2 | 기타 | 2 | 0.1 |

수산물 구입 시, 상품형태별 원산지 확인 정도는 활·신선냉장·냉동품의 경우 가공품에 비해 확인하는(‘대부분 확인한다’와 ‘항상 확인한다’)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공품 구입 시 원산지보다는 제조업체나 브랜드 등에 대한 의존이 더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5-5〉 수산물 구입 시 원산지 확인 정도

단위 : %

| 구분 | 확인하지 않는 편 | | 반 정도 | 확인하는 편 | | 평균 (100점 환산) |
|------------|-----------|------|------|--------|------|-----------------|
| | 전혀 | 가끔 | | 대부분 | 항상 | |
| 할·신선냉장·냉동품 | 0.1 | 6.2 | 22.9 | 50.3 | 20.6 | 71.3 |
| 가공품 | 1.2 | 10.7 | 26.7 | 44.2 | 17.2 | 66.3 |

국산과 수입산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산과 수입산이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40.2%로 중국산을 논외로 할 때 ‘차이가 없다’는 응답률 59.8%보다 낮았다. 수입산 중에서 ‘중국산을 제외하면 차이가 없다’ 35.2%, ‘중국산을 포함하여 차이가 없다’ 24.6%로 중국산에 대한 불신이 크게 나타났다.

〈표 5-6〉 국산과 수입산의 품질 차이 인식

단위 : %

| 국산과 수입산(중국산 포함)이 차이 없다 | 중국산을 제외하면 국산과 수입산이 차이 없다 | 중국산을 제외하더라도 국산과 수입산이 차이 있다 |
|---------------------------|-----------------------------|-------------------------------|
| 24.6 | 35.2 | 40.2 |

국산과 수입산에 품질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품질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96.9%가 국산의 품질이 수입산보다 좋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국산과 수입산의 품질 평가(차이 인식의 경우)

단위 : %

| 수입산의 품질이 좋은 편 | | | 국산의 품질이 좋은 편 | | |
|----------------|---------|---------------|--------------|--------|---------------|
| 수입산이 확실히 좋음 | 수입산이 좋음 | 수입산이 조금 좋음 | 국산이 조금 좋음 | 국산이 좋음 | 국산이 확실히 좋음 |
| - | 0.8 | 2.3 | 22.5 | 46.2 | 28.1 |

2~3년 전에 비해 수산물 소비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50.8%로 상대적으로 높아서 FTA 이후 수입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수산물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과거 대비 수산물 소비 증가

단위 : %

| 부정적 | | | 변화 없음 | 긍정적 | | | 평균 (100점 환산) |
|-------|-----|-------|-------|-------|------|-------|--------------------|
| 많이 감소 | 감소 | 약간 감소 | | 약간 증가 | 증가 | 많이 증가 | |
| 0.5 | 2.8 | 10.6 | 35.3 | 35.5 | 12.5 | 2.8 | 58.5 |

2. FTA 이후 국내 수산물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

FTA 이후 국내 수산물 시장의 변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가격, 품질, 선택의 폭, 전반적 만족도 등에 대하여 7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다. 소비자의 전반적 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 점수는 약 60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세부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선택의 폭 확대’가 63.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품질 향상’ 60.0점, ‘가격 하락’ 55.8점의 순이었다. 축산물(돼지고기·소고기) 만족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는데 전반적인 만족도가 59.9점이었고 세부 항목별로도 수산물과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소비자들의 응답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54.2%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10.1%)을 크게 상회하였다. 품질 측면에서는 절반 이상인 54.5%가 수입수산물이 국내 시장에 공급되면서 수입산뿐만 아니라 전체 수산물 시장의 품질이 향상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측면에서는 절반에 못 미치는 46.8%가 전체 수산물의 가격 하락에 기여했다고 평가한 반면, 선택의 폭 측면에서는 68.0%가 수입수산물이 수산물 선택의 폭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여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FTA 이후 국내 수산물 시장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 구분 | 부정적 | | | 변화 없음 | 긍정적 | | | 평균 (100점 환산) |
|-------|-----------|-----|-----------|-------|-----------|------|-----------|--------------------|
|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약간 아니다 | | 약간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전반 | 0.6 | 1.7 | 7.8 | 35.7 | 38.3 | 13.9 | 2.0 | 59.8 |
| 품질 | 0.5 | 1.2 | 6.0 | 37.8 | 40.9 | 11.8 | 1.8 | 60.0 |
| 가격 | 1.6 | 4.8 | 11.4 | 35.3 | 34.9 | 9.9 | 2.1 | 55.8 |
| 선택의 폭 | 0.5 | 1.1 | 5.9 | 24.5 | 46.3 | 18.3 | 3.4 | 63.9 |

〈표 5-10〉 FTA 이후 국내 축산물 시장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 구분 | 부정적 | | | 변화 없음 | 긍정적 | | | 평균 (100점 환산) |
|-------|-----------|-----|-----------|-------|-----------|------|-----------|--------------------|
|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약간 아니다 | | 약간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전반 | 0.7 | 1.8 | 7.4 | 36.5 | 37.1 | 14.6 | 2.1 | 59.9 |
| 품질 | 0.7 | 1.5 | 5.1 | 40.0 | 39.4 | 10.9 | 2.4 | 59.7 |
| 가격 | 2.4 | 4.7 | 11.8 | 36.4 | 32.7 | 9.9 | 2.1 | 55.0 |
| 선택의 폭 | 0.6 | 1.8 | 6.0 | 28.8 | 44.3 | 16.0 | 2.5 | 62.1 |

3. 주요 수입수산물의 품목별 구매 행태 및 소비자 인식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구매 행태 및 소비자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수입수산물의 구매 특성, 원산지 확인 정도, 특정 원산지 재구매 의사, 수입산 구매 횟수 등을 조사하였다.

1) 구매 특성

고등어, 새우, 연어, 오징어(진미채·버터구오징어), 명태(코다리·게맛살) 모두 주 구입 장소는 대형할인점이 1위이며, 특징적으로 2위의 경우 고등어는 홈쇼핑·인터넷쇼핑, 연어는 백화점, 새우·진미채·코다리는 재래시장, 버터구이오징어는 편의점, 게맛살은 동네슈퍼마켓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활·신선냉장·냉동품의 구매 특성

단위: %

| 구분 | | 고등어 | | 새우 | | 연어 | |
|--------------|-----|---------|--------|-------|--------|-------|--------|
| 사례 수 | | 768 | | 993 | | 936 | |
| 구입장소 | 1순위 | 대형할인점 | (69.7) | 대형할인점 | (74.0) | 대형할인점 | (77.5) |
| | 2순위 | 인터넷·홈쇼핑 | (10.5) | 재래시장 | (8.1) | 백화점 | (6.4) |
| 구입 원산지 | 1순위 | 노르웨이 | (79.2) | 태국산 | (35.6) | 노르웨이 | (80.1) |
| | 2순위 | 기타 | (15.8) | 베트남산 | (29.0) | 칠레 | (10.9) |
| 원산지 선택 이유 | 1순위 | 가격 저렴 | (28.1) | 가격 저렴 | (45.5) | 신선도 | (33.6) |
| | | 안전성 | (22.2) | 신선도 | (15.5) | 안전성 | (23.6) |
| | 2순위 | 가격 저렴 | (40.7) | 가격 저렴 | (56.9) | 가격 저렴 | (34.3) |
| | | 할인행사 | (21.2) | 할인행사 | (10.8) | 신선도 | (18.6) |

〈표 5-12〉 가공품의 구매 특성

단위: %

| 구분 | | 오징어 가공품 | | 명태 가공품 | |
|--------------|-----|--------------|--------------|--------------|--------------|
| | | 진미채 | 버터구이오징어 | 코다리 | 게맛살 |
| 사례 수 | | 579 | 220 | 415 | 424 |
| 구입장소 | 1순위 | 대형할인점 (65.3) | 대형할인점 (50.9) | 대형할인점 (58.6) | 대형할인점 (71.9) |
| | 2순위 | 재래시장 (11.7) | 편의점 (20.0) | 재래시장 (19.3) | 동네마켓 (15.6) |
| 구입 원산지 | 1순위 | 모름/기타 (32.3) | 모름/기타 (42.3) | 러시아산 (74.7) | 모름/기타 (58.7) |
| | 2순위 | 칠레산 (30.1) | 칠레산 (30.5) | 모름/기타 (16.6) | 러시아산 (32.8) |
| | 3순위 | 페루산 (28.5) | 페루산 (15.9) | 미국산 (8.7) | 미국산 (8.5) |
| 원산지 선택 이유 | 1순위 | 가격 저렴 (40.6) | 가격 저렴 (32.3) | 가격 저렴 (38.7) | 가격 저렴 (40.2) |
| | | 할인행사 (25.1) | 할인행사 (19.4) | 신선도 (12.9) | 할인행사 (23.3) |
| | 2순위 | 가격 저렴 (29.3) | 가격 저렴 (28.4) | 가격 저렴 (29.0) | 가격 저렴 (39.6) |
| | 3순위 | 가격 저렴 (43.0) | 할인행사 (25.7) | 가격 저렴 (25.0) | 가격 저렴 (36.1) |

구입 원산지를 조사한 결과, 고등어와 연어는 노르웨이가 80.0%로 압도적으로 많고, 새우는 태국산 35.6%, 베트남산 29.0%이며, 코다리는 러시아산이 74.7%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가공품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잘 모른다는 답변이 1순위로 나타나, 앞에서 제시한 상품형태별 수산물 원산지 확인 정도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원산지 선택 이유에 대해서는 ‘가격 저렴’이 1순위로 가격 측면을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공품은 2순위도 ‘할인행사’가 많아서 가격에 대한 고려가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연어는 1순위가 ‘신선도’(33.6%), 2순위 ‘안전성’(23.6%)로 가격보다 품질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어도 2순위가 ‘안전성’, 새우도 2순위가 ‘신선도’로 나타나 가공품보다는 품질에 대한 고려가 많음을 알 수 있다.

2) 구매 만족도

최근 3개월 이내에 구입한 수입수산물에 대한 구매 경험 및 소비자 인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연어가 65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등어(63.0점), 코다리(61.7점), 새우(61.3점), 게맛살(58.6점), 진미채(58.4점), 버터구이오징어(57.9점)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어, 새우, 연어, 코다리 등은 약간 만족한다는 응답이 보통 또는 불만족이라는 응답에 비해 많은 반면, 가공품의 경우에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5-13〉 주요 수입수산물의 전반적 만족도

단위 : %

| 구분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약간 불만족 | 보통 | 약간 만족 | 만족 | 매우 만족 | 평균 (100점 환산) |
|-----|--------|-----|--------|------|-------|------|-------|--------------|
| 고등어 | 0.3 | 0.3 | 3.3 | 35.9 | 40.9 | 16.7 | 2.7 | 63.0 |
| 새우 | 0.1 | 0.7 | 4.3 | 38.9 | 39.4 | 15.4 | 1.2 | 61.3 |
| 연어 | - | 0.2 | 1.9 | 30.9 | 43.8 | 20.9 | 2.2 | 65.0 |
| 오징어 | 진미채 | 0.3 | 0.9 | 5.9 | 45.6 | 37.0 | 9.0 | 58.4 |
| | 버터구이 | - | 0.9 | 6.4 | 48.2 | 35.0 | 8.2 | 57.9 |
| 명태 | 코다리 | - | 0.7 | 4.6 | 36.4 | 41.7 | 15.2 | 61.7 |
| | 게맛살 | 0.2 | 0.9 | 3.5 | 49.8 | 34.4 | 9.9 | 58.6 |

〈표 5-14〉 주요 수입수산물의 품질 만족도

단위 : %

| 구분 | 매우 나쁘다 | 나쁘다 | 나쁜 편이다 | 보통이다 | 좋은 편이다 | 좋다 | 매우 좋다 | 평균 (100점 환산) |
|-----|--------|-----|--------|------|--------|------|-------|-----------------|
| 고등어 | 0.1 | - | 2.2 | 41.1 | 44.1 | 10.4 | 2.0 | 61.4 |
| 새우 | 0.1 | 0.2 | 2.4 | 48.7 | 40.9 | 6.7 | 0.9 | 59.0 |
| 연어 | 0.1 | 0.1 | 1.6 | 34.7 | 49.8 | 11.6 | 2.0 | 62.8 |
| 오징어 | 진미채 | - | 0.3 | 52.8 | 34.2 | 6.4 | 1.0 | 57.4 |
| | 버터구이 | - | 1.4 | 55.5 | 32.7 | 4.5 | 0.9 | 56.1 |
| 명태 | 코다리 | - | 3.4 | 40.0 | 46.0 | 9.2 | 1.4 | 60.9 |
| | 게맛살 | 0.2 | - | 3.1 | 55.7 | 36.3 | 4.0 | 57.1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품질 만족도는 연어가 62.8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등어(61.4점), 코다리(60.9점), 새우(59.0점) 등의 순이며, 품질 만족도가 낮은 품목은 가공품인 진미채, 게맛살, 버터구이오징어 등이었다. 가격 만족도는 고등어와 코다리가 57.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새우(54.8점), 게맛살(52.2점), 진미채(51.8점), 연어(49.7점), 버터구이오징어(49.2점) 등의 순이었다. 활·신선냉장·냉동품 가운데 가격 만족도가 가장 낮은 연어는 ‘가격이 비싼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8%로 다른 품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5-15〉 주요 수입수산물의 가격 만족도

단위 : %

| 구분 | 매우 비싸다 | 비싸다 | 비싼 편이다 | 보통이다 | 저렴한 편이다 | 저렴하다 | 매우 저렴하다 | 평균 (100점 환산) |
|-----|--------|-----|--------|------|---------|------|---------|-----------------|
| 고등어 | 0.1 | 1.0 | 7.4 | 47.9 | 36.7 | 5.3 | 1.4 | 57.0 |
| 새우 | 0.1 | 2.1 | 14.0 | 44.0 | 33.3 | 5.3 | 1.1 | 54.8 |
| 연어 | 1.1 | 5.1 | 23.6 | 41.7 | 22.9 | 4.4 | 1.3 | 49.7 |
| 오징어 | 진미채 | 1.6 | 4.8 | 13.5 | 48.5 | 25.6 | 4.8 | 51.8 |
| | 버터구이 | 0.9 | 4.5 | 23.2 | 48.2 | 17.7 | 3.6 | 49.2 |
| 명태 | 코다리 | 0.2 | 1.7 | 8.4 | 47.5 | 30.4 | 10.8 | 57.1 |
| | 게맛살 | 0.5 | 2.1 | 12.5 | 57.8 | 23.3 | 3.3 | 52.2 |

〈표 5-16〉 주요 수입수산물의 선택의 폭 만족도

단위 : %

| 구분 | | 전혀 없다 | 약간 있다 | 어느 정도 있다 | 상당히 많다 | 매우 많다 | 평균 (100점 환산) |
|-----|------|-------|-------|----------|--------|-------|-----------------|
| 고등어 | | 6.0 | 19.8 | 50.4 | 22.3 | 1.6 | 48.4 |
| 새우 | | 8.9 | 21.9 | 44.4 | 22.4 | 2.4 | 48.5 |
| 연어 | | 4.1 | 20.0 | 54.9 | 19.5 | 1.4 | 46.9 |
| 오징어 | 진미채 | 5.5 | 16.4 | 53.7 | 23.8 | 0.5 | 49.4 |
| | 버터구이 | 4.5 | 16.8 | 53.6 | 24.1 | 0.9 | 50.0 |
| 명태 | 코다리 | 14.7 | 15.2 | 42.9 | 24.3 | 2.9 | 46.4 |
| | 게맛살 | 4.7 | 17.7 | 52.8 | 22.2 | 2.6 | 50.1 |

수입수산물의 선택의 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어느 정도 있다’의 응답률이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산과 수입산 모두를 포함한 수산물 시장 전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에서는 선택의 폭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수입수산물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선택의 폭 확대에 기여하였지만, 특정 수입수산물의 상품이 다양해졌다고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원산지 확인 정도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확인 정도는 고등어, 연어, 새우 등은 원물 그대로 조리하여 소비하는 특성상 활·신선냉장·냉동품이 가공품보다 원산지 확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5-17〉 주요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확인 정도

단위 : %

| 구분 | | 확인하지 않는 편 | | 반 정도 | 확인하는 편 | | 평균 (100점 환산) |
|-----|------|-----------|------|------|--------|------|-----------------|
| | | 전혀 | 가끔 | | 대부분 | 항상 | |
| 고등어 | | 0.3 | 0.7 | 27.3 | 49.1 | 16.3 | 68.5 |
| 새우 | | 0.9 | 7.4 | 30.8 | 45.7 | 15.2 | 66.7 |
| 연어 | | 0.9 | 6.9 | 25.4 | 49.4 | 17.4 | 68.9 |
| 오징어 | 진미채 | 5.0 | 9.7 | 37.5 | 38.9 | 9.0 | 59.3 |
| | 버터구이 | 10.0 | 17.7 | 41.4 | 25.9 | 5.0 | 49.5 |
| 명태 | 코다리 | 2.7 | 9.2 | 31.3 | 44.6 | 12.3 | 63.7 |
| | 게맛살 | 12.5 | 17.0 | 40.8 | 24.1 | 5.7 | 48.3 |

4) 특정 원산지 재구매 의사

구매한 수입수산물의 특정 원산지에 대해 재구매 의사를 조사한 결과, 연어가 69.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등어(64.7점), 새우(64.6점), 코다리(64.2점), 진미채(61.0점), 게맛살(60.0점), 버터구이오징어(59.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어와 고등어의 경우 노르웨이산이 대부분 수입되는데, 노르웨이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가공품인 진미채, 게맛살 등은 원산지에 대한 충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18〉 주요 수입수산물의 특정 원산지 재구매 의사

단위 : %

| 구분 | 부정적 | | 반 정도 | 긍정적 | | 평균 (100점 환산) |
|-----|-----------|--------|------|-------|---------|-----------------|
| | 절대 재구매 안함 | 재구매 안함 | | 재구매 함 | 꼭 다시 구입 | |
| 고등어 | 0.8 | 2.5 | 37.9 | 54.7 | 4.2 | 64.7 |
| 새우 | 0.1 | 1.8 | 40.1 | 55.7 | 2.3 | 64.6 |
| 연어 | - | 1.3 | 26.8 | 66.7 | 5.2 | 69.0 |
| 오징어 | 진미채 | 0.5 | 4.1 | 47.8 | 1.7 | 61.0 |
| | 버터구이 | - | 5.5 | 52.7 | 2.3 | 59.7 |
| 명태 | 코다리 | - | 3.6 | 37.8 | 1.9 | 64.2 |
| | 게맛살 | - | 4.7 | 52.6 | 1.9 | 60.0 |

5) 과거 대비 수입수산물 구매 변화

고등어, 새우, 오징어 가공품에 대해 2~3년 전 대비 수입산 구매 비율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등어, 새우는 과거보다 수입산 구매가 증가하였고, 오징어 가공품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9〉 주요 수입수산물의 과거 대비 구매 변화

단위 : %

| 구분 | 부정적 | | | 변화 없음 | 긍정적 | | | 평균 (100점 환산) |
|-----|-------|-----|-------|----------|-------|------|-------|-----------------|
| | 많이 감소 | 감소 | 약간 감소 | | 약간 증가 | 증가 | 많이 증가 | |
| 고등어 | 0.3 | 1.0 | 6.6 | 35.7 | 41.3 | 12.8 | 2.3 | 60.7 |
| 새우 | 0.2 | 1.2 | 3.1 | 35.9 | 43.5 | 12.7 | 3.4 | 62.2 |
| 오징어 | 진미채 | 0.2 | 1.7 | 43.9 | 34.4 | 9.2 | 1.9 | 57.6 |
| | 버터구이 | - | 4.5 | 6.8 | 50.9 | 25.9 | 9.5 | 56.0 |

6) 수입수산물의 구매 비중

총 10회 중에서 수입수산물 구매 횟수는 새우가 6.6회, 오징어 6.1회, 고등어 5.5회로 평균(5회)보다 많았다. 특히 국내에서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어종인 고등어와 오징어도 상품성 저하, 생산량 감소 등으로 수입산에 대한 의존이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5-20〉 수입수산물의 구매 횟수(총 10회 중)

| 고등어 | 새우 | 오징어 |
|------|------|------|
| 5.5회 | 6.6회 | 6.1회 |

4.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1) 수산물 구입일반

원산지 확인 정도를 활·신선냉장·냉동품과 가공품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연령과 소득수준에 대해서는 모두 높을수록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확인되었다. 연령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에 관심이 많고 안전성과 품질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산과 수입산의 품질 차이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대체로 연령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많았고, 반대로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연령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많았다. 즉 국산에 대한 충성도가 연령과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5-21〉 원산지 확인 정도-성별·연령별·소득별 특징

단위 : %

| 구분 | | 활/신선냉장/생동품 | | | 가공품 | | |
|----|--------------|---------------------|------|------------------|---------------------|------|------------------|
| | | 원산지 확인하지 않는 편 | 반반 | 원산지 확인하는 편 | 원산지 확인하지 않는 편 | 반반 | 원산지 확인하는 편 |
| 성별 | 여자 | 5.3 | 23.5 | 71.3 | 11.3 | 25.0 | 63.6 |
| | 남자 | 7.8 | 22.0 | 70.2 | 12.8 | 29.0 | 58.2 |
| 연령 | 20대 | 5.1 | 31.4 | 63.5 | 17.9 | 27.4 | 54.7 |
| | 30대 | 7.7 | 21.9 | 70.4 | 14.0 | 29.3 | 56.7 |
| | 40대 | 7.1 | 19.2 | 73.6 | 9.0 | 26.6 | 64.4 |
| | 50대 | 5.2 | 21.4 | 73.5 | 8.9 | 23.9 | 67.1 |
| 소득 | 300만원 미만 | 7.8 | 36.7 | 55.5 | 16.1 | 35.3 | 48.6 |
| | 300-500만원 미만 | 7.1 | 21.0 | 72.0 | 12.7 | 26.6 | 60.8 |
| | 500-700만원 미만 | 5.4 | 21.7 | 72.9 | 11.5 | 26.5 | 62.0 |
| | 700만 원 이상 | 5.2 | 18.1 | 76.7 | 8.4 | 21.0 | 70.6 |

〈표 5-22〉 국산과 수입산의 품질 차이 인식-성별·연령별·소득별 특징

단위 : %

| 구분 | | 국산과 수입산(중국산 포함)이 차이 없다 | 중국산을 제외하면 국산과 수입산이 차이 없다 | 중국산을 제외하더라도 국산과 수입산이 차이 있다 |
|----|---------------|---------------------------|--------------------------------|----------------------------------|
| 성별 | 여자 | 23.9 | 36.3 | 39.8 |
| | 남자 | 25.5 | 33.8 | 40.7 |
| 연령 | 20대 | 27.0 | 39.5 | 33.4 |
| | 30대 | 25.3 | 37.5 | 37.2 |
| | 40대 | 22.8 | 34.7 | 42.5 |
| | 50대 | 23.9 | 30.8 | 45.3 |
| 소득 | 300만 원 미만 | 29.4 | 40.4 | 30.3 |
| | 300-500만 원 미만 | 23.9 | 37.3 | 38.9 |
| | 500-700만 원 미만 | 21.3 | 34.2 | 44.6 |
| | 700만 원 이상 | 27.2 | 29.4 | 43.4 |

2) FTA 이후 국내 수산물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

FTA 이후 국내 수산물 시장 전반의 소비자 인식에 대하여 성별·연령별·소득별·지역별 교차분석을 하였다.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하여 긍정적(‘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7.8%p 높게 나타난 반면에, ‘변화 없다’의 비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9.2%p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연령과 소득수준이 대체로 비례한다고 본다면 구매력이 큰 소비자가 다양한 종류의 수산물을 소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7.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 광주, 대전 등의 순으로 도시 규모에 비례하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입수산물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유통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5-23〉 FTA 이후 전반적 만족도-성별·연령별·소득별·지역별 특징

단위 : %

| 구분 | | 부정적 | | | 변화없음 | 긍정적 | | |
|----|---------------|--------|-----|--------|------|--------|------|--------|
| |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약간 아니다 | | 약간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성별 | 여자 | 0.4 | 1.9 | 7.2 | 39.5 | 36.5 | 12.7 | 1.8 |
| | 남자 | 0.8 | 1.4 | 8.7 | 30.3 | 40.9 | 15.7 | 2.2 |
| 연령 | 20대 | 0.3 | 1.7 | 8.1 | 38.5 | 36.5 | 11.8 | 3.0 |
| | 30대 | 1.3 | 1.3 | 7.7 | 36.7 | 39.8 | 11.6 | 1.6 |
| | 40대 | 0.0 | 1.4 | 8.8 | 33.3 | 39.4 | 15.0 | 2.1 |
| | 50대 | 0.7 | 2.3 | 6.8 | 35.2 | 37.1 | 16.4 | 1.4 |
| 소득 | 300만 원 미만 | 0.9 | 0.9 | 11.0 | 41.3 | 33.0 | 11.5 | 1.4 |
| | 300-500만 원 미만 | 0.2 | 2.4 | 7.2 | 36.0 | 39.2 | 13.6 | 1.4 |
| | 500-700만 원 미만 | 1.1 | 1.6 | 6.3 | 33.9 | 42.1 | 12.4 | 2.5 |
| | 700만 원 이상 | 0.3 | 1.3 | 8.7 | 33.7 | 35.0 | 18.4 | 2.6 |
| 지역 | 서울 | 0.7 | 2.1 | 7.8 | 32.0 | 39.3 | 16.0 | 2.1 |
| | 인천 | 0.0 | 1.9 | 6.2 | 41.6 | 41.0 | 8.7 | 0.6 |
| | 대구 | 1.0 | 2.0 | 10.4 | 37.1 | 34.2 | 13.9 | 1.5 |
| | 대전 | 0.0 | 0.0 | 4.9 | 42.7 | 35.9 | 13.6 | 2.9 |

| 구분 | | 부정적 | | | 변화없음 | 긍정적 | | |
|----|----|--------|-----|--------|------|--------|------|--------|
| |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약간 아니다 | | 약간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지역 | 부산 | 1.3 | 1.3 | 7.1 | 35.0 | 40.4 | 12.5 | 2.5 |
| | 광주 | 0.0 | 1.0 | 5.8 | 38.8 | 37.9 | 14.6 | 1.9 |
| | 울산 | 0.0 | 2.0 | 12.0 | 37.0 | 34.0 | 13.0 | 2.0 |

품질 만족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성별, 연령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품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고소득자일수록 고품질의 수입수산물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품질 만족도는 서울이 59.9%로 가장 높아 전반적인 만족도와 같은 이유로 판단된다.

〈표 5-24〉 FTA 이후 품질 만족도-성별·연령별·소득별·지역별 특징

단위 : %

| 구분 | | 부정적 | | | 변화없음 | 긍정적 | | |
|----|---------------|--------|-----|--------|------|--------|------|--------|
| |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약간 아니다 | | 약간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성별 | 여자 | 0.4 | 0.9 | 5.7 | 39.1 | 41.2 | 11.2 | 1.5 |
| | 남자 | 0.5 | 1.6 | 6.5 | 36.1 | 40.6 | 12.5 | 2.2 |
| 연령 | 20대 | 0.3 | 0.3 | 7.1 | 38.5 | 38.2 | 12.5 | 3.0 |
| | 30대 | 0.5 | 2.4 | 4.2 | 37.2 | 44.1 | 9.8 | 1.8 |
| | 40대 | 0.0 | 1.0 | 6.7 | 38.2 | 39.9 | 12.8 | 1.4 |
| | 50대 | 0.9 | 0.9 | 6.3 | 37.6 | 41.1 | 12.0 | 1.2 |
| | 60대 | 0.0 | 0.0 | 0.0 | 33.3 | 66.7 | 0.0 | 0.0 |
| 소득 | 300만 원 미만 | 0.0 | 1.4 | 6.9 | 46.3 | 33.9 | 10.6 | 0.9 |
| | 300~500만 원 미만 | 0.5 | 2.0 | 5.8 | 37.8 | 42.7 | 9.6 | 1.6 |
| | 500~700만 원 미만 | 0.7 | 0.5 | 5.7 | 34.6 | 44.1 | 12.2 | 2.3 |
| | 700만 원 이상 | 0.3 | 0.6 | 6.5 | 36.6 | 38.2 | 15.9 | 1.9 |
| 지역 | 서울 | 0.7 | 0.7 | 5.7 | 33.1 | 43.4 | 14.7 | 1.8 |
| | 인천 | 0.6 | 1.9 | 6.8 | 38.5 | 42.2 | 8.7 | 1.2 |
| | 대구 | 0.5 | 2.0 | 8.4 | 36.6 | 40.6 | 10.4 | 1.5 |
| | 대전 | 0.0 | 0.0 | 1.0 | 46.6 | 38.8 | 12.6 | 1.0 |
| | 부산 | 0.4 | 1.3 | 6.3 | 43.8 | 37.5 | 7.5 | 3.3 |
| | 광주 | 0.0 | 1.0 | 3.9 | 44.7 | 37.9 | 12.6 | 0.0 |
| | 울산 | 0.0 | 3.0 | 9.0 | 38.0 | 38.0 | 10.0 | 2.0 |

가격에 대한 만족도는 성별·연령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는데, 소득수준에 따라 체감하는 수산물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어, 바닷가재 등 가격이 높은 고품질의 수입수산물이 FTA 이후 가격 면에서 혜택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0.4%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표 5-25〉 FTA 이후 가격 만족도-성별·연령별·소득별·지역별 특징

단위: %

| 구분 | | 부정적 | | | 변화없음 | 긍정적 | | |
|----|--------------|--------|-----|--------|------|--------|------|--------|
| |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약간 아니다 | | 약간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성별 | 여자 | 1.5 | 4.8 | 11.8 | 37.0 | 34.0 | 9.1 | 1.8 |
| | 남자 | 1.9 | 4.8 | 10.8 | 33.0 | 36.1 | 10.9 | 2.5 |
| 연령 | 20대 | 1.4 | 3.0 | 13.9 | 35.5 | 34.1 | 9.8 | 2.4 |
| | 30대 | 1.6 | 4.5 | 11.1 | 38.5 | 31.9 | 10.3 | 2.1 |
| | 40대 | 1.0 | 6.2 | 9.7 | 34.0 | 36.8 | 10.2 | 2.1 |
| | 50대 | 2.6 | 4.9 | 11.5 | 33.8 | 36.2 | 9.2 | 1.9 |
| 소득 | 300만원 미만 | 0.5 | 5.5 | 15.1 | 45.0 | 23.4 | 9.6 | 0.9 |
| | 300-500만원 미만 | 1.6 | 6.9 | 10.8 | 34.7 | 34.7 | 10.1 | 1.1 |
| | 500-700만원 미만 | 1.8 | 2.9 | 12.2 | 32.1 | 39.4 | 8.6 | 2.9 |
| | 700만원 이상 | 2.3 | 3.2 | 8.4 | 34.3 | 36.9 | 11.3 | 3.6 |
| 지역 | 서울 | 2.3 | 4.9 | 10.6 | 31.8 | 37.5 | 10.4 | 2.4 |
| | 인천 | 0.6 | 6.2 | 10.6 | 34.8 | 39.8 | 6.8 | 1.2 |
| | 대구 | 1.5 | 5.4 | 13.9 | 39.6 | 28.7 | 7.4 | 3.5 |
| | 대전 | 1.0 | 4.9 | 9.7 | 39.8 | 30.1 | 11.7 | 2.9 |
| | 부산 | 1.7 | 3.8 | 13.3 | 35.4 | 32.5 | 12.1 | 1.3 |
| | 광주 | 1.0 | 1.9 | 8.7 | 42.7 | 34.0 | 11.7 | 0.0 |
| | 울산 | 1.0 | 6.0 | 12.0 | 37.0 | 35.0 | 7.0 | 2.0 |

선택의 폭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았다. 또한 연령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품질과 가격 측면과 마찬가지로 체감하는 수산물 소비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1.6%로 가장 높았다.

〈표 5-26〉 FTA 이후 선택의 폭 만족도-성별·연령별·소득별·지역별 특징

단위 : %

| 구분 | | 부정적 | | | 변화없음 | 긍정적 | | |
|----|---------------|--------|-----|--------|------|--------|------|--------|
| |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약간 아니다 | | 약간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성별 | 여자 | 0.3 | 1.1 | 6.1 | 25.9 | 47.4 | 16.3 | 2.9 |
| | 남자 | 0.6 | 1.1 | 5.7 | 22.5 | 44.8 | 21.2 | 4.0 |
| 연령 | 20대 | 0.3 | 0.7 | 7.8 | 26.4 | 43.6 | 15.5 | 5.7 |
| | 30대 | 0.8 | 1.6 | 6.6 | 27.4 | 47.2 | 14.5 | 1.8 |
| | 40대 | 0.0 | 1.0 | 4.5 | 21.6 | 49.6 | 20.7 | 2.6 |
| | 50대 | 0.7 | 1.2 | 5.4 | 23.5 | 44.1 | 21.4 | 3.8 |
| 소득 | 300만 원 미만 | 0.9 | 0.9 | 9.2 | 33.9 | 39.9 | 13.3 | 1.8 |
| | 300-500만 원 미만 | 0.0 | 1.4 | 5.4 | 25.3 | 47.6 | 17.0 | 3.3 |
| | 500-700만 원 미만 | 0.7 | 0.7 | 5.7 | 20.1 | 49.3 | 20.1 | 3.4 |
| | 700만 원 이상 | 0.6 | 1.3 | 4.9 | 22.7 | 44.3 | 21.7 | 4.5 |
| 지역 | 서울 | 0.8 | 1.5 | 6.7 | 19.4 | 46.8 | 21.2 | 3.6 |
| | 인천 | 0.0 | 1.9 | 5.0 | 27.3 | 48.4 | 14.9 | 2.5 |
| | 대구 | 0.5 | 2.5 | 7.9 | 23.3 | 42.1 | 19.8 | 4.0 |
| | 대전 | 0.0 | 0.0 | 5.8 | 27.2 | 45.6 | 16.5 | 4.9 |
| | 부산 | 0.4 | 0.0 | 4.2 | 30.4 | 46.7 | 15.4 | 2.9 |
| | 광주 | 0.0 | 0.0 | 1.9 | 37.9 | 43.7 | 15.5 | 1.0 |
| | 울산 | 0.0 | 0.0 | 7.0 | 23.0 | 51.0 | 15.0 | 4.0 |

3) 주요 수입수산물의 구매 행태 및 소비자 인식

수입 고등어·새우·연어에 대해 품목별 구매 행태 및 소비자 만족도를 성별·연령별·소득별 교차분석을 하였다.

(1) 고등어

수입 고등어 구입 응답자의 79.2%가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구입하였고, 노르웨이산 구입 이유는 1위가 '가격'(28.1%), 2위가 '안전성'(22.2%)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산 고등어 구입 이유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가격'과 '안전성' 등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응답률이 높았던 반면, 여성은 '신선도', '할인행사', '해

당 원산지만 존재’ 등에서 남성보다 높았다.

노르웨이산의 구입 이유는 연령이 낮을수록 ‘가격’과 ‘할인 행사’의 응답률이 높은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안전성’과 ‘신선도’가 높았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격’과 ‘할인 행사’를 이유로 노르웨이산을 구입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안전성’과 ‘신선도’를 이유로 구입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5-27〉 노르웨이산 고등어 구입 이유-성별 특징

단위 : %

| 구분 | 여자 | 남자 |
|----------------|------|------|
| 신선도 | 15.4 | 12.5 |
| 가격 | 25.8 | 31.2 |
| 안전성(원산지 신뢰성) | 19.7 | 25.5 |
| 포장 단위가 마음에 들어서 | 5.5 | 5.7 |
| 판매원 추천 | 4.9 | 6.5 |
| 할인 행사 | 14.5 | 11.8 |
| 해당 원산지 제품만 존재 | 13.9 | 6.8 |
| 기타 | 0.3 | 0.0 |

〈표 5-28〉 노르웨이산 고등어 구입 이유-연령별 특징

단위 : %

| 구분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
| 신선도 | 13.1 | 9.9 | 14.4 | 18.1 |
| 가격 | 31.3 | 30.9 | 30.0 | 22.0 |
| 안전성(원산지 신뢰성) | 15.2 | 20.4 | 21.7 | 28.2 |
| 포장 단위가 마음에 들어서 | 4.0 | 5.9 | 5.6 | 6.2 |
| 판매원 추천 | 5.1 | 7.9 | 4.4 | 5.1 |
| 할인 행사 | 20.2 | 14.5 | 12.8 | 9.0 |
| 해당 원산지 제품만 존재 | 11.1 | 10.5 | 11.1 | 10.7 |
| 기타 | 0.0 | 0.0 | 0.0 | 0.6 |

〈표 5-29〉 노르웨이산 고등어 구입 이유-소득별 특징

단위 : %

| 구분 | 100만 원 미만 | 100만 원대 | 200만 원대 | 300만 원대 | 400만 원대 | 500만 원대 | 600만 원대 | 700만 원대 | 800만 원 이상 |
|----------------|--------------|------------|------------|------------|------------|------------|------------|------------|--------------|
| 신선도 | 10.0 | 11.1 | 15.4 | 12.6 | 14.3 | 14.7 | 15.1 | 15.2 | 13.6 |
| 가격 | 40.0 | 33.3 | 36.5 | 24.2 | 30.8 | 36.3 | 23.3 | 17.4 | 21.6 |
| 안전성(원산지 신뢰성) | 10.0 | 11.1 | 13.5 | 29.5 | 21.1 | 11.8 | 21.9 | 30.4 | 31.8 |
| 포장 단위가 마음에 들어서 | 10.0 | 0.0 | 5.8 | 5.3 | 4.5 | 6.9 | 4.1 | 6.5 | 6.8 |
| 판매원 추천 | 10.0 | 11.1 | 5.8 | 5.3 | 6.0 | 7.8 | 6.8 | 2.2 | 2.3 |
| 할인 행사 | 0.0 | 11.1 | 11.5 | 15.8 | 14.3 | 14.7 | 16.4 | 10.9 | 9.1 |
| 해당 원산지 제품만 존재 | 20.0 | 22.2 | 11.5 | 7.4 | 9.0 | 7.8 | 12.3 | 17.4 | 13.6 |
| 기타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1.1 |

가구원수별로 살펴보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포장 단위가 마음에 들어서’에 따른 구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 물 등에서 조리가 간편하도록 손질하여 개별로 진공 포장하여 판매하는 상품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5-30〉 노르웨이산 고등어 구입 이유-가구원수별 특징

단위 : %

| 구분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이상 |
|----------------|------|------|------|------|------|-------|
| 신선도 | 6.8 | 17.7 | 12.0 | 15.9 | 13.5 | 14.3 |
| 가격 | 40.9 | 22.6 | 29.9 | 25.0 | 38.5 | 0.0 |
| 안전성(원산지 신뢰성) | 27.3 | 12.9 | 21.0 | 25.7 | 13.5 | 28.6 |
| 포장 단위가 마음에 들어서 | 2.3 | 4.8 | 6.0 | 5.1 | 11.5 | 0.0 |
| 판매원 추천 | 6.8 | 8.1 | 4.8 | 5.4 | 5.8 | 0.0 |
| 할인 행사 | 11.4 | 16.1 | 12.6 | 13.8 | 9.6 | 28.6 |
| 해당 원산지 제품만 존재 | 4.5 | 17.7 | 13.8 | 8.7 | 7.7 | 28.6 |
| 기타 | 0.0 | 0.0 | 0.0 | 0.4 | 0.0 | 0.0 |

(2) 새우

수입 새우 구입 응답자의 64.6%가 ASEAN산(태국·베트남)을 구입하였으며, ASEAN산(태국·베트남) 구입 이유는 1위가 가격(45.5%), 2위가 신선도(15.5%)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가격’으로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12.7%p 높았다. 연령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20대의 경우 가격(‘할인 행사’ 포함)에 높은 응답률이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젊은층에서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31〉 ASEAN산(베트남·태국) 새우 구입 이유-성별 특징

단위 : %

| 구분 | 여자 | 남자 |
|----------------|------|------|
| 신선도 | 14.4 | 12.2 |
| 가격 | 44.9 | 57.6 |
| 안전성(원산지 신뢰성) | 4.2 | 5.6 |
| 포장 단위가 마음에 들어서 | 11.0 | 6.3 |
| 판매원 추천 | 3.1 | 3.5 |
| 할인 행사 | 11.9 | 9.0 |
| 해당 원산지 제품만 존재 | 10.2 | 5.9 |
| 기타 | 0.3 | 0.0 |

〈표 5-32〉 ASEAN산(베트남·태국) 새우 구입 이유-연령별 특징

단위 : %

| 구분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
| 신선도 | 9.7 | 13.2 | 12.7 | 16.6 |
| 가격 | 46.0 | 47.8 | 55.0 | 51.4 |
| 안전성(원산지 신뢰성) | 5.3 | 6.3 | 3.2 | 5.0 |
| 포장 단위가 마음에 들어서 | 14.2 | 10.1 | 7.9 | 5.5 |
| 판매원 추천 | 2.7 | 3.8 | 2.6 | 3.9 |
| 할인 행사 | 15.9 | 10.1 | 12.2 | 6.1 |
| 해당 원산지 제품만 존재 | 6.2 | 8.2 | 6.3 | 11.6 |
| 기타 | 0.0 | 0.6 | 0.0 | 0.0 |

가구원수별 특징을 살펴보면, 가구원수가 1명 혹은 2명인 경우, 포장 단위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1~2인 가구를 겨냥한 소포장 식품 증가와 관련이 깊다고 판단된다.

〈표 5-33〉 ASEAN산(베트남·태국) 새우 구입 이유-가구원수별 특징

단위 : %

| 구분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이상 |
|----------------|------|------|------|------|------|-------|
| 신선도 | 6.7 | 10.6 | 12.8 | 15.2 | 17.0 | 16.7 |
| 가격 | 64.4 | 42.4 | 54.6 | 49.0 | 42.6 | 66.7 |
| 안전성(원산지 신뢰성) | 2.2 | 1.2 | 6.6 | 3.8 | 12.8 | 0.0 |
| 포장 단위가 마음에 들어서 | 11.1 | 16.5 | 6.6 | 8.4 | 6.4 | 0.0 |
| 판매원 추천 | 2.2 | 3.5 | 2.0 | 4.6 | 2.1 | 0.0 |
| 할인 행사 | 8.9 | 12.9 | 8.7 | 12.2 | 8.5 | 0.0 |
| 해당 원산지 제품만 존재 | 4.4 | 12.9 | 8.7 | 6.5 | 10.6 | 16.7 |
| 기타 | 0.0 | 0.0 | 0.0 | 0.4 | 0.0 | 0.0 |

(3) 연어

연어의 상품형태별 소비유형을 살펴보면, 신선·냉장 연어는 주로 회(43.3%)로 소비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샐러드(2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냉동연어는 샐러드(41.6%)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구이나 스테이크(3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 연어 구입 응답자의 80.1%가 노르웨이산을 구입하였다. 노르웨이산 연어 구입 이유는 1위가 신선도(33.6%), 2위가 안전성(23.6%) 등으로 나타났으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선·냉장 연어와 냉동연어 모두 회나 샐러드 등으로 주로 소비되므로 신선도와 안전성을 고려하여 연어를 구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르웨이산 연어의 성별에 따른 구입 이유를 살펴보면, ‘안전성’에 대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9.3%p 높았다.

〈표 5-34〉 연어의 상품형태별 소비유형

단위 : %

| 구분 | 회 | 샐러드 | 초밥 | 구이/스테이크 |
|-------|------|------|------|---------|
| 신선·냉장 | 43.3 | 24.5 | 10.3 | 21.5 |
| 냉동 | 19.5 | 41.6 | 7.2 | 31.7 |

〈표 5-35〉 노르웨이산 연어 구입 이유-성별 특징

단위 : %

| 구분 | 여자 | 남자 |
|----------------|------|------|
| 신선도 | 34.2 | 32.8 |
| 가격 | 21.0 | 19.9 |
| 안전성(원산지 신뢰성) | 19.9 | 29.1 |
| 포장 단위가 마음에 들어서 | 8.0 | 6.0 |
| 판매원 추천 | 1.8 | 0.3 |
| 할인 행사 | 5.4 | 6.0 |
| 해당 원산지 제품만 존재 | 9.6 | 6.0 |
| 기타 | 0.2 | 0.0 |

연령별로 살펴보면, ‘신선도’와 ‘안전성’라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 반면, ‘가격’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경제력이 있는 고연령·고소득의 경우 신선도와 안전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젊은 층일수록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별 결과도 연령별 결과와 비슷한데, ‘신선도’와 ‘안전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높은 반면에, ‘가격’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

〈표 5-36〉 노르웨이산 연어 구입 이유-연령별 특징

단위 : %

| 구분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
| 신선도 | 34.2 | 30.8 | 34.0 | 35.6 |
| 가격 | 25.3 | 21.5 | 18.2 | 18.1 |
| 안전성(원산지 신뢰성) | 17.7 | 20.5 | 26.8 | 28.2 |
| 포장 단위가 마음에 들어서 | 7.0 | 10.8 | 5.3 | 5.9 |
| 판매원 추천 | 0.6 | 1.5 | 1.9 | 0.5 |
| 할인 행사 | 5.7 | 6.7 | 6.7 | 3.2 |
| 해당 원산지 제품만 존재 | 9.5 | 7.7 | 7.2 | 8.5 |
| 기타 | 0.0 | 0.5 | 0.0 | 0.0 |

〈표 5-37〉 노르웨이산 연어 구입 이유-소득별 특징

단위 : %

| 구분 | 100만 원 미만 | 100만 원대 | 200만 원대 | 300만 원대 | 400만 원대 | 500만 원대 | 600만 원대 | 700만 원대 | 800만 원 이상 |
|----------------|--------------|------------|------------|------------|------------|------------|------------|------------|--------------|
| 신선도 | 12.5 | 28.6 | 26.4 | 38.8 | 29.6 | 35.5 | 31.6 | 39.4 | 37.9 |
| 가격 | 37.5 | 57.1 | 23.6 | 19.4 | 20.4 | 21.8 | 24.5 | 9.9 | 15.5 |
| 안전성(원산지 신뢰성) | 25.0 | 14.3 | 26.4 | 20.4 | 23.5 | 17.7 | 25.5 | 31.0 | 26.2 |
| 포장 단위가 마음에 들어서 | 0.0 | 0.0 | 11.1 | 4.1 | 9.3 | 9.7 | 3.1 | 8.5 | 5.8 |
| 판매원 추천 | 0.0 | 0.0 | 1.4 | 1.0 | 1.9 | 0.8 | 1.0 | 0.0 | 1.9 |
| 할인 행사 | 12.5 | 0.0 | 5.6 | 7.1 | 3.7 | 6.5 | 7.1 | 5.6 | 4.9 |
| 해당 원산지 제품만 존재 | 12.5 | 0.0 | 5.6 | 9.2 | 11.7 | 7.3 | 7.1 | 5.6 | 7.8 |
| 기타 | 0.0 | 0.0 | 0.0 | 0.0 | 0.0 | 0.8 | 0.0 | 0.0 | 0.0 |

제3절 소결

FTA 이후 국내 수산물 시장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는 약 60점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택의 폭 확대’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다음으로 ‘품질 향상’, ‘가격 하락’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 수입수산물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연어와 고등어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가공품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선택의 폭, 품질이 가격 측면에 비해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수입수산물에 대해 선도 및 안전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 대상 수산물에 대해 대형할인점에서 구매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일반 소비자에게는 가장 보편적인 유통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징적으로 2순위 구입처는 품목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고급수산물로 인식되는 연어는 백화점, 고등어는 인터넷 쇼핑몰 및 홈쇼핑, 버터구이오징어 및 게맛살은 구입 편의성이 높은 편의점 또는 동네슈퍼마켓, 새우, 진미채, 코다리는 재래시장이었다.

구매 수산물의 원산지는 고등어와 연어가 노르웨이산, 새우가 태국산과 베트남산이 대부분이었다. 가공품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뚜렷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원산지 선택 이유는 가격이 저렴해서 수입산을 구입한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지만 신선도 및 안전성 등 품질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수산물의 품목별 특정 원산지 구입 이유와 성별·연령별·소득별 특징을 살펴본 결과, 노르웨이산 고등어의 주 구입 이유는 ‘가격’과 ‘안전성’이었고 남성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하였다. ASEAN산 새우는 ‘가격’이 주된 구매 이유이지만, 남성보다 여성이 신선도 측면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산 연어는 주로 회나 샐러드로 소비되기 때문에 신선도와 안전성을 중요시하는데, 특히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안전성을 더욱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고등어·새우·연어 모두 연령과 소득이 높을수록 ‘안전성’과 ‘신선도’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구매력이 높은 고연령·고소득층의 고급수산물 소비가 많아 가격보다는 안전성과 신선도를 이유로 수입수산물을 소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수입수산물 구입 시 가격 요소뿐 아니라 품질 요소도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국산이 수입산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품질 측면에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6장

요약 및 결론 ≪

제1절 분석 결과 요약

본 연구는 FTA 발효 이후 크게 증가한 수입수산물의 유통·소비 현황을 살펴 보고 수산물 무역, 국내 시장, 상대국 수출에 대한 영향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은 새우, 명태, 연어, 오징어, 고등어로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많으면서 대중적인 수산물이다.

유통 현황 조사에서 새우는 다수의 영세한 수입업체 중심으로 수입되고 있어 현지 수출업체에 대한 구매 교섭력이 떨어지고 급작스런 시장 상황 변화에 대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우의 TRQ 공매 제도는 입찰 경쟁을 통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 환수와 국내 시장 보호에 효과적이지만 수입업체의 위험 부담이 커서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명태는 합작 물량에 대한 경매 제도가 한-미 FTA로 관세가 철폐되는 경우 역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연어 또한 새우와 마찬가지로 수입업체 간 경쟁이 심하여 현지 수출업체에 대한 교섭력이 떨어지고, 국내 수요 증가와 함께 노르웨이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관세 인하 혜택의 상당 부분이 수출업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명태연육과 오징어는 주로 가공업체를 통해 수입되어 관세 인하의 효과를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징어 가공업체는 영세하고 대기업 급식업체와 대형할인점과 주로 거래하는데, 최근 원물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지만 교섭력 열세로 이를 반영하기 힘들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산 고등어는 피레트 형태로 가공하여 유통되고 있으며 산지 중심으로 유통되는 국산과 달리 수도권 등 주요 소비지를 중심으로 대형할인점, 인터넷·홈쇼핑, 소매점으로 유통되어 현재 양질의 상품 공급이 부족한 국산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TA로 인한 무역 효과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로 구분되는데, 고등어는 TRQ 물량이 미미하여 무역창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새우, 명태, 연어, 오징어에서는 나타나 FTA가 수입 증가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태, 연어, 고등어에서 무역전환효과가 확인되었는데, 이들 품목이 전체적으로는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무역창출효과가 전환효과보다 크며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의 후생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FTA 수입물량과 가격 간의 인과성 분석에서는 새우와 오징어에서 국산 가격이 수입물량으로 향하는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들 두 품목은 국내 수요 증가, 생산 감소 등 국내 시장의 여건이 달라짐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수급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가격 변화 분석에서는 EFTA(노르웨이)산 연어에서 FTA 발효 이후 對한국 수출가격이 對세계 수출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관세 인하의 효과가 수출업자에게 일정부분 흡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 FTA 이후 국내 수산물 시장 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이상으로 비교적 만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선택의 폭 확대’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다음으로 ‘품질 향상’, ‘가격 하락’의 순이었다. 즉 소비자들은 FTA로 인해 수입수산물이 늘어나면서 국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품목별 수입수산물에 대한 만족도는 연어와 고등어가 높은 편이고, 명태·오징어의 가공품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구매 수산물의 원산지는 고등어와 연어가 노르웨이산, 새우가 태국산과 베트남산이 대부분이었고, 원산지 선택 시 가격뿐만 아니라 신선도, 안전성도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다만, 가공품은 원산지를 잘 인지하지 않고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정책 제언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은 수산물 생산의 정체 속에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효된 FTA 영향도 크게 작용하였는데, 2016년 현재 FTA 체결국산 수입이 전체 수입의 약 70%를 차지한다. FTA로 인한 무역 창출로 수산물 수입이 확대되면서 국내 생산 정체 또는 감소에 의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늘어나고 있는 수산물 수요를 충족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소비자 후생 또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FTA 상대국 수출업체의 독과점적 지위, 교섭력이 약한 영세 수입업체의 경쟁 심화 등으로 기대한 만큼 FTA 효과가 발현되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TA가 계속 이행되고 신규 FTA가 체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자 보호뿐만 아니라 소비자 측면에서 FTA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산물 수입 시장에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즉 현지 수출 단계, 수입 단계, 국내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FTA의 관세 인하 효과가 독과점에 의한 유통마진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방안으로 수입선 다변화, 수입업체의 교섭력 강화, 국내 유통업체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감시 및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여 정보 독점에 의한 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세부 방안으로 수입수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 및 확산, 유통이력관리제도의 확대 및 활용성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수입수산물에 대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산·유통 측면에서 국산 수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입산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 확인하였듯이 국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충성도가 높으나 수입수산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산의 상품성이 저하되고 생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우리나라 수산업 정책 전반에 걸친 큰 목표이고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큰 방향에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선 다변화

FTA 발효로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노르웨이산 연어와 같이 수출업체의 교섭력이 큰 경우 수출가격 상승을 통해 관세 인하의 효과를 흡수할 수 있고, 수입업체 간 경쟁이 과열되면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체의 도입 가격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FTA를 통한 소비자의 후생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수입선을 다변화하여 수출상대국 간 경쟁을 통해 수출가격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어와 고등어는 노르웨이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데, FTA 체결국이면서 수출국인 캐나다, 뉴질랜드 등으로 수입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비근한 예로 바닷가재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에 수입이 집중되어 있으나 수입시장에서 두 나라 간 경쟁구도를 조성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향후 한-미 FTA 이행으로 명태(냉동)가 자유화되면 러시아산과 경쟁구도를 형성해 명태 수입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수입선 다변화는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 관리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수산질병이나 기후변화로 상대국의 생산이 급감하는 상황은 최근의 연어, 새우 등의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새우의 경우 베트남, 태국, 에콰도르, 중국, 아르헨티나, 인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되고 있어 안정적인 수급에 도움이 되고 있다.

수입업체의 교섭력 강화 등 정책 지원 강화

수입업체가 많으면 국내 시장에서는 경쟁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수입 단계에서는 과당 경쟁을 유발하여 수입가격이 상승하고 필요 이상의 중복 수입으로 국가적으로는 손실을 낼 수 있다. 특히 영세한 수입업체가 난립하는 경우 현지 수출업체와의 구매 교섭면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국내 수입업체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과당경쟁을 막을 수 있는 수입업체 간 협의체의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구입가

격의 범위 설정, 대량 공동구매, 단체행동 등으로 수출업체의 교섭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재 수산물 수출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수산물무역협회를 확대하여 수입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방법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협의체를 매개로 수출의 경우처럼 국내외 시장 상황, 해외 생산·교역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입업체에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것도 수산물 수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수산물 수입이 국내 수산물 공급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FTA를 활용하여 양질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수입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ASEAN산 새우 TRQ 제도가 경직적이어서 품질에 문제가 있음에도 수입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TRQ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수입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냉동명태 합작물량에 대한 경매 제도는 수입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미국산에 대해 역차별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국내 유통업체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 감시 및 개선

수입수산물의 통관 이후 유통 과정에서 국내 유통업체가 독과점 지위에 있다면 가격과 물량을 조절하여 관세 인하의 이익을 누릴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대형할인점에 대한 유통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개별 수산물에 대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수산물 유통이 대형할인점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홈쇼핑·인터넷, 편의점 등 유통 경로를 다양화할 수 있는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 수입수산물은 소수의 가공업체나 대형급식업체에 주로 납품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FTA의 후생 효과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만일 독과점적 폐해가 심한 부분이 있다면 과징금 부과, 세무조사, 강제명령 등 법에 정해진 적절한 규제가 요청된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체계적 정보 수집 및 확산

시장의 비효율성은 정보의 비대칭에서 발생하는데 수입수산물 시장 또한 예외가 아닐 것이다. 현재 수입수산물에 대한 정보는 무역 자료 이외에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산 수산물과 달리 유사도매시장을 통하는 경우가 많아 유통단계별로 수입수산물의 물량이나 가격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소비자의 대형도매시장을 통해서도 유통되지만 국산 수산물에 비해 대표성이 크게 부족하여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품목별로 얼마나 많은 업체가 있는지 시장집중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는 더욱 찾기 어렵다.

정보의 부족은 거래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확보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수입수산물 유통 실태 파악이 힘들어져 이를 기초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해서도 당초 유통단계별로 후생 효과를 계측하고자 하였으나 자료의 한계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유통실태 조사도 해당 품목을 수입·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⁵⁰⁾ 또한 자료가 있더라도 유통단계별로 상품 규격에 대한 통일성이 부족해 활용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수입수산물 유통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과 관리가 시급하다. 특히 가장 기초적인 가격 정보는 현재 일부 국산 수산물에 대해 유통단계별로 조사·제공되고 있는 것처럼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도 대상 품목을 크게 확대하고 지속적인 조사와 정보의 제공이 요청된다.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정보도 최소한 정책 연구·개발 목적이라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현지 생산·수출단계에서부터 관련 정보를 확보한다면 국내 수입·유통업체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50) 현재 수입업체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공되지 않는다.

〈표 6-1〉 수산물 유통단계별 가격 정보 제공 현황

| 구분 | | 출처 | 상품 범위 | 상품 등급 구분 | 상품표준 분류 | 원산지 구분 | 시계열 자료 |
|----------|---------------|-----------------------|-------------|-------------|------------|---------------|-----------|
| 국내 가격 | 산지가격 | 어업생산동향조사 (통계청) | 생산 품목 전체 | X | O | - | '70년~ |
| | | 산지위판가격 (수협) | 생산 품목 전체 | X | X | - | '08년~ |
| | 도매가격 | KAMIS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14개 | O | O | - | '83년~ |
| | | 노량진시장 | 취급 품목 전체 | △ | X | - | '08년~ |
| | | 가락시장 | 취급 품목 전체 | △ | X | - | '08년~ |
| | 소매가격 | KAMIS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14개 | O | O | - | '83년~ |
| 수입 가격 | 수입단가 (CIF)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수입 품목 전체 | X | O | O | '00년~ |
| | 도매가격 | 노량진시장 | 취급 품목 전체 | △ | X | O | '08년~ |
| | | 가락시장 | 취급 품목 전체 | △ | X | O ('16년~) | '08년~ |
| | 소매가격 | KAMIS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3개 | O | O | X | '16년~ |

주 : 도매가격에서 상품등급이 구분되고 있으나 표준화된 등급이 아니어서 소매단계와 일치하지 않음

자료 : 저자 작성

유통이력관리제도의 확대 및 활용성 제고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입물품의 유통이력관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국외 수출업자, 국내 수입업자, 유통업체, 최종판매자까지 특정 수입 물품의 통관·유통 내역 및 경로를 추적(traceability)·관리하는 것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식품안전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물 품에는 수산물이 많은데 2017년 현재 뱀장어, 복어, 조기, 향어, 낙지, 옥돔, 고

등어, 갈치, 미꾸라지, 명태, 가리비, 돔, 꽂치 등이 대상이다.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아래 <그림 6-1>에서 수입업자가 유통(도매)업체에 양도한 내용(①)과 유통(도매)업체가 소매업체(최종판매점 등)에게 양도한 내역(②)을 순차적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수입수산물의 유통에 대한 정보(거래시점, 물량 등)를 총괄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들 정보를 활용하면 유통단계의 독과점을 활용한 불공정행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⁵¹⁾ 유통단계에서 독과점이 예상되거나 불투명한 수입수산물이 있다면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림 6-1> 수입물품의 유통이력관리제도



자료 : 관세청(www.customs.go.kr, 2017.9.13.)

51) 서진교 외,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pp.136~137.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김봉태, “고등어 원산지별 소비 특성에 대한 연구”, 『해양정책연구』, 제32권 제1호, 2017.
-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FTA보완대책·소비자후생 점검 나서”, 보도자료, 2017.9.14.
- 서진교·정철·이준원·정운선,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 이금노, “한·EU FTA 발효 후 수입소비재 가격변동 분석: 유통마진을 중심으로”, 『국제통상연구』, 제21권 제2호, 2016.
- 이병훈·송주호·문한필·정대희·박한울, 『FTA 체결 이후 주요 수입농산물 유통실태와 경제주체별 후생효과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 이정삼·류정곤·기해경, “중국 어선의 북한 동해수역 입어동향과 대응방향”, 『수산경영론집』, 제48권 3호, 2017.
- 장영주, 『수입수산물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09.
- 차영기·김기수, “수입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의 가격간 유통단계별 인과성 분석: 명태, 갈치, 조기 냉동품을 대상으로”, 『수산경영론집』, 제40권 제2호, 2009.
- 최용호·윤영석·이상현, “오렌지 수입시장에서의 관세 인하에 따른 후생효과 분석”, 『농촌경제』, 제39권 제1호, 2016.
- 푸드원텍(주), 『수입수산물 선진관리체계 기반 구축 방안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농축산물 조사·분석 연차보고서』, 201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15』, 2017.
- 한국수산물무역협회·한국수산물 수산정책연구소, 『2013 수입수산물 가격조사·분석 사업 최종보고서』, 해양수산부, 2013.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해양수산부, 2018.
- 홍성걸·주문배·백기창, 『수입수산물 유통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7.

〈국외 문헌〉

- Balassa, Bela, “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in the European Common Market,” *The Economic Journal*, 77(305), 1967.
- Clausing, Kimberly A., “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in the Canad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Revue canadienne d'économique*, 34(3), 2001.
- Johnston, Jack and John Dinardo, *Econometric Methods*, New York: McGraw-Hill, 1997.
- Krueger, Anne O., *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under NAFTA*, Working Paper 7429,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BER Working Paper Series, 1999.
- Krugman, Paul R. and Maurice Obstfeld, *International Economics: Theory and Policy*, Boston: Pearson Addison-Wesley, 1997.
- Magee, Christopher S.P., “New measures of 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75(2), 2008.
- Susanto, Dwi, C. Parr Rosson, and Flynn J. Adcock, “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in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the case of the agricultural sector,” *Journal of Agricultural and Applied Economics*, 39(1), 2007.
- Tsai, P., “Norweign Mackerel’s Potential in Korea”, *Presentation slides from 2017 mackerel open forum*, Norwegian Seafood Council.
- Viner, Jacob, *The Customs Union Issue*, New York: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50.

Vollrath, Thomas, and Charles Hallahan, *Reciprocal trade agreements: Impacts on bilateral trade expansion and contraction in the world agricultural marketplace*, Economic Research Report 102755,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2011.

〈인터넷 자료〉

FTA 강국 KOREA, www.fta.go.kr (검색일: 2017.10.30.)
UN comtrade, comtrade.un.org (검색일: 2017.12.1.)
관세청, www.customs.go.kr (검색일: 2017.9.1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www.nfqs.go.kr (검색일: 2017.9.13.)
꼬꼬사롱, kokosalon.co.kr (검색일: 2017.12.1.)
다음 블로그, blog.daum.net/horbit77 (검색일: 2017.12.14.)
다음 블로그, blog.daum.net/kbs506 (검색일: 2017.12.14.)
다인푸드닷컴, www.dainfood.com (검색일: 2017.12.5.)
대방수산, www.daebangfishery.com (검색일: 2017.12.15.)
롯데마트, www.lottemart.com (검색일: 2017.12.14.)
맘쿡, www.momcook.co.kr (검색일: 2017.12.14.)
삼정수산, samjungsusan.com (검색일: 2017.12.1.)
유니언포씨, www.forsea.co.kr (검색일: 2017. 12. 15.)
유림수산유통, www.yurimfishery.co.kr (검색일: 2017. 12. 15.)
이바다몰, www.ebadamall.com (검색일: 2017.12.14.)
윈윈수산, winwinseafood.co.kr (검색일: 2017.12.15.)
지마켓, www.gmarket.co.kr (검색일: 2017.12.14.)
진영식품, jinyoungfood.modoo.at (검색일: 2017.12.1.)
치어스코리아, cheerskorea.com (검색일: 2017.12.1.)
칼슘명가, calhouse.co.kr (검색일: 2017.12.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 (검색일: 2017.9.13.)

티스토리 블로그. “Dasrim”, dasrim.tistory.com (검색일: 2017.12.1.)

한국무역통계진흥원, [trass.Kctdi.or.kr](http://trass.kctdi.or.kr) (검색일: 2017.9.13.)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 (검색일: 2017.9.13.)

한스무역, hanstradingltda.wixsite.com (검색일: 2017.12.5.)

부록 <<

FTA 이후 수산물 소비 실태 및 소비자 인식 조사표

SQ. 응답자 선정 질문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성 ② 남성

SQ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나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20세 미만 **설문 종료**
 ② 20~25세 미만 ③ 25~30세 미만 ④ 30~35세 미만
 ⑤ 35~40세 미만 ⑥ 40~45세 미만 ⑦ 45~50세 미만
 ⑧ 50~55세 미만 ⑨ 55~60세 미만
 ⑩ 60세 이상 **설문 종료**

SQ3.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 ① 서울특별시 ② 인천광역시 ③ 대구광역시
 ④ 대전광역시 ⑤ 부산광역시 ⑥ 광주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⑧ 기타 () **설문 종료**

SQ4. 귀하께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본인이 직접 또는 동행하여 수산물을 구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내가 직접 골라 구입한 적이 있다
 ② 내가 고르지는 않았으나 구입 시 동행한 적이 있다
 ③ 최근 3개월 이내에는 직접 구입하거나 구입 동행한 적이 없다 **설문 종료**

SQ5. 최근 3개월 이내에 본인이 구입 또는 동행하여 구입하신 수산물 품목들을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어물, 통조림, 진미채 등 가공된 수산물이 아닌, 냉동 또는 생물/냉장 상태의 수산물을 구입한 품목만 선택해 주십시오, 단, 즉석조리용 진공포장 수산물은 포함됩니다.)

〈즉석조리용 진공포장 제품 예시〉



- | | | | |
|-------|--------|-------|------|
| ① 고등어 | ② 새우 | ③ 주꾸미 | ④ 연어 |
| ⑤ 가자미 | ⑥ 바닷가재 | ⑦ 오징어 | ⑧ 명태 |
| ⑨ 골뱅이 | ⑩ 조기 | ⑪ 갈치 | |

SQ6. 앞에서 선택하신 최근 3개월 이내에 구입하신 수산물 품목 중, 국산이 아닌 수입산을 구입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수입산 수산물을 구입해 보신 품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 | | | |
|-------|--------|-------|------|
| ① 고등어 | ② 새우 | ③ 주꾸미 | ④ 연어 |
| ⑤ 가자미 | ⑥ 바닷가재 | ⑦ 오징어 | ⑧ 명태 |
| ⑨ 골뱅이 | ⑩ 조기 | ⑪ 갈치 | |

SQ7. 아래의 수산물 가공제품 중, 귀하께서 최근 3개월 이내에 구입해보신 품목이 있으십니까? 구입해 보신 수산물 가공제품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오징어채(진미채) | ② 버터구이 오징어 포장제품 |
| ③ 코다리(명태) | ④ 게맛살 |
| ⑤ 골뱅이 통조림 | |
| ⑥ 최근 3개월 이내에 앞의 제품들 구입한 적이 없다 | |

[Program SQ7.에서 ① 오징어채(진미채), ② 버터구이 응답자에게만 질문]

SQ7_1. 귀하께서 구입하신 오징어 가공제품은 원재료의 원산지가 어디 어디였습니까? 3개월내에 구입해보신 오징어 가공제품에 들어가는 원재료 오징어의 원산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모두 국산 오징어를 가공한 것이었다
- ② 수입산도 있고 국산도 있었다
- ③ 모두 수입 오징어를 가공한 것이었다
- ④ 원재료 오징어의 원산지는 잘 모른다

※ 수산물 구입일반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T1. 수산물 구입 일반

T1. 귀하께서 평소에 자주 구입하시는 수산물은 어떤 것들인가요? 지난 1년을 기준으로 많이 구입하신 순서대로 3개만 선택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① 고등어 ② 새우 ③ 주꾸미 ④ 연어
- ⑤ 가자미 ⑥ 바닷가재 ⑦ 오징어 ⑧ 명태
- ⑨ 골뱅이 ⑩ 조기 ⑪ 갈치 ⑫ 기타()

T2. 그러면 귀하께서는 수입수산물을 어떤 품목을 주로 구입하십니까? 지난 1년을 기준으로 많이 구입하신 순서대로 3개만 선택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① 고등어 ② 새우 ③ 주꾸미 ④ 연어
- ⑤ 가자미 ⑥ 바닷가재 ⑦ 오징어 ⑧ 명태
- ⑨ 골뱅이 ⑩ 조기 ⑪ 갈치 ⑫ 기타()

T3. 귀하께서는 평소에 냉장, 냉동 또는 생물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원산지를 얼마나 확인하시는 편입니까?

| | | | | |
|----------------|------------|---------------|----------|---------|
|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 가끔 확인한다 | 반 정도는 확인한다 | 대부분 확인한다 | 항상 확인한다 |
| 1 | 2 | 3 | 4 | 5 |

T4. 귀하께서는 평소에 수산물 가공제품(진미채/통조림 제품 등)을 구입하실 때 원산지를 얼마나 확인하시는 편입니까?

| | | | | |
|----------------|---------|---------------|----------|---------|
|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 가끔 확인한다 | 반 정도는 확인한다 | 대부분 확인한다 | 항상 확인한다 |
| 1 | 2 | 3 | 4 | 5 |

T5. 귀하께서는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수입산 수산물이 국산 수산물과 비교했을 때 품질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산이나 수입산(중국산 포함)이나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한다.
- ② 중국산만 아니면, 국산이나 구입산이나 별 차이 없다.
- ③ 중국산을 별도로 하더라도, 국산 수산물과 수입수산물은 차이가 있다.

T5_1. [Program T5. 에서 ③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국산과 수입산이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셨는데,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수입산이 확실히 좋다 | 수입산이 좋다 | 수입산이 조금 좋다 | 비슷하다 | 국산이 조금 좋다 | 국산이 좋다 | 국산이 확실히 좋다 |
| -3 | -2 | -1 | 0 | 1 | 2 | 3 |

[Program : '0' 비슷하다는 체크할 수 없도록 할 것]

T6. 귀하께서는 수산물을 소비하는 양이 2~3년 전에 비해 늘었습니까? 아니면 소비가 줄었습니까? 국산 및 수입산 구분 없이 수산물을 먹는 양을 말씀해 주십시오.



※ 다음은 FTA가 국내에 도입된 후 국산과 수입산 모두를 포함한, 국내 수산물시장전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의 동의 정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A. FTA 수산물일반에 대한 소비자 인식

FTA(자유무역협정)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이후, 유럽 EU(2011년), 미국(2012년), 중국(2015년) 등등 지난 4-5년 동안 여러 국가들과 FTA가 발효되면서 국내 시장에는 많은 수입품이 소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다수의 수입수산물은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입니다.

* FTA체결국(중국, ASEAN, EFTA(노르웨이 등), 미국, 칠레, EU, 페루,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 터키, 호주, 콜롬비아, 싱가포르, 베트남)

A1. FTA를 통해 국내 소비자가 구입하는 수산물의 품질이 향상되었다

| | | | | | | |
|-----------|-----|-----------------|----------|-----------|-----|-----------|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약간 아닌 편이다 | 변화 없다 | 약간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3 | -2 | -1 | 0 | 1 | 2 | 3 |

A2. FTA를 통해 국내 소비자가 구입하는 수산물의 가격이 낮아졌다

| | | | | | | |
|-----------|-----|-----------------|----------|-----------|-----|-----------|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약간 아닌 편이다 | 변화 없다 | 약간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3 | -2 | -1 | 0 | 1 | 2 | 3 |

A3. FTA를 통해 국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의 선택종류 및 가격대 등이 확대되었다

| | | | | | | |
|-----------|-----|-----------------|----------|-----------|-----|-----------|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약간 아닌 편이다 | 변화 없다 | 약간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3 | -2 | -1 | 0 | 1 | 2 | 3 |

A4. FTA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의 수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구입만족도가 높아졌다.

| | | | | | | |
|-----------|-----|-----------------|----------|-----------|-----|-----------|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약간 아닌 편이다 | 변화 없다 | 약간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3 | -2 | -1 | 0 | 1 | 2 | 3 |

※ 지금부터는 귀하께서 구입하신 수입수산물 품목별로 여쭙보겠습니다. 먼저 통조림, 포, 건조 등 가공수산물이 아닌, 생물/냉장/냉동 수산물에 대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B. 고등어(신선냉장, 냉동, 즉석조리용 진공포장)

[PROGRAM: SQ6에서 ① 고등어 에 응답한 응답자에게만 질문할 것]

귀하께서 구입하신 수입 고등어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3개월 내에 여러번 수입 고등어를 구입하셨다면 가장 최근에 구입하신 경우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B1. 귀하께서는 가장 최근에 구입하신 수입 고등어는 어디서 구입하셨는지요. 구입하신 매장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재래시장 ② 대형마트 ③ 도매시장
④ 인터넷쇼핑몰 및 TV홈쇼핑 ⑤ 동네 슈퍼마켓 ⑥ 백화점
⑦ 편의점 ⑧ 기타()

B2. 귀하께서 수입 고등어(신선냉장(해동), 냉동, 즉석조리용 진공포장)는 어디 산을 구입하셨나요?

- ① 노르웨이산 ② 영국산 ③ 기타 외국산() ④ 모름

B2_1. 귀하께서 최근에 수입 고등어를 구입하셨을 때, 해당 원산지의 수입 고등어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1위, 2위 응답

- ① 신선도가 높아 보여서 ② 가격이 저렴해서
③ 원산지가 믿을 만해서(안전성) ④ 포장단위가 마음에 들어
⑤ 판매원이 추천해서 ⑥ 할인행사를 해서
⑦ 해당 원산지 제품만 있어서 ⑧ 기타()

B3. 귀하께서 평소에 수입 고등어를 구입하실 때 원산지를 얼마나 확인하시는 편입니까?

| | | | | |
|----------------|---------|------|----------|---------|
|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 가끔 확인한다 | 반반이다 | 대부분 확인한다 | 항상 확인한다 |
| 1 | 2 | 3 | 4 | 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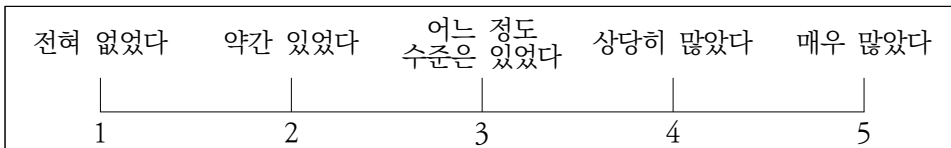
B4. 귀하께서 고등어를 구입하시면 그 중 수입 고등어를 사시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만일 10번을 구입한다고 하면 몇 번 정도는 수입 고등어를 구입하십니까?

고등어를 사는 10번 중 ()번은 수입 고등어를 산다

B5. 그러면 귀하께서 고등어를 구입하시는 경우 중, 수입 고등어를 구입하는 비율은 2~3년 전에 비해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B6. 귀하께서 최근에 수입 고등어를 구입하실 때, 고를 수 있는 고등어 제품이 다양하게 있었습니까? 크기나 가격대, 그리고 원산지 등 고를 수 있는 종류가 얼마나 많았는지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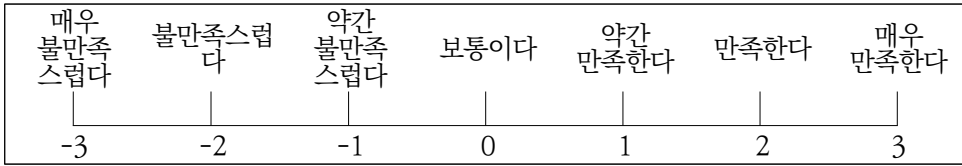
B7.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귀하께서 구입한 수입 고등어의 가격은 구입하시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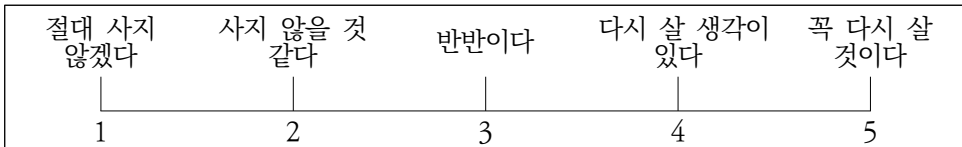
B8. 그러면 최근에 귀하께서 구입한 수입 고등어의 품질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B9. 귀하께서 전체적으로 보아 최근에 수입 고등어를 구입하신 것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B10. 귀하께서는 다음에 고등어를 사신다면, 해당 원산지의 수입 고등어를 다시 구입하시겠습니까?



※ 이하 각 제품별로 위와 동일한 설문 구조로 질문함(다른 부분만 작성함)

C. 새우(냉동 - 새우, 새우살(카테일새우 포함))

[PROGRAM: SQ6에서 ② 새우 에 응답한 응답자에게만 질문할 것]

귀하께서 구입하신 수입 새우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3개월 내에 여러 번 수입 새우를 구입하셨다면 가장 최근에 구입하신 경우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C1. B1과 동일, 제품명: 수입 새우(냉동-새우, 새우살(카테일 새우 등))

C2. 귀하께서 가장 최근에 구입하신 수입 새우는 어디 산을 구입하셨나요?

- ① 베트남산 ② 태국산 ③ 중국산 ④ 에콰도르산
⑤ 아르헨티나산 ⑥ 기타 외국산 () ⑦ 모름

C2_1~C10 : B2_1~B10 과 동일, 제품명: 수입 새우

D. 연어(신선냉장, 냉동)

[PROGRAM: SQ6에서 ④ 연어 에 응답한 응답자에게만 질문할 것

귀하께서 구입하신 수입 연어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3개월 내에 여러번 수입 연어를 구입하셨다면 가장 최근에 구입하신 경우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D0. 귀하께서 가장 최근에 구입하신 수입 연어는 어떤 종류였습니까?

- ① 생 연어 ② 냉동 연어

D0-1. 귀하께서 가장 최근에 구입하신 수입 연어의 사용 용도는 무엇이었나요?

- ① 회 ② 샐러드 ③ 초밥
④ 구이/스테이크 ⑤ 기타()

D1. B1과 동일, 제품명: 수입 연어

D2. 귀하께서 가장 최근에 구입하신 수입 연어는 어디 산을 구입하셨나요?

- ① 노르웨이산 ② 칠레산 ③ 기타 외국산() ④ 모름

D2_1~D3 : B2_1, B3 와 동일, 제품명: 수입 연어

D6~D10 : B6~B10 과 동일, 제품명: 수입 연어

※ 지금부터는 귀하께서 구입하신 통조림, 진미채, 버터구이, 게맛살 등 가공 수산물에 대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H. 명태(코다리), 게맛살(명태연육)

[PROGRAM: SQ7에서 ③ 코다리(명태) 또는 ④ 게맛살 에 응답한 응답자에게만 질문할 것

귀하께서 구입하신 수입 명태 가공품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3개월 내에 여러 번 수입 명태 가공품(코다리 또는 게맛살)을 구입하셨다면 가장 최근에 구입하신 경우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H0. 귀하께서 가장 최근에 구입하신 명태가공품은 코다리(명태), 게맛살(명태연육) 중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장 최근에 구입하신 것을 응답해 주십시오. 게맛살의 주 성분은 명태연육입니다.

- ① 코다리(명태) ② 게맛살

H1. B1과 동일, 제품명: 명태 가공품(코다리/ 게맛살)

H2. 귀하께서 가장 최근에 구입하신 명태 가공품(코다리/ 게맛살)은 어디 산을 구입하셨나요? 국내에서 가공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원재료의 원산지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미국산 ② 러시아산 ③ 기타 외국산() ④ 모름

H2_1~H3 : B2_1, B3 와 동일, 제품명: 명태 가공품(코다리/ 게맛살)

H6~H10 : B6~B10 과 동일, 제품명: 명태 가공품(코다리/ 게맛살)

J. 오징어(진미채, 안주용버터구이 등)

[PROGRAM: SQ7 에서 ① 오징어채(진미채), ② 버터구이 또는 훈제 오징어 & SQ7_1 에서 ①이 아닌 경우에 응답한 응답자에게만 질문할 것]

귀하께서 구입하신 수입 오징어가공제품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3개월 내에 여러 번 수입 오징어 가공품을 구입하셨다면 가장 최근에 구입하신 경우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오징어 가공품을 국산 구입경험이 있더라도, 아래 응답은 수입 오징어 가공제품 구입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J0. 귀하께서 가장 최근에 구입하신 수입오징어 가공품(진미채/ 버터구이 등)은 어떤 종류인가요? 가장 최근에 구입하신 것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오징어채 (진미채) ② 버터구이 오징어 등

J1. B1과 동일, 제품명: 오징어 가공품(진미채/ 버터구이 등)

J2. 귀하께서 가장 최근에 구입하신 오징어 가공품(진미채/ 버터구이 등)은 어디산을 구입하셨나요? 국내에서 가공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원재료의 원산지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페루산 ② 칠레산 ③ 중국산 ④ 기타 외국산 ()
⑤ 모름

J2_1~J3 : B2_1, B3 와 동일, 제품명: 오징어 가공품(진미채/ 버터구이 등)

J6~J10 : B6~B10 과 동일, 제품명: 오징어 가공품(진미채/ 버터구이 등)

※ 마지막으로, FTA 체결 후 국산과 수입산 모두를 포함하는, 국내 소고기·돼지고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각 질문에 대해 귀하의 동의 정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FTA 체결을 통해 수산물 뿐 아니라, 소고기(미국, 호주 등), 돼지고기(유럽연합(EU), 캐나다 등) 등도 다양한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습니다.

K. 수입 축산물 (소고기/돼지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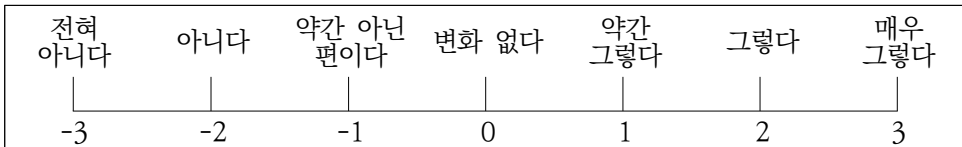
K1. FTA를 통해 국내 소비자가 구입하는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품질이 향상되었다.

| | | | | | | |
|-----------|-------|-----------------|----------|-----------|-------|-----------|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약간 아닌 편이다 | 변화 없다 | 약간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3 | -2 | -1 | 0 | 1 | 2 |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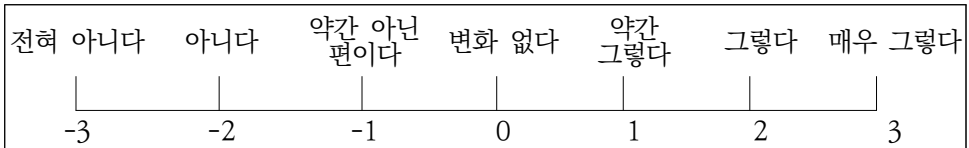
K2. FTA를 통해 국내 소비자가 구입하는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가격이 낮아졌다.



K3. FTA를 통해 국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선택종류 및 가격대 등이 확대되었다.



K4. FTA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의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구입만족도가 높아졌다.



DQ. 응답자 특성 질문

DQ1. 귀하께서 현재 본인과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본인 포함하여 몇 명이 같이 살고 있으십니까? (본인 포함)

- | | | |
|----------|------|---------|
| ① 1명(혼자) | ② 2명 | ③ 3명 |
| ④ 4명 | ⑤ 5명 | ⑥ 6명 이상 |

FTA 체결 이후 수입수산물의 유통·소비 현황과 과제

| | |
|---------|--|
| • 인 쇄 | 2017년 12월 29일 인쇄 |
| • 발 행 | 2017년 12월 31일 발행 |
| • 발 행 인 | 양 창 호 |
| • 발 행 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 • 연 락 처 | 051-797-4800 (FAX 051-797-4810) |
| • 등 록 |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
| • 조판·인쇄 | 효민디앤피 051-807-5100 |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 - 0337

정가 15,000원